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관광개발학과

김 석 윤

2014年 8月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指導教授 송 재 호

김 석 윤

이 論文을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8月

김석윤의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장 성 수

委 員

최 용 복

委 員

이 진 희

委 員

김 향 자

委 員

송 재 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8月

A Study on The Dark Tourism Typology and Resources Applying

Seok-y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ho,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Development

2014. .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4
제3절 연구 방법	5
제2장 다크 투어리즘 개념 체계	8
제1절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사적 고찰	8
1. 어둠과 Dark Tourism	8
2. 해외 연구	11
3. 국내 연구	29
4. 소 결	41
제2절 다크 투어리즘 유사개념 고찰	43
1. 순례관광	43
2. 유산관광	51
3. 안보관광	56
4. 소 결	61
제3절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체계 확립	66
1. 개념화 요인	66
2. 개념화	69
제3장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72

제1절 유형화를 위한 준거 설정	72
1. 준거 설정 방법	72
2. 이론 연구에 의한 준거	75
3. 사례 연구에 의한 준거	78
4. 소 결	90
제2절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체계 확립	94
1. 유형화를 위한 속성 연구	94
2. 유형화 요인 검토	98
3. 전문가 조사	100
4. 유형화 체계 확립	114
제4장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자원 적용과 해석	116
제1절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현황	116
1. 범위 및 용어의 정의	116
2. 자원 현황	119
제2절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의 유형 적용과 해석	120
1. 지원의 적용	120
2. 적용결과의 해석	121
제5장 결 론	14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4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150
참고문헌	152
부 록	162
ABSTRACT	193

표 차례

〈표 II-1〉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	25
〈표 II-2〉 해외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28
〈표 II-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39
〈표 II-4〉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42
〈표 II-5〉 유사관광의 공통점과 차이점	64
〈표 II-6〉 다크 투어리즘과 유사관광의 공통점	65
〈표 III-1〉 연구자별 다크 투어리즘 요인 규명	76
〈표 III-2〉 연구자 기준에 따라 분류된 다크 투어리즘 핵심단어	77
〈표 III-3〉 다크 투어리즘 통합 키워드 추출	77
〈표 III-4〉 다크 투어리즘 속성 추출	97
〈표 III-5〉 다크 투어리즘 속성과 내포 의미	98
〈표 III-6〉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구성 요인	99
〈표 III-7〉 전문가 그룹 분류	105
〈표 III-8〉 전문가 응답 비율	106
〈표 III-9〉 개방형 설문지 요인 구성	106
〈표 III-10〉 2차 설문지 다크 투어리즘 사건 구성 요인	108
〈표 III-11〉 2차 설문지 다크 투어리즘 방문행태 구성 요인	108
〈표 III-12〉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 추출 결과	109
〈표 III-1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 구성	110
〈표 III-14〉 3차 설문지 속성과 의미	111
〈표 III-15〉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과 속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112
〈표 III-16〉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	113
〈표 III-17〉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매트릭스	115
〈표 IV-1〉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현황	120
〈표 IV-2〉 유형별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분포 현황	121
〈표 IV-3〉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주요 속성	145

그림 차례

[그림 I - 1] 연구의 흐름	7
[그림 II - 1] 다크 투어리즘 수요 및 공급 행렬	19
[그림 II-2]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	20
[그림 II-3] 순례와 관광의 연속선	49
[그림 II-4] 유산관광의 범위	55
[그림 II-5] 유산자원의 관광 상품화 과정	56
[그림 II-6] 안보관광자원의 특성	58
[그림 II-7] 다크 투어리즘의 분포범위	66
[그림 III-1] 유형화를 위한 연구 모형	74
[그림 III-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102
[그림 III-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속성 분포도	113
[그림 III-4]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분류 체계도	114
[그림 IV-1] 다크 투어리즘 속성별 평균 분포도(전체)	122
[그림 IV-2]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별 평균(상위/하위)	123
[그림 IV-3] 전투전쟁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24
[그림 IV-4] 대량학살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27
[그림 IV-5] 재난재해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30
[그림 IV-6] 역사성과 정체성의 유형별 분포형태	130
[그림 IV-7] 위협성의 유형별 분포형태	131
[그림 IV-8] 식민지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33
[그림 IV-9] 상품성의 유형별 분포도(하위)	134
[그림 IV-10] 안보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36
[그림 IV-11] 민주화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39
[그림 IV-12] 묘지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43
[그림 IV-13] 기념시설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44
[그림 IV-14] 재현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144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현재 발생하는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가 된다. 지나간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억되거나 현재화된 모습의 과거는 이미 변화했거나 새롭게 재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은 스스로 자립할 수밖에 없다. 자립의 기초는 역시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사전적인 의미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인 가운데는 그 지방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독창적인 지방의 역사를 바탕으로 차별성을 지닌 관광자원, 재해석된 지방의 역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독창적인 지방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은 매력요인과 경쟁력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어두운 역사 기억에 대한 추모와 기념의례도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역사 기억은 고정되지 않고 현재의 삶이 반영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어두운 이미지의 장소들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다크 투어리즘은 변화되거나 재구성된 현재의 기억을 본질의 것으로 되살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송재호외, 2012). 또한 송재호·김향자(2009)의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기존의 공원 개념이 민중공원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의 이론과 개념체계와는 다른 개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방법과 접근체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설에 대한 이용객 방문동기와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위험사회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등장 배경에 관한 연구, 장소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해외연구의 경우 죽음과 관련된 관광행태를 연구한 사례부터, 사망 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다크 투어리즘의 실제 공간으로서 박물관 연구, 다크 투어리즘의 가이드 방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현상으로서 다크 투어리즘은 국내의 경우에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장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장소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해외의 다양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양적·질적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구되어져 왔다.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개념과 범위 등에 관해서 일정정도의 합의와 함께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많은 관련 유적지들이 죽음·고통·비극·재앙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다크 투어리즘의 정의를 내리거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시설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안범용, 2012).

무엇보다 학문연구를 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를 분명히 해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다크 투어리즘 연구 또한 유형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다크 투어리즘 관련 해외의 사례를 곧바로 국내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와 국내는 자원의 성격과 분포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례로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문연구의 주제로 자주 채택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도 탐색기라고 볼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정립이 덜된 가운데 용어를 단순 차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례와 개념을 다크 투어리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이다. 이 경우 개념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국내 사례에 적용시킬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 사례로 국내 사건이나 장소 등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차용하여 사례를 적용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와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국내 사례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DMZ 사례이다.

또 다른 경우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경우 서양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지만 국내에서는 그 사례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고스트 체험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서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현실에 맞게 유형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인접학문분야와 통합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바탕으로 수용자측면, 공급자측면, 유형별 방문행태의 차이연구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 분야 연구의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의 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역사자원은 유형과 무형의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어두운 이미지를 갖는 사건과 장소 또한 지역의 역사이며 자산이다. 역사적 사건처럼 무형의 역사자원 가운데 장소의 매력적 요인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유형의 관광상품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의 관광상품화 방안은 차별화된 지역의 관광전략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내 다크 투어리즘은 연간 66만 여명이 찾는 거제도포로수용소, 65만 명이 방문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60만 명 이상 방문하는 5.18민주공원, 25만 명이 찾는 제주 4·3평화공원 등 이미 상당한 규모로 관광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록 어두운 기억이지만 올곧은 전승과 참된 평화와 인간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개념 체계 수립과 유형분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에 대한 개념화 및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유형에 적용하고 해석함으로써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자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의 발생 배경인 사건과 표현되는 행태에 따라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문연구의 체계화 및 어두운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개념적 연구이다.

2.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는 용어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블랙스팟이나 타나투어리즘 등으로 불리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역사관광 교훈여행, 순례관광 등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에서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죽음과 연관된 관광자의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사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관광행위가 발생하면서 현상에 대한 해석과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학문적인 논의가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알맞은 다크 투어리즘 개념 도출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크 투어리즘 연구는 유형에 따라서 방문자의 방문동기, 수요와 공급의 특성 등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도출하고 국내에 분포하는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적용하여 제시된 유형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2) 공간적 범위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국내 연구 이전에 죽음이나 어두운 이미지 장소 방문자에 관한 연구가 해외에서부터 진행돼 왔다. 다크 투어리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도출하여 제시된 유형에 자원을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원적용을 위해서 국내에 분포하는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된 자원은 전문가 조사 결과에 의해 제시되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다.

3) 시간적 범위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은 중세의 순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기원과 정의 등에 관한 논쟁 과정을 거친 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연구 측면에서 시간적 범위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위험사회에 이르러 다크 투어리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정하였다.

국내에 분포하는 자원의 적용과 해석을 위한 조사대상 자원은 일제식민지와 연관된 자원부터 최근 발생한 참사와 관련된 사건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때문에 자원의 측면에서 시간적 범위는 일제식민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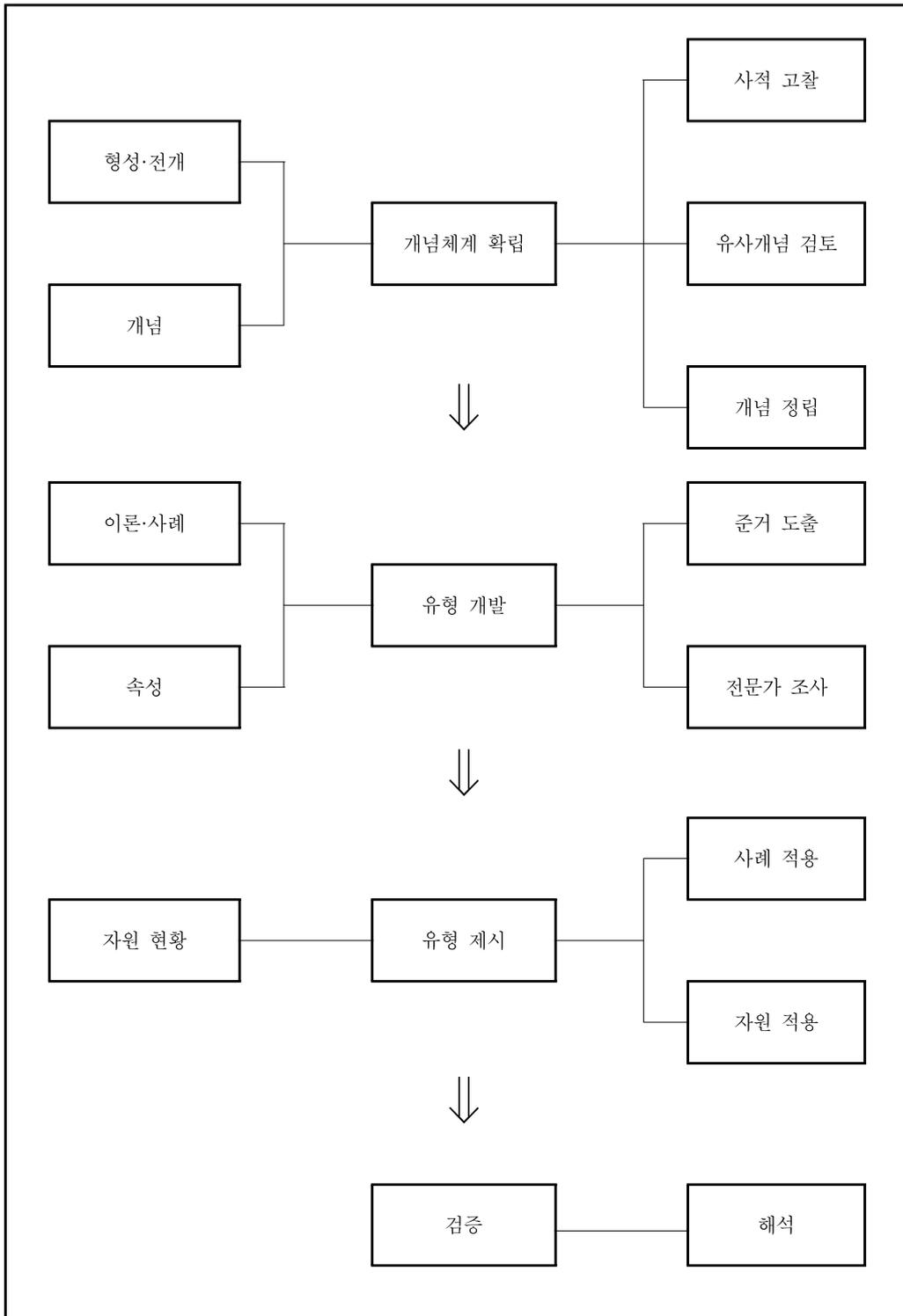
문헌연구는 사적고찰을 함으로써 다크 투어리즘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개념의 발생 배경 고찰을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사건·기관·제도·정책 등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파악·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에서는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nation) 방식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문헌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증거를 도출하는 체계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내용분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은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면적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이면에 담겨 있는 심층 내용을 추론하고,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

해외의 이론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각 요인별 공통요소와 차이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자료의 성격 규명과 평가가 보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문헌 그 자체만을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다른 문헌들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헌을 비교함으로써 각 문헌의 고유한 특징과 성격, 가치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개별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없는 여러 성격들을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건에 맞는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다크 투어리즘 속성과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는 델파이조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I - 1] 연구의 흐름

제2장 다크 투어리즘 개념 체계

제1절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사적 고찰

1. 어둠과 Dark Tourism

사전적인 의미에서 Dark는 형용사로써 어두운, 캄캄한, 검은, 음흉한 등으로 쓰이며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어둠, 암흑으로 사용된다. 어둠과 빛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된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이 두개의 요소는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 밤·어둠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자 상대방의 소멸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두 파트너는 밤과 낮, 死와 生이라는 본능적 상징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배은경, 2004).

죽음은 언제나 철학의 중심에 있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조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때는 없었으며 따라서 죽음을 철학적으로 고찰한 연구의 분량과 그 역사는 철학의 그것과 같이 한다(이기범, 2009). 죽음이란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일상적으로는 매우 모호하며 그 결과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인간’과 그 구성요소인 ‘영혼’ 및 ‘육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을 영혼으로 보는 플라톤(Platon, BC 427-347)적 사고방식에서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인간 혹은 영혼이 그러한 해방 이후에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 BC 384-322)의 인간관을 반영하면 인간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개인의 소멸을 의미한다(김중영, 2010).

에피쿠로스(Epikuros, BC 341-270)는 세계와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바라본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도 세계의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들은 결코 정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 모두가 지속적인 운동과 그치지 않는 변화 속

에 놓여 있다.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생명을 유지해 주는 원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상실되면, 해당되는 육체는 부서지고 희생된다. 인간의 영혼도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자신의 구성요소들로 분해된다(홍진국, 2009).

죽음과 삶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파악했던 하이데거와 실존주의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을 잉여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인간은 '죽는 나'를 의식하는 '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죽음이란 죽음의 과열로 이해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죽음은 죽는 인간이라는 과거와 죽음을 의식하는 현재,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죽을 미래가 포함된 것이다(이기범, 2009).

불교에서는 죽음이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사라지고, 수명이 다하고 기운이 다해서 몸을 버리는 사건을 죽음이라고 하였다. 목숨과 체온과 의식, 이 세 가지 요소가 떠나서 인체의 기관이 변하여 멈춘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몸 또는 육체는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한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인간 현상의 종말이 아니라 영혼의 분리를 통한 새로운 시작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소멸하지 않고 분리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다만 기독교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점에서 불교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김중영, 2010).

문학으로 형상화 된 역사적 사건은 역사의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역사는 역사가의 재해석이고 문학은 역사 혹은 역사로는 다 남기지 못한 개개인들의 기억을 작가의 가치관이나 작품의 주제의식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부경아, 2011).

홀로코스트¹⁾ 사건 이후 예술가들이나 역사가들, 철학자들에게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미술영역에서도 관련 작업들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홀로코스트 경험자에게 트라우마²⁾는 사후적으로

1) Holocaust는 현대에 와서 '대량학살'의 의미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서유럽에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스에 의해 자행된 600만에 가까운 유대인 학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뜻하는 말로 홀로코스트 보다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히브리어로 재앙을 뜻하는 쇼아(Shoah)를 더 빈번히 사용한다(장순옥, 2012).

2) 외상후스트레스는 삶을 위협할 정도의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겪는 스트레스이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주의력 결핍, 기억력 저하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끔찍한 경험에 대한 불안 반응을 보이는 일이 지속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작용되며, 트라우마로 인한 부모세대의 행동, 또는 증상에 영향을 받는다. 홀로코스트 사건의 사후적인 영향력은 사건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이 겪는 것이다. 이는 홀로코스트라는 특정 역사적 맥락을 넘어, 인간에게 닥친 극한적 고통의 사건이 어떻게 시각적 표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김지예, 2010).

홀로코스트 문학을 대표하는 장 아메리³⁾의 ‘죄와 속죄의 저편’에서 고문은 나치즘의 정수였다. 고문의 목표는 고문 그 자체, 즉 사람의 육체에 대한 파괴와 인간존엄성의 훼손이었다. 악함에 대한 확신에 따른 행위로 간주한다. 강제수용소의 삶에서 존재뿐만 아니라 비존재, 즉 죽음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아메리는 아우슈비츠 이후 다양하게 대두된 기억이론이 결국에는 아우슈비츠의 과거화 또한 역사화에 귀결되는 기억하기라고 여기고, 이를 거부하며 지역적일지언정 비인간적인 망각을 거스르는 ‘원한’⁴⁾을 주장한 것이다(박윤희, 2014).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전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20세기 이후 국민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전쟁의 기념양태는 그 이전과 달리 기념의 ‘상품화’와 ‘대중화’를 띄게 된다. 러일전쟁당시 일본은 중군화가의 기념엽서를 배포하였다. 기념엽서는 전장의 일상을 평화롭고 한가로이 묘사하여 전쟁에 대한 일반인의 거부감과 공포심을 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을 보다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었다. 기념엽서 가운데 전사자의 주검이나 부상자의 고통을 그린 작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박진한, 2009).

이처럼 죽음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철학과 종교 영역을

한다. 외상후스트레스는 목숨이 위협될 정도의 경험을 한 후에 겪게 되는 불안증의 일종이다. 여기서 말하는 끔찍한 경험은 전쟁, 성폭행, 고문,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일생동안 겪지 않을 수 있거나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다.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죽음 또는 그와 비슷한 위협을 느꼈다면 개인에게는 끔찍한 경험, 즉 심리적 충격(trauma:심리적 외상)이 된다(유정, 2011).

3) 본명은 한스 차임 마이어이며 191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1938년 벨기에로 망명했지만 벨기에가 독일군에 항복하면서 체포되었다. 1940년 프랑스 귀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탈출했으며, 1943년 다시 체포되어 고문집행소와 수용소로 개조되었던 브렌도크 요새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다른 수용소를 거쳐 1944년 1월에 아우슈비츠-모노비츠 수용소에 수감된다. 1년 후 부헨발트 수용소를 거쳐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송된 아메리는 1945년 4월14일 풀려났다(박윤희, 2014).

4) 홀로코스트 작가인 프리모레비가 세계평화와 화해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아메리는 화해가 결국에는 망각일 뿐이라 비판하며 원한을 주장한다. 여기서 원한의 궁극적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 참담한 과거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아메리는 이러한 원한의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한에 사로잡힌 비틀어진 혹은 어긋나 있는 시간 감각이야말로 시간의 필연적인 흐름에 따라 매초마다 더 많이 진행 될 수밖에 없는 망각의 움직임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새로운 세대와 그들의 사회에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 끝에 ‘급진적 이성’으로 다스리는 ‘이성의 언어’를 제시했다(전계서).

넘어 문학,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관광학 분야에 있어서도 죽음과 기억⁵⁾에 대한 연구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처음부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기원과 관련하여 과거 삼국시대의 행궁⁶⁾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화성행궁의 경우 정조가 세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묘소참배를 위한 행궁이 건립되었다. 정조가 승하한 뒤 1801년(순조 1)에는 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영구히 모시기 위해 행궁 옆에 화령전(華寧殿)을 지었다. 화령전은 지방에 영전이 세워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조 이후의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은 현릉원을 전배하고 화령전을 찾아 행궁에 머무르게 되었다(길지혜: 2005 : 재인용).

2. 해외 연구

해외에서의 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개념과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Rojek(1993)은 블랙 스포츠 투어리즘 (black sport tourism)이라고 불렀으며, Seaton(1996)은 죽음과 연관된 관광자의 활동을 타나투어리즘 (Thanatourism)⁷⁾이라고 명명하였다. 반면에 Blom(2000)은 병리적(morbid) 관광(tourism)이라는 의미의 모비드 투어리즘 (morbid tourism)⁸⁾을 제시하였다. Ashworth & Hartmann(2005)는 극악무도한 관광(atrocity

5) 기억담론은 종래의 역사가 자민족중심주의, 엘리트주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공연한 믿음을 부추겨왔던 점을 문제 삼으며 등장했다. 그것은 과거가 본래 확고한 형상을 갖기보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과거가 더 이상 편향적이고 분산적이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과거들 나름의 권리가 인정받게 된다. 기억이란 개념은 그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래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정신적(심리적)현상을 일컫는다(전진성, 2005).

6) 궁궐은 그 자체의 성격 및 용도 등에 따라 법궁(法宮) 또는 정궁(正宮), 이궁(離宮), 별궁(別宮), 행궁(行宮) 등으로 구분된다. 행궁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이궁(離宮)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늘어났다(허중민, 2008).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면 왕의 거동 목적에 따라 많은 행궁들이 건립되었다. 행궁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 온천지나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휴양하기 위한 목적, 지방의 각 능원에 참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1789년 생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지금의 수원 남쪽의 화산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하게 되었다(길지혜, 2005).

7) 다크 투어리즘을 thanatopsis의 여행 차원으로 보고 있다. thanatopsis의 우리말은 죽음에 대한 고찰이다. 때문에 死去觀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 morbid의 우리말은 죽음에 대한 병적인 흥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tourism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크 투어리즘은 노예관광(slavery tourism)¹⁰⁾,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¹¹⁾으로 불려왔다.

관광객들은 오랫동안 어떻게든 죽음, 재해 그리고 고통과 연관 있는 장소들이나 이벤트들에 매혹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R.sharply, 2009). 이렇게 죽음과 연관 있는 관광(death-related tourism)의 초기 형태로는 로마시대 검투사들의 경기, 순례여행, 그리고 중세시대 공개처형에 참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Boorstin(1964)은 1938년에 있었던 영국 최초의 가이드 투어가 두 명의 살인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보기 위해 행해진 기차여행이었다고 주장한다. 19세기에 주목할 만한 타나투리즘의 예로는 1816년 이래 워털루 전장터 방문들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전투가 배경이었던 곳은 죽음과 고통 그리고 관광이 수세기를 거쳐 관련되어 왔음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Seaton, 1999; Smith 1998; Knox 2006). 19세기에는 시체안치실을 방문하는 일들이 파리 시내 관광의 정기적인 특성이었다는 언급도 있다(Mac Cannell, 1989).

다크 투어리즘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던 과정을 시대 순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행태의 측면에서의 연구는 Boorstin(1964)이 죽음과 관련된 관광행태를 연구, Seaton, A. V(1996)는 여행에 있어서 타나토픽(thanatopic) 요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Bryant, C., & Shoemaker, D(1997)은 사망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자원화에 관한 가능성을 연구, Palmer(1999)는 죽음이나 재난과 같은 위험의 소비상품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Seaton, A. V(1999)와 Stone, P. R(2006)은 다크 투어리즘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R. sharply & P. stone(2009)의 경우 브리스틀 지역을 대상으로 다크 투어리즘의 이론과 실재를 증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크 투어리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에 관한 연구자

9)극악무도한 관광(Atrocity Tourism)은 대개 두드러진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기념하는 역사적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여행하는 관광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형태이다. 폴란드에 위치한 나치의 아우슈비츠, 태국에 있는 죽음의 철도, 르완다 대학살 현장 및 몬타나의 리틀 빅 혼 배틀필드들은 이러한 극악무도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기념비의 예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그 곳에 전시된 끔찍한 역사와 이미지들로 잘 알려져 있다. 같은 이유로 오늘날 수많은 불쾌한 인터넷 사이트들과 페이지들은 극악무도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 극악무도 관광은 의도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보는 이가 불쾌함을 발견하는 예술작품을 보는 형태인 것이다.(<http://en.wikifur.com/wiki>).

10) 과거 노예 식민지의 역사를 지닌 유적지를 돌아보는 관광(송재호·김향자, 2009).

11) Grief는 우리말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탄과 슬픔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에 관한 해석을 근거로 다크 투어리즘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해하고 관광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Rojek(1993)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을 중세의 순례여행에서 찾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블랙 스팟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블랙 스팟의 세 개의 다른 예를 들었다. 1955년에 자동차 사고로 미국영화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지점을 매년 순례하는 여행, 엘비스 프레슬리와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벌어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연례적인 촛불시위가 그것이다.

Seaton(1996)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은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나토프시스(thanatopsis)에서 찾았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 죽음을 재현하거나 상징하는 것, 그리고 관이나 묘비처럼 죽음과 관련된 물리적인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전통과 관련된 다크 투어리즘은 타나토프시스(thanatopsis)의 여행 차원(travel dimension)이기 때문에 이를 타나투어리즘이라고도 하였다. 그 결과 타나투어리즘을 특히 죽음, 그렇지만 불의의 죽음만은 아닌 것을 대상으로 실제 혹은 상징적으로 마주하고자하는 바람에 의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한 장소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순례여행은 이 타나투어리즘이 기원이라고 하였다.

Lennon and Foley(2000)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을 20세기로 보고 있다.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들은 뉴스와 영화미디어를 통하여 재현됨으로서 다크 투어리즘을 위한 구경거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Dann & Seaton(2001)은 20세기에 일어난 이벤트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휴머니티에 반하는 폭력, 범죄와 관련된 매력물이나 장소를 무대화 한 것이면 모두 다크 투어리즘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Asworth(2002)는 시대적 제한을 비판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이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곳의 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근대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기계문명이 자연의 위대한 힘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맞지만 인간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기원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만큼이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죽음과 관련된 연구에서 처음부터 사용되지는 않았다. 죽음의 해석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관광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 인류학, 도서관학, 예술과 건축 분야들은 죽음, 죽어가는 모습과 고통,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것들을 묘사하는 연관성은 오랜 기간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죽음과 관광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는 전쟁 및 참극과 관련된 장소들인 광의의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분야에서 연구가 있어왔다. 특히 해석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Tunbridge와 Ashworth(1996)의 불협화음의 유산(dissonant heritage)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장소들의 경영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적 틀을 발전시켰다. 관광의 한 형태로서 다크 투어리즘이 집합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은 최근의 일이다. 다크 투어리즘 현상들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대안적인 명칭들을 적용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Stone, 2010).

다크 투어리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Rojek에 의해서였다. Rojek(1993)이 처음 블랙 스팟(black sp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블랙 스팟은 어느 정도까지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산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블랙 스팟의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초래하는 명소들(fatal attraction)과 어두운 지점들(black spot)이라는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이런 개념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나 그들의 무덤에 대한 상업적인 개발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Seaton(1996)은 타나투어리즘(thanatourism)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는 여행에 있어 타나토픽(thanatopic)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어떻게 다크 투어리즘이 하나의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다크 투어리즘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 타나토픽(thanatopic)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낭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정되고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Lennon and Foley(1996a; 1996b)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다크 투어리즘은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특별호에 소개되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혹은 불시에 이루어졌든 아니었든 간에 죽어가는 광경과 슬픔을 전시하거나

혹은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Blom(2000)은 모비드 투어리즘(morbid tourism)을 제기하였다. 그는 모비드 투어리즘을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단시간에 유인하는 갑작스런 죽음에 중점을 둔 관광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이고 병리적 현상과 연관된 명소로 정의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스코필드(1996)는 개인들이 미디어, 특히 뉴스 미디어에 의해 감정적으로 감독받는(emotionally invigilated)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으스스한 것들의 실제적이고 유사한 묘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죽음은 현대적인 소비를 위한 공산품이 되고 말았으며, 개개인들은 으스스하거나 재해가 있었던 장소들의 유효성을 단순히 확인하려는 바람인지는 모르나 그 것들은 애초에 미디어 습격들을 통해 방영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포스트모던 미디어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Schwartz(1998)는 섬뜩한 판타지와 비극적인 현실이 서로 엮여 있는(Nuryanti, 1996) 다크 투어리즘의 경우에 역사는 개개인의 체험과는 점점 단절된다고 하였다. 이미지들에 의해 점령당한 현재는 집중을 방해하며 재미를 주려는 그 이미지들의 역량만을 위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Lennon and Foley(2000)는 그들이 초기에 사용했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주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상품화된 죽음과 재해 장소의 전시는 방문자에 의한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다크 투어리즘을 폭넓게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의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암시라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죽음에 관한 관심과 죽음이 연관된 사건들의 해석은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보도하고, 무한정 반복하기 위한 전 세계 미디어 통신 기술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대의 관광이 관광 경험들과 일상의 경험들 사이에 경계가 흐릿함(blurring)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미디어는 죽음을 우리의 거실로 가져오게 되었다(Lennon &Foley, 2000; 스코필드, 1996). 대다수의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은 내재된 질서 속에서 합리성 및 포스트모더니티¹²⁾의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량 살상과 파괴

12) 포스트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으며 탈 현대주의 현재성을 이탈하거나 비판적으로 뛰어넘고 극복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논리성의 상실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상황을 일컫는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티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구

를 위한 계획은 근대적 산업발전과 함께 했다. 그 증거물로서 홀로코스트는 세계 곳곳에 관련된 장소들 및 전시물에 의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합리성과 포스트 모더니티를 시험하고 그 결과 의구심과 염려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대중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¹³⁾ 이라는 점이다.

Blom(2000)은 대다수의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정치적 메시지들과 관광상품으로서 이들의 상업화 사이에는 경계가 점차 왜곡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관광객 혹은 포스트관광자(post-tourists)¹⁴⁾는 상품화된 세계를 점차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가치(authentic value)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Feifer, 1985).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Lennon and Foley(2000)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미디어의 역할이 죽음과 관련한 장소나 명소들로의 관광이 증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지리적 특수성과 불의의 죽음이 증가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됨과 동시에 전승되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Stone(2008; 2009)도 포스트모던적인 구경거리(postmodern spectacle)는 대중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대의 시청각 미디어에 의존하고 재구성을 반복했다고 언급하였다.

소비유형과 관련된 연구에서 Sharpley(2005)는 Holt(1995)의 소비행위 유형(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에 근거하여 다크 투어리즘 소비 유형을 발전 시켰다. 그는 소비관련 경험(dark tourism as experience), 놀이(dark tourism as play), 통합(dark tourism as integration), 분류(dark tourism as classification) 4개의 상징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 단계에 따라 다크 투어리즘

분되는 용어로 사용되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문화의 접변 현상만을 가르킨다(위키백과). 포스트모더니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성 대신에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고 우주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대신에 개인의 경험과 민족과 문화집단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통일된 가치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태도, 통합보다는 분산, 균형보다는 불균형, 한 가지 유일한 입장과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동질성 보다는 이질성 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객관적 혹은 초월적인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주관적 감각과 정서, 경험보다는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홍원표, 1995).

13) 삽화 또는 도해라고도 하며, 특히 서적, 잡지, 신문, 광고 등에서 문장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하는 그림을 말한다(위키백과).

14)포스트 관광객(post-tourists)은 아이러니하게도 관광 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진짜가 아니고 상업적이며 가장된 체험들을 드러내놓고 수용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한다. 포스트 모던 관광객 개념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소비자의 행태 및 선호도에 대응하며 발전해 왔다(M. Smith, N. Macleod & M. H. Robertson, 2010).

소비정도를 분석하였다. 경험으로서의 다크 투어리즘은 관광자의 사회관(social world)과 관련된 것으로 다크 투어리즘은 관광객들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에 경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소비된다고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서 샤플리는 태국의 콰이 다리(Kwai Bridge),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장소, 홀로코스트 장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예들은 그 종류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 매우 기본적인 죽음의 의미에 매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놀이로서의 다크 투어리즘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나 경험들을 공유하고 함께 소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비록 다른 개인이나 그룹의 죽음이 최초 동기를 유발하지만 집합적인 축하, 추모 혹은 애도가 주요 요인들이 되므로 샤플리는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장례식 같은 일회성 이벤트, 엘비스 프레슬리 사후 기일에 진행되는 추모식과 같은 행사로의 여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통합으로서의 다크 투어리즘은 관광소비자들이 위험 발생지역에서 일어난 죽음이나 재난과 같은 소비의 대상을 그들 자신과 일체화시키는 소비 유형이다. 그 예로서 베트남 호치민 시 근교의 구찌(Cu Chi)터널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처럼 기어 다니고 가까운 사격훈련장에서 에이케이 47 소총을 사격하는 것이 가능하여 잠시 군인이 되어 보는 것 같은 소비가 가능한 곳이다(Henderson, 2000).

마지막으로 분류로서의 다크 투어리즘은 여행이나 여정의 형태가 방문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배낭여행 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엘살바도르, 인도 바라나 시의 화장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죽음에 매료되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가지게 될 잠재적인 사회적 지위에 더욱 많은 동기가 부여 된다.

Tony Walter(2009)는 미디어는 단순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개인 및 공동체 의식 온전히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의 매개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다크 투어리스트(dark tourists)가 무엇을 볼 것인지, 다시 말해 병리적 관광자 시선(morbid tourist gaze)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알려줄 뿐 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사유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Sharpley(2009)는 다크 투어리즘 소비 형태는 거의 무한하게 존재한다고 제기했다. 시튼(Seaton,1996)은 강력한 동기의 연속체(a continuum of intensity)를 적용하여

소비의 범위는 관광객마다 다르다. 어떤 관광객은 다른 사람의 비극을 방문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여행의 궁극적 목적인 반면, 어떤 관광객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최소한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동일한 다크 투어리즘 장소에 대해서도 관광객들마다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객들의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서로 다른 어둠의 자취들(shades of darkness)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유형에 근거를 둔 분석도 어떤 다크 투어리즘 매력물은 서로 다른 관광객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관심과 매료가 다크 투어리즘 경험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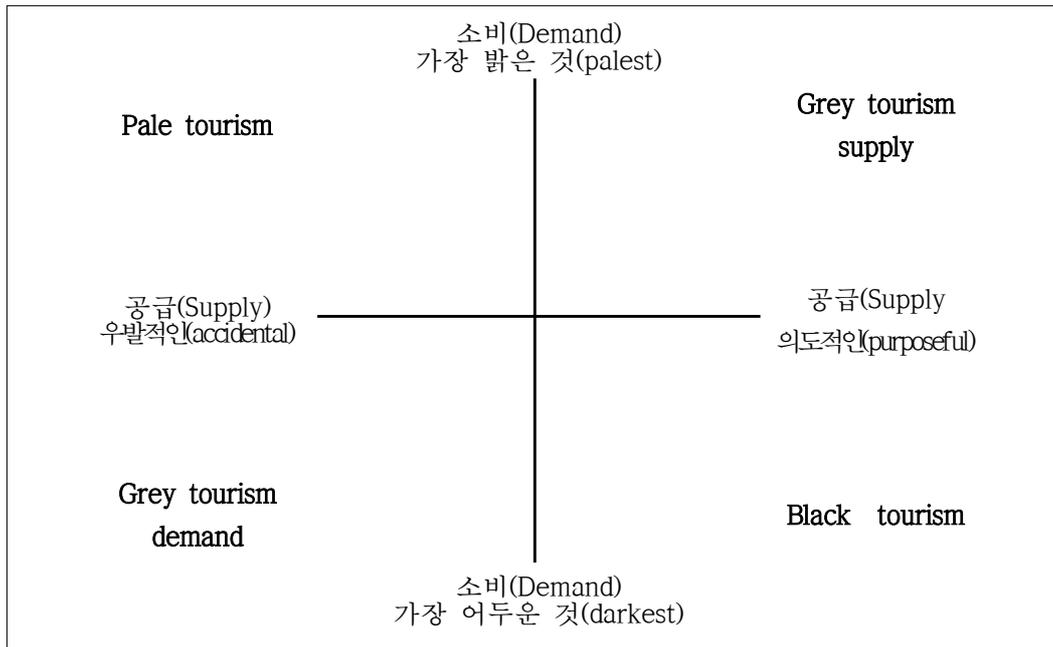
공급측면에서 Sharpley(2005)가 제안한 공급의도의 연속체 범위는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우연히 관광 매력물이 된 경우인 우발적인 공급(accidental supply)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타나톱시스를 위해 개발한 의도된 공급(purposeful supply)까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그림은 행렬 내에서 다크 투어리즘 매력물이나 경험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죽음에 대한 매료가 지배적인 소비 요인이라는 점과 공급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흥미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점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4개의 다크 투어리즘 자취들(shades)을 알아 낼 수 있다. 2사분면의 밝은 관광(pale tourism)은 죽음에 관한 약간의 관심을 가진 관광객들이 관광 매력물로서 의도되지 않은 곳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가장 약한 형태의 다크 투어리즘이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의 회색관광(grey tourism)은 중간 형태의 다크 투어리즘이다. 이 가운데 3사분면인 회색관광 수요(Grey tourism demand)는 죽음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진 관광객들이 의도되지 않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방문하는 것이다. 즉 수요는 많으나 아직 관광지로 개발이 덜 된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1사분면의 회색관광 공급(Grey tourism supply)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개발된 장소이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지 않은 방문객들의 욕구를 자극시켜 방문동기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인 블랙 관광(black tourism)은 실제로 순수한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이다. 관광객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

광매력물이 의도적으로 충분히 개발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밝은-회색-블랙이라는 자취들내에서 특정한 다크 투어리즘 매력물이나 경험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II - 1] 다크 투어리즘 수요 및 공급 행렬(Matrix of dark tourism demand and supply)

자료 : Sharpley 2005:225

Stone(2006a)은 다크 투어리즘 상품들이 다면적이고(multi-faceted), 디자인 및 목적 측면에서 복잡하고(complex), 실제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크(dark)라는 용어는 다크 투어리즘 공급의 다층면들(multi-layers of dark tourism supply)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문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아래의 같이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을 제안했다. 관광경험의 강도는 목표, 의도, 진정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다크 사이트들을 가장 어두운 - 가장 밝은 곳에 위치하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 이로서 7개의 다크 공급자(dark suppliers) 요인을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영향과 이데올로기 ↑ 죽음과 고통의 장소 (sites of death and suffering) ↑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영향과 이데올로기 ↑ 죽음 및 고통과 연관된 장소 (sites associated with death and suffering) ↑				
	↔ 관광 경험의 강도(intensity of tourism experience) ↔					
	Darkest	Darker	Dark	Light	Lighter	Lightest
기준(criterion)	더 어두운(darker)			더 밝은(lighter)		
목표(goal)	교육(education)			오락(entertainment)		
의도(purpose)	기념장소(memorial site)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접근법(approach)	추모적(commemorative)			상업적(commercial)		
진정성 (authenticity)	사실적(real)			연출된(staged)		
사건 발생 후 기간 (time-scale from the event)	더 짧은(shorter)			더 긴(longer)		
관광기반 (tourism infrastructure)	더 낮은(lower)			더 높은(higher)		

〈그림 II- 2〉 다크 투어리즘 스펙트럼 (a dark tourism spectrum)

자료 : 스톤(Stone, 2006a)에서 연구자 재구성

Stone이 제시하는 7개의 공급자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상업적 목적의 장소(Dark Fun Factories) : 실제 혹은 가상의 죽음, 상업적 목적의 무시무시한 이벤트들이 있는 오락 중심의 장소들로 스톤(Stone, 2006a)은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공원(Dracula Park)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 나)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전시(Dark Exhibitions) : 죽음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는데 흔히 기념적, 교육적 그리고 반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존 중심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관광 기반시설 도입과 상업성을 포괄한다. 이러

한 장소들은 흔히 죽음이나 잔혹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와는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다) 다크 던전(Dark Dungeon) : 투어와 연극을 통해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옛날 형법이나 법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어둡고 밝은 두 개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영국 노팅햄에 있는 갤러리 오브 저스티스(the Galleries of Justice)는 예전 형무소와 법정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의 가족여행지로 홍보된다. 이 경우 오락과 교육이 핵심 상품(core product)이다.
- 라) 묘지나 무덤(dark resting places) : 주로 묘지나 무덤이 있는 장소들을 말한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공되는 유명한 죽음 투어의 예처럼 묘지나 무덤 지역들은 점차 상업 및 오락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상업적 목적의 장소(dark fun factory) 영역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 마) 다크 슈라인(dark shrines) :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하기 위한 장소이다. 대부분의 다크 슈라인은 관광과는 무관하다. 이런 장소들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는 매체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예로 1997년에 사망한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추모하던 장소인 켄징턴 궁(Kensington Palace) 정문이 언급되고 있다.
- 바) 분쟁지역(Dark conflicts site) : 역사 중심적이고 전쟁과 관련 있는 장소이다. 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배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추념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전문여행사에 의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전장터나 전쟁관련 장소는 점차적으로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 사) 다크 캠프 오브 제노사이드(dark camps of genocide) : 다크 투어리즘 영역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차지하는 장소들은 대량학살, 전쟁관련 잔혹행위, 참사와 관련된다. 이 장소들은 죽음이 발생한 실제의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Birkenau)는 악마의 상징으로 고통 받은 인간들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다.

스톤의 7개 다크 공급자 요인들은 다크 투어리즘 공급에 주는 영향들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투어리즘 공급의 다른 형태들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크 투어리즘 전반

에 대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Sharpley, 2009).

다크 투어리즘 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다크 투어리즘 관련 최근의 연구들은 홀로코스트(Beech, 2000; Miles, 2002; Wight & Lennon, 2007), 전시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Rivera, 2008)과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박물관과 기념비들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 맨하탄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를 해석하는 방법들(Gutman, 2009; Lisle, 2004; Sturken, 2007)을 탐구하고 있다.

방문 동기와 관련한 연구로는 Seaton(1996)이 있다. 그는 타나투어리즘은 하나의 행동현상으로 관광객들의 동기에 의해 정의되고,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한 곳을 방문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동기의 연속선(a continuum of intensity)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행동 측면에 근거하여 타나투어리즘은 다섯 가지 차별화된 여행 동기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오늘날 공개처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죽음이나 범 집행을 보기 위한 여행이다. Rojek(1997)이 제안한 재해 지역에서의 센세이션 투어리즘, 혹은 Dunkley et al. (2007)이 제시한 익스트림 타나투어리즘은 이러한 유형에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둘째, 개인 또는 대중의 죽음이 발생한 장소를 그 사건들이 발발한 이후에 현장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 범주는 수많은 다양한 장소들을 포함하는데 갈리폴리 전장터, 아우슈비츠 죽음의 캠프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학살현장부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죽은 장소와 같이 유명 연예인이 사망한 장소들, 오 제이 심슨이 그의 아내 니콜 심슨을 살해한 캘리포니아의 집 혹은 악명 높은 살해자들의 집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묘지나 위령탑 혹은 교회 지하실 및 전쟁기념비들을 포함하는 기념비와 수용소로의 여행이다. 상기 장소들로의 방문 목적은 그 범위는 탁본이나 묘비명 수집에 대한 관심(Seaton, 2002) 부터 파리 시내에 위치한 페레 라세즈 묘지처럼 유명인이 잠들어 있는 장소로의 순례여행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단절된 장소에서 죽음의 증거들이나 상징적인 전시들을 보기 위한 여행이다. 예를 들어 영국 리즈에 있는 로얄 아머리츠처럼 죽음의 무기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혹은 특정의 이벤트들이나 활동들을 재구성해놓은 명소들이 이 동기에 포함된다. Dann(1998)은 이러한 모비드 박물관들은 선택된 주제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사

적 정확도는 낮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죽음의 재현 혹은 시뮬레이션 여행이다. 이 유형은 원래 하나의 종교적 주제를 다룬 연극이나 축제들의 형태를 띠었다. 지난 세기동안 단체 등에 의해서 유명한 전투의 재현이 대중화 되었다.

Lennon and Foley(2000)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가 발생되지도 않고, 걱정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은 다크 투어리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다크 투어리즘은 뜻밖의 재미나 관광회사의 일정, 그 근처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단순히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적인 방문(non-purposeful visits)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Beech(2000)는 이들과 달리 다크 투어리즘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으며 인식 가능한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그 예가 군대관련 건물들이 오랫동안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크 투어리즘의 공급과 수요 구분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Rojek과 Lennon and Foley는 주로 장소와 전시의 현대적 방법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문자의 경험이 반드시 그 장소와 연관된 죽음이나 관련 사건들의 최근성 (recentness of the death-related events)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방문자의 경험은 전시되고 있는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 (perceived relevancy of the death/disaster event being (re)presented)에 의해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Reader(2003)는 20세기 이후에 발생하는 연대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동기에 대한 관심 부족과 다크 경험(dark experience)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리는 결과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장소와 관련된 연구에서 Rojek(1997)은 국립 또는 시립묘지와 같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nostalgic) 장소와 재난·재해 장소 같은 센세이션(sensation) 장소는 분석적으로 다른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Seaton(1999)은 사형집행장, 로마 격투기장, 비행기 추락장소, 배가 침몰하거나 테러가 일어난 장소 등 과거에 실제 있었던 참사의 장소를 직접 가서 보는 행위, 개인이나 대중이 학살된 장소(아우슈비츠 학살장, 폼페이 유적, 저명인사가 암살된 곳)를 참배하

는 행위, 死者가 생시에 수용되었던 곳 또는 기념관(무덤, 납골소, 전사자 기념비 등)을 참관하는 행위, 특정 주검과 관련된 물질적인 증거 혹은 상징물이 있는 곳(박물관의 유품·고문기구 전시장 등)을 참관하는 행위, 특정주검에 대한 재현행사 참관의 5개로 구분하였다.

Best and Kellner(2001)는 근대 시대의 대담론들과 전략들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에 의해서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은폐된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고 주장하였다.

Miles(2002)은 다크 투어리즘의 실제 공간인 박물관을 연구한 사례에서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관광매력물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즉 다크 투어리즘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연관이 적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이나 기념물이 세워진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므로 다크 투어리즘(Darker Tourism)은 대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Lennon and Foley(2000)는 장소와 관련하여 전투지역관광은 승전과 패전 여부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쟁지역을 여행하는 것. 묘지방문 관광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식민지 역사를 그대로 장소자산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흡인하는 것, 홀로코스트관광은 2차 대전 중 나치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량학살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재난지역관광은 화산이나 지진, 폭우, 태풍 등과 같이 천재(天災) 또는 인재(人災)로 인한 지역을 돌아보는 형태, 고스트관광은 켈트관광이라고 불리기도하며 주로 유럽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귀신관광 프로그램을 일컫는다(류주현, 2008).

Sharpley(2009)에 따르면 Dann(1998)은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와 관련하여 유용한 개요를 제시하였는데 다크 투어리즘을 포스트모던적으로 장난기어린 목록(Seaton & Lennon, 2004)으로 표명하였다고 평가된다.

Dann(1998)에 의해 제시된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a categorisation of dark tourism)는 아래의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의 성격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에 대해 세분화하였다.

〈표 II-1〉 다크 투어리즘의 범주(a categorisation of dark tourism)

다크의 분류 (Division of the dark)	
위험한 장소들 (perilous places)	· 공포의 도시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위험한 행선지들	· 위험한 행선지들
공포의 집들 (houses of horror)	· 죽음의 지하 감옥
죽음, 공포 또는 실제로 발생하거나 그것들이 묘사된 것과 관련 있는 건물들	· 흉악스런 호텔들
사망의 장소들 (fields of fatality)	·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들
죽음, 공포, 명성, 악명을 기념하는 지역/땅	· 홀로코스트의 지옥
	· 유명인들의 묘지
고통 관광(tours of torment)	· 상해와 살인
죽음, 살인, 상해와 관련된 관광매력물이 있는 장소로의 관광·방문	· 현재 악명 높은 자들
죽음의 분위기를 살린 곳(themed thanatos)	· 병리적 박물관
죽음과 고통에 관한 주제를 살린 소장품들/박물관들	· 윤리 기념비들

자료 : 댄(Dann, 1998)에 의해 각색됨, 샤펠리 (Sharpley, 2009: 11)에서 인용

Shapley(2009)는 위의 표에서 Dann(1998)이 제시한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들은 다크 투어리즘 현상의 규모와 범위를 규명하였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크 투어리즘 경험들(dark tourism experiences)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다크 투어리즘 경험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일단의 연구들이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면서 네 개의 다른 장소 유형들이 밝혀졌다. 첫째는 전쟁지역과 죽음의 캠프(Braithwaite & Lee, 2006; Henderson, 2000; Seaton, 1999), 둘째는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은 곳(Blom, 2000; Foley & Lennon, 1996), 셋째는 9·11 세계무역센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엄청난 재해가 있었던 지역, 마지막으로 미국의 알카트라즈(Alcatraz)나 남아프리카의 로벤 섬(Robben Island)처럼 악명 높은 투옥의 장소들(Strange & Kempa, 2003)이다.

다크 투어리즘 매력물들이 있는 각각의 장소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학자들의 연구가 특정한 범주들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들은 좀 더 특정된 주제들(themes)에 목표를 두어 왔다. 예를 들면 전장터 관광(battlefield tourism) (Baldwin & Sharpley, 2009; Ryan, 2007), 감옥 관광 (prison tourism) (Strange & Kempa, 2003; Wilson, 2008), 잔혹행위 유산 관광 (atrocity heritage tourism) (Ashworth & Hartmann, 2005), 노예 관광 (slavery tourism) (Dann & Seaton, 2001), 그리고 집단학살 관광(genocide tourism) (Beech, 2009)과 같은 연구들이다.

영국 랭커셔대학이 운영하는 다크 투어리즘 포럼(The Institute for Dark Tourism Research : The Dark Tourism Symposium, 2012)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다크 투어리즘 장소를 다음과 같이 7개로 제시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의 장소,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전시, 감옥이나 법정과 같이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 묘지나 무덤지역 활용,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소, 전쟁지역 상품화, 대량학살이다 (<http://dark-tourism.org>).

이외에도 다크 투어리즘 사례를 연구한 Wight와 Lennon(2007)의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다크 헤리티지 사이트들(dark heritage sites) 내에서의 선택적인 해석들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 도덕성 복잡도(moral complexities)를 제안하면서 중요한 시대정신은 한 국가의 과거에 관한 집합적인 기념행사에서 도전받지도 해석되지도 않은 채 남아있다고 확신하였다. Muzaini, Teo와 Yeoh(2007)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관광지인 실로소 요새에서의 역사적 정확성과 해석을 평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다크 투어리즘이 역사적 엄격함 대신 보이는 것과 실험적인 것에 특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호주의 유명한 역사 관광지 내 위치한 민감한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을 공간화 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중요한 역할에 관한 연구(Frew, 2011), 인체의 신비전(Body Worlds Exhibitions)을 사례로 하여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죽음의 의미 구성에 관한 연구(Stone, 2011), 다크 투어리즘의 한 형태로 교회 방화, 자살, 살인 등 폭력적인 특성들이 뮤지컬이나 연극 작품으로 공연되는 예술 형식인 블랙 메탈(Black Metal)(Podoshen, 2012) 음악의 팬들인 블랙패커(blackpackers)들이 이러한 음악 공연을 소비하는 동기에 관한 연구(Podoshen, 2012) 및 이스라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박물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기억에 남을만한 방문자 체험을 조정하는 주

제화(theming)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Oren & Shani, 2013) 등 해외 연구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연구경향은 크게 네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기에 관한 연구이다. Seaton 등의 연구로, 다크 투어리스트(dark tourists)나 타나투어리스트(tjanatourists)의 존재를 예로 들면서 행동 현상으로서 다크 투어리즘이 나 타나투어리즘을 탐구한 것이다. 여기서 타나투어리즘은 관광 소비(수요)의 한 형태로 관광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크 투어리즘 장소에 관한 연구다. 관광소비 대상들로서의 장소들, 즉 다크 사이트(dark sites) 또는 명소(attractions)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장소들의 정의, 해석 및 경영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 연구되었다.

셋째, 수요와 공급측면에 관한 연구이다. Miles(2002)의 주장처럼 수많은 형태와 다양한 측면으로 인해 다크 투어리즘은 확실히 수요와 공급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다크 투어리즘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시도들은 많지가 않았다.

넷째, 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현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다크 투어리즘 사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물이 해당한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의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도입기, 탐색기, 정착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기준은 다크 투어리즘 용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용어의 정립 과정이 곧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과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도입기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블랙스팟이나 타나투어리즘과 같이 연구자들 개인들에 의해 명명된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 블랙 스팟이라는 용어는 1993년에 등장한다. 상업적으로 개발된 갑작스럽게 불의의 죽음을 당한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나 장소를 방문하는 행태를 말한다.

탐색기는 1999년까지 모비드 투어리즘, 타나 투어리즘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다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시기이다.

정착기는 2000년 이후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내리게 되면서 지금도 다크 투어리즘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있으나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표 II-2〉 해외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년도	연구자(연구방법)		연구 성격
	정성적	정량적	
도입기	1993	Rojek	블랙스팟 투어리즘
	1996	Seaton, A. V	타나투어리즘
탐색기	1996a, 1996b	Lennon and Foley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1997	Bryant, C., & Shoemaker, D	사망의 관광자원화
	1998, 2000	Blom, Dann	모비드 투어리즘
	1999	Palmer	위험의 소비상품화
	1999	Seaton, A. V	죽음과 관련된 관광행태
정착기	2000	Lennon and Foley	다크 투어리즘 폭넓은 정의
	2002	Miles	다크 투어리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2005	Sharpley	다크 투어리즘, 수요와 공급형태
	2006	Stone, P. R	다크투어리즘 서사구조 분석
	2007	Wight and Lenno	다크 헤리티지 사이트, 도덕성 복잡도
	2007	Muzaini, Teo & Yeoh	역사적 정확성과 해석
	2008, 2009	Stone & Sharpley, Stone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변수
	2010	Stone,	다크 투어리즘 용어 및 개념
	2011	Frew	헤리티지 사이트 내 다크투어리즘 해석
		Stone	다크 투어리즘과 죽음의 의미 구성
2012	Oren & Shani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테마가 있는 관광 환경(Themed tourism environments)	
2013	Podoshen	다크투어리즘 소비 동기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이상으로 해외의 연구를 살펴봤으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유형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이론연구를 기반으로 유형화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방문행태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 다

크 투어리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 연구 가운데서 유형화와 연관성이 깊은 유사한 연구를 선택하여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과정에서 파악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Seaton(1999)의 5개 방문행위로 구분한 연구, Lennon and Foley(2000)가 장소와 관련된 방문행위로 구분한 연구, Dann(1998)이 장소와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사례는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준거 도출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들 3명은 연구의 범위를 동거나 수요처럼 특정 분야에 한정 짓지 않고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방문행위나 장소 등을 바탕으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준거인 속성과 요인을 추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국내 연구

국내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00년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순화해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선정하여 제안어를 순화어로 결정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하였다. 2008년도에는 다크 투어리즘을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역사교훈여행을 선정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해외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연구는 이미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면서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한국전쟁관련 각종 전적지나 비무장지대, 서대문형무소 등 역사의 현장으로서 체험과 교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 동향과 성격을 사적 흐름에 따라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2006년 제주민예총 정책심포지엄에서 정근식 교수가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를 발표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는 다크 투어리즘은 보다 넓게는 일종의 문화유산산업 또는 역사유산산업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유산

산업은 기억의 보존을 근거로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고 밝혔다.

장윤식(2007)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관광 진단-위기에서 도약으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수의 난과 일본군 유적지, 4·3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문화관광을 토대로 한국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까지 모색'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후 관련된 논문과 글이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계의 관심이 발생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현혜경(2008)은 '제주4·3의 기억과 다크 투어리즘:사회문화운동으로의 전망'에서 4·3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산출되었던 논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크 투어리즘을 하나의 사회문화운동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1989년부터 시작된 4·3유적지 순례와 참배는 그 맹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인 중심으로 끝날 수 있는 4·3진상규명운동을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4·3의 원초적 유산에만 주목하여 죽음 혹은 기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4·3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소급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4·3의 유산은 진상규명운동을 포함하여 현재의 산물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의 문제는 소비적 성향의 기존 다크 투어리즘과는 달리 자기반성과 교훈이 뒤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다크 투어리즘은 4·3의 기억을 윤리적·사회적·문화적으로 녹여내는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의 의미는 다크 투어리즘도 역사기억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운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현재의 산물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으나, 현재의 산물을 규정하는 범위가 대중(소비자)적 관점이 아니라 진실회복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 가운데 교훈적, 반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숙영·조광익(2010)이 제시했던 가장 순수한 형태의 다크 투어리즘인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다크 투어리즘은 문화유산관광의 범주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관광행위와 연계시키는 단계로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류주현 외(2008)는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정적 장소자산을 상품화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전에는 동일한 전쟁지역을 장소상품화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의 장소 보다는 긍정적 이미지의 장소를 위주로 하는 개발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의 개발 필요성과 국내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적용 가능한 장소자산으로 한국전쟁의 흔적과 일제식민지 흔적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들 자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성이 반영된 장소자산이 있어야 하며, 장소자산의 개발에 있어 일방적인 하향식 개발은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의 흐름이 원활한 쌍방향식 개발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정적 이미지도 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보다 다양하고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의 의미는 부정적 장소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소개에 치우치고 있다. 현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가능한 자원의 범위는 자연유산이나 긍정적인 이미지의 장소 자산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관광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쟁 구도 속에 놓여있다. 차별화된 지역의 관광상품 개발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지역의 정체성이 관광상품 차별화를 이끌어 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흔히 정체성이라고 하면 남과 다른 나만의 고유한 속성을 말한다. 남과 다름의 속성에는 긍정적인 자산도 있지만 부정적인 자산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자산도 훌륭한 자원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힌 것은 성과로 볼수 있다.

송재호·김향자(2009)는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국내·외 민중공원 사례를 통한 접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지로서 또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현된 민중들이 숭한 질곡의 역사를 어둠의 관광지로서 민중공원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민중공원은 역사기념공간, 계몽공간, 문화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한 국가 및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역사 체험의 장을 제공해주는 복합여가 공간으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민중공원 조성 준칙으로 가해자와 희생자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기억의 해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진실왜곡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진실의 기록에 충

실해야 하며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 진행형 사업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역사 현장이 공원의 중심으로 채워지는 공간의 역사성을 확보해야 하고, 콘텐츠 중심의 공간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집단적 참여조형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전략이 이념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역사는 승리자 중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현실과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행위에 더욱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민중의 관점에서 다크 투어리즘 대상지로서 민중공원의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하지만 정호기(2002)가 지적했듯이 기념공간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다. 국내의 존재하는 역사기념시설은 권위주의적 재현공간을 통해서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계승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의 관점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관광행위가 교육적 또는 반성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설계의 제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최영환·이혁진(2010)은 '다크 투어리즘을 이용한 역사교훈 관광지의 이해'를 통해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의 다크 투어리즘 적용 사례를 준거로 국내의 다크 투어리즘 자원에 적용시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사교훈 관광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첫째, 다크 투어리즘 성격을 지닌 역사교훈 관광지에 대한 문화적 홍보와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역사교훈관광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역사교훈 관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관련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연구의 Lennon & Foley가 제시한 유형구분을 소개하고, 해외 다크 투어리즘 사례 지역을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 적용에 있어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사교훈 관광지를 독립운동, 6.25전쟁, 호국묘지 및 공원, 재난발생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홀로코스트나 묘지 등에 대응하는 국내자원에 대한 분류와 누락된 원인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연구 성격보다는 사례소개를 위한 사건별 구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

자원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연구 의미가 있다.

한숙영·조광익(2010)은 ‘현대사회에서의 위험과 관광:다크 투어리즘의 경우’ 연구를 통해서 위험과 관련된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극도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모험 관광(adventure tourism)이나 야생의 위험함을 즐기는 야생관광(wildlife tourism), 그리고 인공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는 다크 투어리즘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관광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광현상 즉 다크 투어리즘의 등장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유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위험사회에서 관광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위험사회에서 관광의 변화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위험사회에서 관광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인간이 삶이 기반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통해 자연관광이 재조명되고, 다른 하나는 관광에 있어 위험이 상품화된다고 밝혔다. 가령 위험의 장소가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후기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산물이자, 인간의 죽음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의 부상이 그 사례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다크 투어리즘은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으로 이는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잘 개발된 다크 투어리즘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발달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더욱 더 관광 상품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위험사회에서의 관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위험사회에서의 다크 투어리즘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연구이다. 외국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제시와 함께 관광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고찰 했다. 문명(미디어)의 발달과 관광의 변화, 다크 투어리즘과 타나투어리즘 등 기원에 관한 논쟁이 개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주장했다. 다크 투어리즘의 연구 영역을 사회학적 관점, 주제의 측면에서 위험사회로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크다.

노정연·조우제(2011)의 ‘대구·경북지역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AHP분석을 통해서 선택속성들을 쌍대비교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효과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 관련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을 크게 시설, 주변환경, 서비스, 문화성으로 대분류

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서비스, 문화성을 다시 세부적인 요인으로 소분류하여 가중치와 지수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대분류 가운데서 문화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문화성에 맞추어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크 투어리즘 장소를 개발하는 것도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주변환경 요인에서는 주변관광과 편리한 교통 및 위치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합 가중치 1순위가 안정성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의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크 투어리즘을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성, 인지도, 안정성이 속성들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성이 중요한 요소로 검출된 원인으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의 발생 시점과 기억의 전송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거리는 방문객들의 인식 차이를 유발시킨다. 다크 투어리즘 자원의 활용은 사건의 단순 재구성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형상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김현철 외(2011)는 '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말 호남 의병사(義兵史)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선조들의 시대정신과 민족애에 대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다크 투어리즘의 한국형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지역역사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방안으로 스토리발굴을 통한 스토리텔링화를 거쳐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참여기회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전송·보존 및 2·3차 콘텐츠 상품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자적인 문화관광자원화 보다는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자원을 테마별, 유형별, 시기별 등 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내방객과 지역주민,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지역역사자원의 활용은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원초적인 가치가 내재하고 있고, 그렇다고 모든 자원이 산업화 단계로 곧바로 이행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산업화 이전에 자원의 분포와 특징 등 속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자원의 특성과 추진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범용(2011)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에 대해 부여한 개인적 의미에 따른 방문동기 및 편익 차이에 관한 연구 : 거제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방문동기와 추구 편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장소방문을 통해서 획득하는 편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소비대상이 되어버린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장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동기와 편익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의 의미는 국내에서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있었지만 관광객이 획득한 편익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다크 투어리즘 장소 방문객들이 다양한 편익을 얻고 있음이 조사되고 있다(Swarbrooke & Horner, 1999). 편익은 장소와 유형(수요와 공급의 측면), 동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장소·시설의 속성과 참가자 특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구했으며, 단순한 공급자-수용자 측면을 벗어나서 통합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봉구·안범용(2011)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속성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속성의 실행정도가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전반적 만족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 속성의 실행정도가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대칭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속성이 지닌 영향력은 관광객들의 특정 속성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칭적 방법을 단순히 적용하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관광객 만족 제고 방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수요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크 투어리즘 관련 연구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방문객의 동기에 관심을 둔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방문객들이 얻은 편익에 관한 연구이다. 이전 선행연구는 방문객들을 관련 목적지로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주된 이유를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대상으로 TFTTS(Three-Factor Theory of Tourist Satisfaction) 방법을 적용한 연구결과, 속성 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가 지닌 의미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만족의 하위차원인 의존 이론의 대칭성 논리를 단순하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관광지 속성 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상이한 역할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전반적인 만족 제고에 유용한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는 준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옥·최병길(2011)은 '다크 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와 특성 :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방문동기에 대한 방문객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방문객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방문객의 개인 성향과 방문 형태,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방문동기 조사결과는 역사인식, 일상탈출, 친목도모, 4·3연결, 장소매력 등 5개로 도출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역사가치 추구집단'에서는 현장체험과 기념하기 위한 방문동기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집단으로서 뚜렷한 방문동기를 갖고 방문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즉 공원의 조성배경이나 목적을 중요시하는 교육적인 동기가 강한 집단으로는 지역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목적 추구집단'은 호기심, 새로운 대상에 대한 경험, 가족이나 주변과의 친목, 그리고 관광 위락적인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집단의 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동기의 군집화를 통하여 방문자 동기의 유형을 추출하였다는 점, 향후 군집별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유의미성이 높다. 하지만 군집화를 시도했을 경우 전체 방문객의 군집별 분포도가 제시되어야 연구 결과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소한 공원 입장 방문객의 방문형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체관광도 학생과 일반인, 연령층에 따라서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Smith & Croy(2005)가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장소가 지닌 속성 보다는 방문객들이 해당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가 방문동기 유형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동일한 단체 방문객이라도 개인별 추구목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장혜원 외(2011)는 '다크 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동기 : 제주4·3평화공원 방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비교하고, 다크 투어리즘의 주요 동기인 역사와 기억 그리고 교육 등과 같은 요인이 어느 집단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동기가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경우 유대성과 매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교육성과 역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 경우 관광객보다 공원방문에서 다크 투어리즘적인 요소가 덜 고려되고 있으므로, 공원 방문 활성화 방안도 두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의 조성 목적이나 사건의 원인, 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두 집단에 방문동기를 비교하고 집단의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두 집단의 방문동기가 차이가 발생했다면 차별화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방문동기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김석윤·김태일(2012)은 '제주4·3 Dark Tourism 방문객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 4·3평화공원 및 너븐숭이기념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를 통해서 방문객 특성과 인식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적지활용, 기념공간 구성, 콘텐츠 개발 등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소통과 인식의 확장이라는 Dark Tourism의 고유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제주4·3 Dark Tourism의 결과물로서 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며, 결국 역사적 사실의 재현과 함께 일부 소재의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간접적이며 은유적인 재현이나 체험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방문객의 의식을 포착하고 특성에 맞는 방문객 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주4·3유적지의 분포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도출된 방문객 특성을 토대로 차별화 된 방문객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송재호 외(2012)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 형상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 축과 공간 축으로 장소를 재배열하고 스토리텔링을 첨가함으로써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경험적 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과 스토리텔링의 학술적 의미를 조사하였고, 4·3 사건에 대한 서사구조를 파악하여 형상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스토리체험 코스를 제안하였다. 5·18민주공원, 거제도 포로수용소, 서대문형무소, 제주 4·3평화공원 등 가시적으로 형상화된 장소는 다수 존재하지만,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상화 방안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크 투어리즘의 가장 큰 목적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사건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역사기억을 재생하기 위한 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장소를 Miles(2002)의 구분처럼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연관이 적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이나 기념물 방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형상화 관련 프로그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대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말하는 다크 투어리즘까지 포괄한다면 사건의 현장에서 역사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사건을 재해석하거나 콘텐츠를 접목시킨 형상화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향후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희승·왕백설(2012)은 '다크 투어리즘 관광객들의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5·18민주묘지 방문객의 방문동기를 통합관점에서 밝히고자 했다.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5·18국립 민주묘지 관광객들의 관광동기를 파악하고, 역사적 사건의 발생지역인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객들과 타 지역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비교했다. 일반관광객의 동기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유사한 사례연구와 비교했을 때는 관광동기가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밝혔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관광객 방문동기와 다크 투어리즘 장소 방문객 차이를 밝히고 유사 장소의 방문객은 비슷한 동기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향후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시도하는데 있어 공통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아라(2013)는 '다크 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 동일본대지진의 재난관광을 사례로'라는 연구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의미를 포스트 모던 관광의 특징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동일본 대지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에서 진정성은 어떻게 경험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그 포스트모던 관광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풍부한 잠재력을 보여준 재난관광은 그러나 피해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인해 그 다양한 성찰적 가능성은 축소되고 향후 단순한 '방재체험코스'로만 명목이 유지될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다크 투어리즘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소희(2009)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 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조현희(2012)의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5·18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 최지원(2010)의 '지역기반 기념박물관의 현황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이상준(2011)의 '인권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 광주교도소 이전적지를 중심으로', 박노령(2013)의 '전쟁기념관과 기억의 재현 :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중심으로', 김하나(2014)의 '다크 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주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II-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년도	연구자(연구 방법)		연구 성격
	정성적	정량적	
도입기	2002	정호기	역사기억, 공간적 재현
	2008	현혜경	사회문화운동, 제주4·3
		류주현외	개념소개, 부정적 장소 활용, 활성화 방안
	2009	송재호·김향자	공원 개념화, 조성준칙 제시
	2010	최영환·이혁진	해외 적용 사례, 경쟁력 강화 방안
		한숙영·조광익	위험과 관광, 개념 및 유형 소개
탐색기	2011	노정연·조우제	만족도, 대구경북지역자원
		김현철외	역사자원 활용, 산업화방안, 한말의병
		안범용	방문동기, 편익
	2012	이봉구·안범용	전반적 만족과 속성만족의 비대칭성, 거제도 포토수용소
		장애옥·최병길	방문동기, 방문객 특성, 제주4·3
		장혜원 외	관광객과 지역주민 방문동기 비교, 제주4·3
	2012	김석윤·김태일	방문객 특성, 제주4·3
		송재호외	역사적 사건의 형상화 방안, 제주4·3
	2013	이희승·왕백설	관광동기, 5·18
		조아라	포스트모던 관광, 관광경험의 진정성, 동일본대지진의 재난관광

위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크 투어리즘 관련 된 국내 연구는 총 16편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정성적인 연구가 9편, 정량적인 연구가 7편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시기 구분은 2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1단계 도입기 연구의 특징은 주로 사회학 관련 분야에서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 논문 또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보다는 기념시설관련 연구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언론 등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정성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내용 또한 사회운동 관점이나 사례 소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의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논의가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해외에서의 다크 투어리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내용 또한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인 개념 및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방향에 대한 제시가 많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관광행위는 이미 발생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개념이나 유형분류, 동기 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의 개념을 차용하여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방향과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 탐색기에 이르면 정성적 연구보다는 개별 사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방문객 동기나 방문객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의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시기는 개별 사건과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량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도 해외의 선행연구를 전제로 속성을 구분하거나 방문객의 특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현황에 비추어 보면 연구의 양적 결과는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레논과 폴리의 주장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죽음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국내 관광 패턴이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념시설이 도입된 결과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크 투어리즘 관련 국내 연구는 정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량적 연구 또한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속성, 유형 등을 도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정량적인 연구가 많은 이

유는 다크 투어리즘 개념체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념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문동기 등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아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 구분도 해외에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도 탐색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소결

현대사회에서는 위험도 관광 상품화 되고 있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가 뉴욕의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등장하였고, 영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현금 강탈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이 등장하였다. 중국에서는 사천성 지진 현장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위험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한숙영 외 2010).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시대적 기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크 투어리즘은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후기 근대사회, 즉 위험사회에 나타나는 관광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이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블랙스팟과 타나투어리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블랙스팟이나 타나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도 다크 투어리즘 연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의 연구는 마일즈(Miles, 2002)가 죽음이나 관광매력물들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과 다크 투어리즘(Darker Tourism)으로 구분하였다. 샤펴리(Shapley, 2005)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분류, 놀이, 경험,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위험 발생지역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개발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해외의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개념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의 다크 투어리즘 특성을 밝히는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5〉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연구 성격 규명 및 시기 구분

년도	연구자(연구 방법)		연구 성격
	정성적	정량적	
1993	Rojek		블랙 스팟 투어리즘
1996	Seaton, A. V		타나투어리즘
1996a, 1996b	Lennon and Foley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1997	Bryant, C., & Shoemaker, D		사망의 관광자원화
1998, 2000	Blom, Dann		모비드 투어리즘
1999	Palmer		위험의 소비상품화
	Seaton, A. V		죽음과 관련된 관광행태
2002	정호기		역사지역, 공간적 재현
	Miles		다크 투어리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2005	Sharpley		다크 투어리즘, 수요와 공급행태
2006	Stone, P. R		다크투어리즘 서사구조 분석
2007	Wight and Lenno		다크 헤리티지 사이트, 도덕성 복잡도
	Muzaini, Teo & Yeoh		역사적 정확성과 해석
2008, 2009	Stone & Sharpley, Stone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변수
2008	현혜경		사회문화운동, 제주4·3
	류주현외		개념소개, 부정적 장소 활용, 활성화 방안
2009	송재호·김향자		공원 개념화, 조성준칙 제시
2010	최영환·이혁진		해외 적용 사례, 경쟁력 강화방안
	한숙영·조광익		위험과 관광, 개념 및 유형소개
2010	Stone		다크 투어리즘 용어 및 개념
2011		노정연·조우제	만족도, 대구경북지역자원
		Frew	헤리티지 사이트 내 다크투어리즘 해석
		Stone	다크 투어리즘과 죽음의 의미 구성
		김현철외	역사자원 활용, 산업화방안, 한말의병
		안범용	방문동기, 편익
		이봉구·안범용	전반적 만족과 속성만족의 비대칭성, 거제도포로수용소
		장애옥·최병길	방문동기, 방문객 특성, 제주4·3
2012		장혜원외	관광객과 지역주민 방문동기 비교, 제주4·3
		김석윤·김태일	방문객 특성, 제주4·3
	Oren & Shani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테마가 있는 관광 환경(Themed tourism environments)
	송재호외		역사적 사건의 형상화 방안, 제주4·3
2013		이희승·왕백설	관광동기, 5·18
	조아라		포스트모던 관광, 관광경험의 진정성
	Podoshen		다크투어리즘 소비동기

반면에 국내연구는 정량적인 연구가 많은 편이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도 주로 기념시설이 갖춰진 공간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 연구의 주 관심 분

아는 수요자 측면에 머물러 있다. 해외에서의 연구결과를 국내 자원에 적용하면서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고 부적합한 용어를 차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경험을 단순하게 국내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연구 결과를 국내 모든 다크 투어리즘 자원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어두운 이미지의 장소 자산이지만 자원마다 특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사회의 문화적 관습,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지 않다면 개념이나 방문 목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이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론적 배경, 의미 등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대부분 합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 또한 해외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념화 연구, 수요측면의 연구, 공급자측면의 연구, 방문동기에 관한연구, 장소성에 관한 연구 등이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 연구결과가 종합적으로 고찰되었을 때 국내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순서가 순차적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개념체계를 세워 나가는 연구가 요구된다.

관광학 분야 연구에서 이론에 현상을 접목시킨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에 맞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원의 특성에 맞는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여건에 맞게 역사적 배경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이 반영된 유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2절 다크 투어리즘 유사개념 고찰

1. 순례관광

1) 순례의 개념

앞서 해외의 이론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로젝(Rojek,1993)과 시튼(Seaton,1996)

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을 중세시대의 순례에서 찾고 있다. 본래 순례라는 말은 본래 떠돌아다닌다는 뜻의 라틴어(peregrination)에서 유래했다. 기존의 제도와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유랑활동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리더(I.Reader)는 순례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 순례의 동기는 과거 순례자들의 동기와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또한 새롭게 부각된 이슈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순례는 언제나 개인들에게 무거운 현실이나 의무로부터 탈출을 가능케 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것과 기적을 개인적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여 왔다. 무엇보다 순례는 종교전통이나 신앙심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해결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전의 순례행위가 종교전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보다 자율적이고 개인화된 의미를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우혜란, 2008).

에이드(J. Eade)와 콜맨(S.Coleman)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에서의 집단적 경험은 부차적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전 지구적인 경제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순례는 또한 문화적, 경제적, 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순례를 자발적 이동의 한 형태로 개념화하고 순례야말로 매우 개인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순례는 끊임없는 세상에서 문화적 의미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기에 순례를 동적의례라고 부른다(J. Eade & S. Coleman, 2004: 재인용).

순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의 탄생과 관련되거나 성인들이 생활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경배 드리는 과정이다(권종혁 외, 2007). 순례의 장소는 고대종교의 유적지, 사원, 순교자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적지, 성인의 유품이나 유골이 존재하는 장소,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등이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신성시되는 자연물이나 창시자의 삶과 연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순례가 발생했으나 순교자들의 순교지나 그들의 유해가 묻힌 곳이 순례 장소로 확장되었다(구본식, 2002).

순례는 대부분 종교의 성지를 찾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며 이들 종교에는 성지가 있다. 이 성지가 순례의 대상이 되어왔다. 성지는 신이 사는 곳 그 자체가 외경시되는 산이나 언덕,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와 같이 성물보존 때

문에 신성시되는 곳, 성인이나 영웅의 묘소 등이 있다(이병원, 2009). 이처럼 순례는 어느 종교 어느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현상이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신들의 특별한 힘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의례(儀禮) 행위를 하였다. 신성한 장소가 신들에 의해 선택되었고 특별한 곳으로 인정되었다. 바위나 샘이나 큰 나무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들이었다. 성지순례는 순교자들이 정신과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배워서 오늘의 순교자(증거자)로 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이용규, 2006).

순례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는 일상적인 세계를 통해서 성스러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세속적인 세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공간적인 구조 때문에 순례는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왕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송현동·김경한, 2011).

보통 순례라고 하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불교는 인도의 니르바나, 이슬람교는 메카 등을 성지순례의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각 종교의 성지가 된다. 성지는 종교의 탄생과 연관이 있거나 성인들이 생활했던 곳, 순교의 장소 등이 있다. 성지는 지방이나 나라(land)로, 넓은 지역을 가리켰고, 성소는 장소(place)로서 한 지구, 한정된 지점만을 가리켰다. 천주교에서는 성지는 순교성지와 교회사적지로 구분 된다. 좁은 의미의 순교성지는 피를 흘리고 죽은 순교지와 순교자의 유해가 묻혀 있거나 보존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사적지는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이 태어나 활동했던 곳이나 교우촌을 지칭한다(허남진, 2007).

순례의 기원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유태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및 초막절 등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바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리스도교 시대에 들어오면 신에 대한 흠숭의 의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행위로, 혹은 성인에 대한 존경의 행위로, 혹은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로, 혹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되었다(이병원, 2009).

순례는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지순례의 정신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목적지, 참여방법 등이 바뀌어져왔음을 의미한다. 성지순례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초기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 어

머니 성녀 헬레나가 324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으며, 326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무덤을 발견하고 성묘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성지순례를 활성화시켰다. 6세기 이후 점차 범위가 넓어져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어진 로마로 순례가 성행하게 되었다. 8세기 이후부터는 신자들의 의무라고 할 정도로 관습화 되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미신적인 의미로 오용되는 순례를 비판하였다. 그 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엔 순례의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순례를 보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권종현, 2005).

중세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12사도와 같은 보편적 성인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성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순례는 유럽이 점차 단일한, 혹은 중앙집권화 된 기독교 세계로 바뀌게 되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박용진, 2008). 기독교의 순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그렇듯이 하느님과 예수와 관련된 성스러운 땅, 즉 성지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거나 성인들의 유적지인 성역(聖域)을 방문하는 행위이다. 종교의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순례가 필요했다. 순례를 통해서 성인의 위계질서가 확립되고 순례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성도·초전법륜·열반 등과 관련된 네 곳의 유적지를 4대성지라고 한다. 불교에서 성지순례의 유래는 장야함경 중 『유행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아난에게 전한 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사대성지를 늘 생각하고 그 성지를 순례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은 곧 재가신자에게 내리는 유훈이라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성지순례는 삼사, 삼보사찰, 관음성지, 적멸보궁 등의 순례로 정착되어 행해지고 있다(이재수, 2011). 과거의 순례가 공덕 쌓기가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순례는 새로운 신앙결사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임순록, 2012).

불교에서 성지순례는 본래 비구들이 우안거를 보내고 나서 붓다를 친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우안거 동안 수행한 결과를 붓다에게 여쭙고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엄밀히 말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순례나 숭배 행위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붓다가 입멸한 후 더 이상 그를 친견할 수 없기에, 제자들은 붓다의 주요한 사건이 일어난 4대 장소에서 붓다를 추념하며 순례하게 했다. 이러한 순례행위는 점차 시간이 지남으로써 의례와 결부되고, 여러 종교적인 신비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 같다.

4대 성지 순례를 통하여 불교는 하나의 신앙체계 내지 종교로서의 측면을 굳혀갈 수 있었다(안양규, 2000).

불교의 경우 일반적인 성지순례의 패턴과 함께 순례자체가 求法 行각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나아가 불교는 종파와 사상 및 신앙의 차이에 따라 순례의 대상도 다양하게 설정되었다(조명제, 2008). 순례나 여행은 참가인수에 따라 집단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의 한국인에 의한 국외불교 성지순례는 대부분이 중국이 대상지였고, 드물게 인도 등에까지 발길이 미쳤다. 그것은 중국이 동아시아불교의 종주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교학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이러한 사정은 변화하여 중국대신에 일본을 선호하게 된다. 근세이전에 있어서 승려나 불교신자(주로 승려)들의 불교성지순례의 목적은 크게 求法과 傳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구법을 위해 많은 승려들이 중국을 여행하였고, 그중에는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 서역까지 발길이 닿았다. 특히 신라는 대단히 많은 유학생과 구법승을 중국에 파견하였다(정영식, 2011).

한국불교의 성지순례는 과거의 순례가 공덕쌓기 식이었다면 현재 순례는 신앙결사의 형태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108산사 순례가 있다. 서울 도선사의 108산사 순례 성지 기도회, 부산 흥법사의 걸망을 메고 떠나는 108산사 순례, 울산 영묘사의 108사찰 기도 성지순례 등이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33관음성지순례 사업을 출시, 한일 불교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이재수, 2011).

순례는 현대화된 세계에서 자신을 위해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순례가 개인적 성장, 하나의 대안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이해되면서 순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1, 송현동·김경한). 권종현(2005)은 성지순례의 기능은 네 가지 즉 회개, 기록, 휴가, 성경연구를 수행하는데, 매력속성은 성지순례관광객들이 정화, 구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순례는 구시대의 유물로 일부 신앙심 깊은 종교인들에게 발견되는 주변적 현상이 아니다. 그 반대로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순례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순례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우혜란, 2008).

2) 순례관광

삼국시대부터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의 관광이나 유람은 종교적·민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화랑도는 심신수양을 위한 명소를 순례하였으며, 시인묵객들은 풍류여행으로서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

타문화권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재의미화와 (관광)상품화는 서구에서 많은 여행사들이 참가자들의 종교적 소속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문화권에 위치한 성스러운 장소로의 영적 여행을 조직하고 있다(우혜란, 2008).

불교에서는 '원효의 득도를 위한 당나라行'에서 볼 수 있듯이 구도나 유학을 위한 유람이 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찰 중심으로 연중 개최되는 각종 불교봉축 행사에의 참가 및 참배행렬이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만연했었다. 이는 서국식의 성지순례 여행과 가장 닮은 한국 종교관광의 시초라 할 만하다(정병용, 1997).

현대에 와서는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경건한 순례자는 성스러운 영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속적인 관광객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나, 그들의 방문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방문자들은 낮게는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업적인 리조트에 비교될 만큼의 기대를 만족 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종교관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도 어렵고 순례와 관광을 구분하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설혹 순례자와 관광객이 다르다 해도 양자는 불가분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연속성을 형성한다. 성지순례란 종교관광의 한 형태로 여행사나 종교기관에서 주최하는 여행상품으로써 각 종교별 성지를 중심으로 성지를 직접 방문하고 성전에서의 기도 그리고 예배와 미사 등을 포함하는 여정을 작성하여 이것을 기획, 상품화하여 일반신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성지순례를 말한다(권중현, 2006).

우리나라에서 종교관광이란 용어는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주로 성지순례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2005, 권중현). 기독교의 종교문화재 체험관광과 성지순례관광, 불교계의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아 발견을 위해 떠나는 문화체험관광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현동·김경한, 2011). 최근 종교관광은 교육의 기능과 관광의 교양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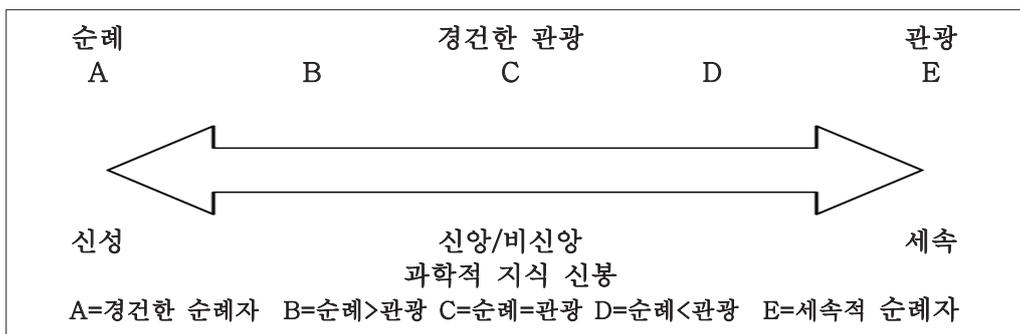
능이 결합된 체험문화관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관광의 동기 가운데 세속적인 속성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면 순례관광은 덜 세속적인 관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성지순례를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례가 매우 성스럽고 종교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반쯤은 종교적이고 반쯤은 세속적인 여행이기도 하다. 오늘날 성지순례는 일반 대중관광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신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유적지 답사의 차원에서 종교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송현동·김경한, 2011).

전통사회에서 종교인들의 성지순례는 관광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과 순례를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김종은(2006)은 성지순례관광은 중세시대에 있어서 문예부흥과 대중관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인 관광행태였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 순교성지들은 종교적인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한 유명 성지에 대한 관심은 경건성보다는 세속적인 측면에 더 기울어져 있다. 방문자들도 종교적 의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그림처럼 관광과 순례가 여행이라는 동일한 연속선상의 서로 다른 양 끝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분류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서 그 개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둘은 명확히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해져 가고 있다(Smith, 1992).



[그림 II-3] 순례와 관광의 연속선

자료 : Smith(1992) : p.4 및 Collins-Kreiner(2002) : p.15.

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A방향은 신성한 영역이고 E방향은 쾌락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B지점은 관광적 측면 보다는 순례적 성격이 강하고, D지점은 관광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운데 C지점은 비록 신앙의식은 아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사찰·교회·성당 혹은 위대한 인물의 묘소·유택 등 자취를 찾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렇다고 경건관광이 꼭 성스러운 관광대상물에 국한되지 않는다(Collins-Kreiner, 2002).

순례관광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크 투어리즘과 순례의 상관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에서는 1956년에 새남터 순교 기념탑이 세워지면서부터 '순교성지'로 불리고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 속출하게 된다. 한국의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서 꽃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순교의 현장을 찾아서 순례관광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안 제암교회, 여수 애양원교회,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 목포 야월교회, 영광 염산교회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순례관광은 신(神)의 발현이나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 때문에 신성시되는 장소를 참배하러 가는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 성지를 찾아가 축제와 예배에 참석하며, 그 장소에 얽힌 종교적인 전승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순례행위는 신앙인이 자신의 종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성지순례는 종교적인 목적이 우선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산티아고 길처럼 일반대중들도 즐겨 찾는 관광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순례와 관광의 영역이 교차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순례관광은 역사현장, 성인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등 순교관련 기념탑 등을 찾아 관광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순례관광의 매력 속성으로 종교유적관람, 성인의 유품관람, 새로운 관광지를 보는 즐거움, 자연과 성지의 조화로움, 은혜와 감동의 체험, 성전을 직접 보는 감동, 기도와 예배, 종교축제 참가(권중현, 2005)를 언급하고 있다. 박용진(2007)은 순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유골을 보고, 가능하다면 그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례관광은 종교관광, 명상관광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용어에 따라서 내용상

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인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거나 순교 등 집단희생 장소 방문행위는 다크 투어리즘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산관광

1) 유산의 개념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공자원, 2011). 유산은 현재 사회가 선택한 역사의 일부분이다. 유산은 유형 물질일 수도 있고 무형물질일 수도 있다. 문화재일 수도 있고 자연 그 자체일 수도 있다(진애니, 2012). 유산은 첫째, 인공적인가, 자연물 그대로인가. 둘째, 유형적인가, 무형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는 과거인가, 현재인가를 기준으로 분류·정의된다. 유산이란 혹 과거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대의 소비자 즉 관광자의 욕구에 맞게 변화한 상품(product) 같은 경험(experience)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한숙영·김사현, 2007).

박은경(2013)은 유산의 개념을 형태의 측면에서 유형인가 무형인가, 인간의 개입여부에 따라서 인공물이나 자연물이나, 그리고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따라서 유산은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대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인지, 현 시점에서 생성된 것인지에 의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산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은 첫째 유산이란 역사 혹은 과거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마케팅의 시각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한 상품이나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산을 가진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해야하고 그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관광객에게 역사·사회·문화 등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철 외, 2011).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원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형이라

는 개념은 지정당시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성, 둘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형성, 셋째 삶의 현장에서의 전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유산에 대한 정의는 과거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더불어 그 속에 살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유산관광에서 의미하는 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으로 보존되어 상품화된 것들을 의미하거나 혹은 상품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숙영, 2005). 유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유형적인지 무형적인지의 형체적 측면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나 아니면 자연물이나 그리고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따라서 유산은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대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인지 현시점에서 생성된 것인지에 의해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박은경, 2013).

유산을 찾아 자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해당 지방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추명희, 2003). 결국 자원화 한다는 것은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엮어나가면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자료의 정리와 해석의 여부는 왜 그 시기에 그런 사건과 행위가 발생되었고 전승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만의 자원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원이 지니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각 시대 지방의 역사는 그 사건이 생겨난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인 유산을 어떤 시각과 방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된 가치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이 경과하면서 뿌리내려진 지방의 정체성은 현대적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능동적 행위에 의해 새롭게 규정 되거나 변모해 나가게 된다. 지방의 전통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과정은 그 지방의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키는 등 그 지방의 유산자원을 구체화시켜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산의 개념을 유·무형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역사로서 현재 사회가 선택한 대상이 재해석되어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유산관광

현대의 관광객들은 관광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생활양식이나 다양한 문화의 속성에 관하여 과거의 정신적 활동의 자산인 문화와 유물·유적 등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관광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지역의 유산은 관광객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체험을 통해 그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식견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寧秀艷, 2012).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역사관광(historic tourism),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이 정확한 이해 없이 남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문화관광의 중요한 분야로서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에 대한 국내학계 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사현·이혜련, 2007).

유산관광과 비슷한 용어으로써 흔히 사용되는 문화관광, 역사관광, 문화유산관광의 개념을 고찰하면 역사관광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적지 등 인문경관을 중시하는 것이고, 유산관광은 인문경관을 포함하는 이외에도 역사를 재창조하고 재현하는 것과 자연경관, 전승예술 등 무형적 유산을 포함한다. 문화관광은 이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창조된 문화의 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관광은 유산관광을 포함할 수 있고, 유산관광은 역사관광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는 유산관광객은 역사관광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역사관광객은 반드시 유산관광객이 될 수 없다. 역사관광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적지 등 인문경관을 중시하는 것이고, 유산관광은 인문경관을 포함하는 이외에도 역사를 재창조하고 재현하는 것과 자연경관, 전승예술 등 무형적 유산을 포함한다(진애니, 2012).

문화유산관광은 과거의 인류가 남긴 역사·문화적 자취, 시대적 특징과 같은 역사문화적 요소인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진 소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즉 문화유산관광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그리고 자연적 경관까지를 포함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박은정 외, 2010). 지역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경관, 지

역의 볼거리, 관광대상, 인물, 이벤트,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관광이다(이주희외, 2002). 문화유산관광은 관광객이 학술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자원을 관광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寧秀艷, 2012). 공급과 수요측면에서는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유물이나 유적, 이를 연계시킨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대상을 인지하는 관람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김희영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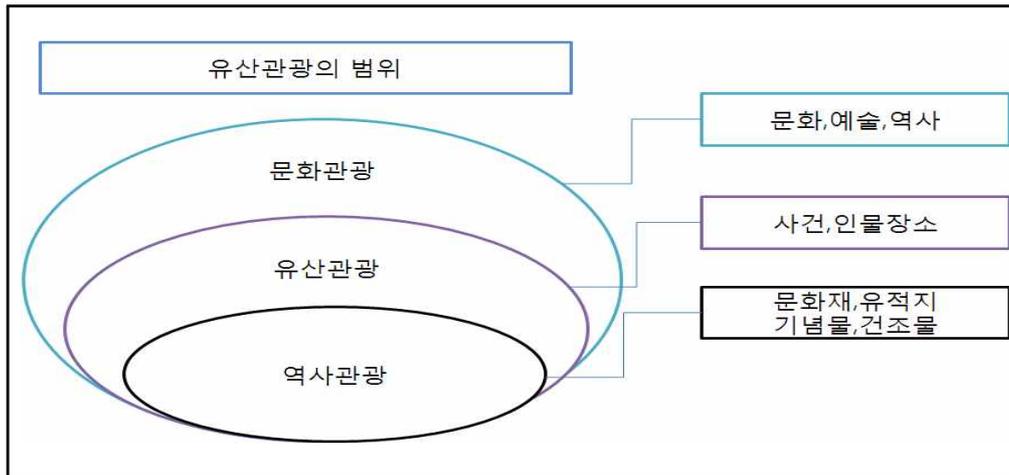
흔히 역사관광으로 혼용하는 유산관광은 현대로부터 과거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여행 행위이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공간을 이탈하는 행위이다(김사현, 2006). 유산관광은 역사적 관광이지 결코 역사관광이 유산관광의 전체라 할 수는 없다(이혜련, 2006). 유산관광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와 그 장소의 콘텐츠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산관광에서는 장소의 콘텐츠, 즉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건축물, 궁, 요새, 유명 인물과 관련된 생가, 역사적 장소, 종교적 장소, 갤러리, 기념비 등이 주요 대상이 되는 자원과 함께 그 주변지역, 이벤트, 음식 등을 포함한다(김현철 외, 2011).

한숙영·김사현(2007)은 유산관광의 개념을 첫째는 역사성에 중점을 두어 유물(유적)이나 이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소비자)의 주관적 지각에 중점을 두어 유산이라고 인지하는 대상을 관람·감상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는 이들 양자, 즉 역사성(공급 측면)과 개인 지각 측면(수요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등이 진정한 유산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산은 시간성과 전형성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승되는 유·무형의 유산과 함께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도시와 건물, 종교유적, 기념물 등이 있다. 이처럼 유산을 활용한 유산관광은 장소와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역사성과 주관적 지각에 중점을 두고 역사에 대한 탐구와 체험을 경험하는 관광행위이다. 유산관광은 역사적 장소, 종교적 장소, 역사문화적인 요소(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를 찾아 관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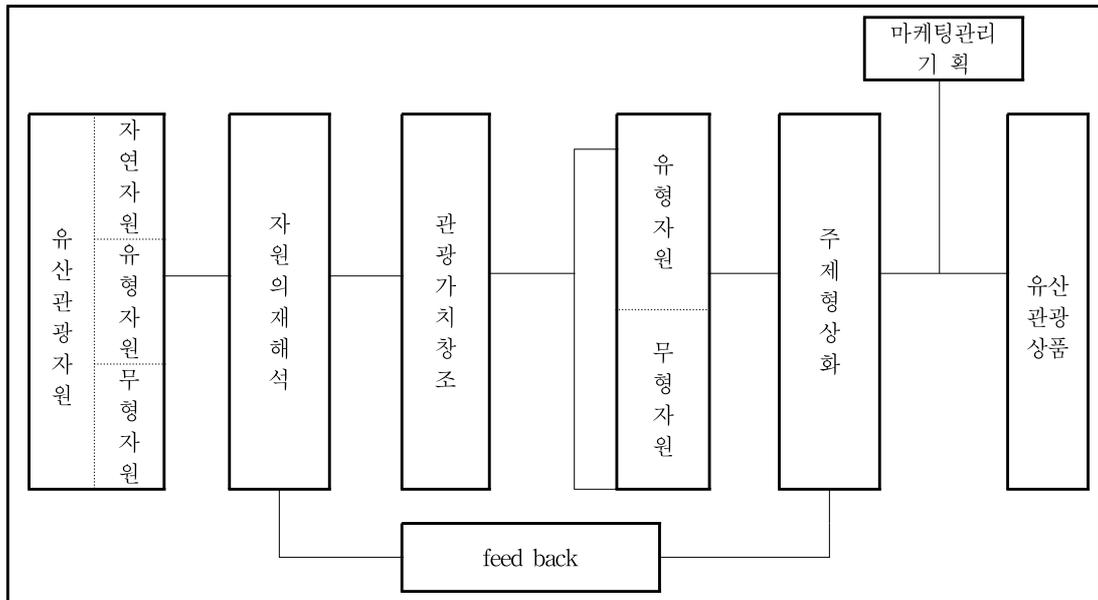
문화관광, 역사관광, 유산관광의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문화관광은 현대 사회에서 창조된 문화의 산물을 포함한다. 유산관광은 인문경관을 포함하는 이외에도 역사를 재창

조하고 재현하는 것과 자연경관, 전승예술 등 무형적 유산을 포함한다. 역사관광은 건축물, 유적지 등 인문경관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은 유산관광을 포함할 수 있고, 유산관광은 역사관광을 포함한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4] 유산관광의 범위

역사기억의 재해석을 통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 역사적 공간,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유산관광은 지방사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성과물을 토대로 지역의 역사문화 소재를 활용하는 관광자원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행사들이 넘쳐나기도 한다. 따라서 올바른 유산자원의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5] 유산자원의 관광 상품화 과정

자료 : 전명숙(2000)의 연구를 참조 연구자 재구성

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산의 관광 상품화 과정은 유·무형의 자원을 관광객의 수요와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해석된 문화유산자원은 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관광상품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에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광가치가 창조된다면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인가에 따라서 주제의 형상화(상품화) 방안이 결정돼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관광 상품은 자원의 재해석과정에 비추어 상품의 구성 요소가 재해석된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난 후에 유산관광상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안보관광

1) 안보관광자원의 개념

안보관광은 평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사개념으로는 접경지역 관광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개념은 국내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이 규정되어 있다.¹⁵⁾ 구서독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지원법을 통과시켜 접경지역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김문기, 2006). 안보관광이 주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사용되는 용어라면 접경지역 관광은 지리적, 법률적 개념의 용어이다.

평화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의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존되는 진정한 발전으로 보고 있다. 적극적 평화관은 보다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이명춘, 2004).

평화관광은 지금까지 관광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산업적,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 민족 미래를 위한 역할과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평화관광은 국내적으로는 효율성, 형평성을 지향하고 지역성, 문화성 및 투명성, 책임성, 비전성, 세계성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박종호·최병창, 2003).

안보는 안전보장의 약칭으로 국민이 합의한 체제와 이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이자 장치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세력으로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인, 대물, 대공간의 엄격한 제한성, 차단성, 비밀성, 강제성을 갖게 된다(장석모, 1996).

안보관광자원이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성격의 자원 가운데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의 성질을 보존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하는 자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심상화 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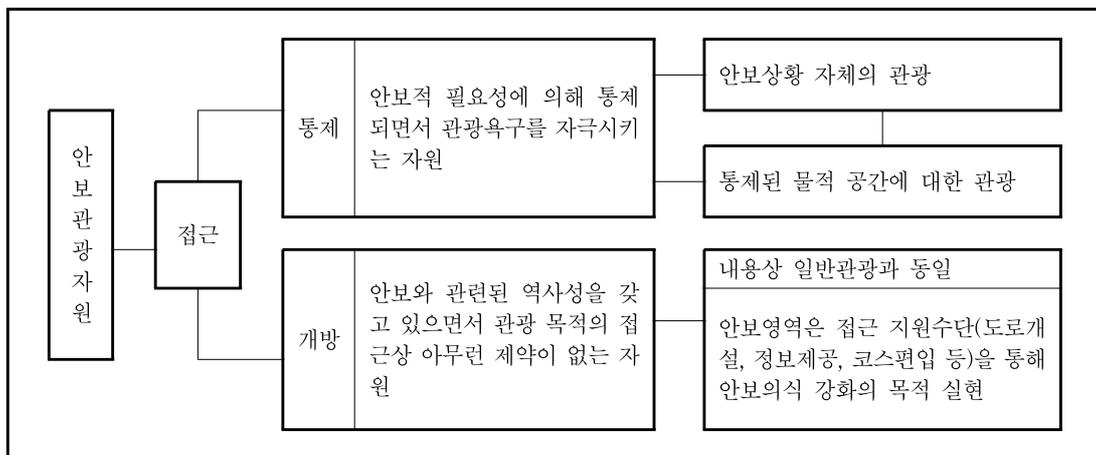
안보와 관광은 상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보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관광은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움을 요구한다. 그러나 안보와 관광은 자기 영역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써 상대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결국 안보관광자원이란 안보 영역의 목적인 안보 의식을 강화시키고 관광 영역의 목적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 영역 내의 유형, 무형의 제반 자원으로서 관광객

15) 사전적 의미의 '접경'이라 함은 경계가 서로 접함, 또는 두지역이 서로 접한 경계를 말한다. 이러한 접경 지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둘째,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 셋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 통제지역이다(김문기, 200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분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사시설보호법).

에게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정신 결속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통제되는 상황하의 특수 자원에 대한 탐방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형탁, 1997).

안보관광자원은 안보 영역의 목적인 안보 의식을 강화시키고 관광 영역의 목적인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 영역 내의 유형, 무형의 제 자원으로서 관광객에게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정신 결속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통제된 상황하의 특수 자원에 대한 탐방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정경진, 2002).

안보관광 자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보관광자원은 이용자이 접근성 측면에서 통제와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상황 그 자체가 관광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림 II-6] 안보관광자원의 특성

자료 : 심상화 외(2000)에서 인용

안보관광자원의 특징은 대부분 6·25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DMZ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다. 분단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 안보관광

안보와 관광은 상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보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관광은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즐거움을 요구한다. 안보관광은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집단 구성원의 안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관광적 속성인 자발성, 대중성, 대량성을 이용할 수 있다(김진섭, 1993).

안보와 관련된 관광지와 관광자원의 개발은 분명 특수한 상황에서 연출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매력물이며 다른 관광과는 차별화 된다. 안보라는 이런 특성이 한 시대에만 국한된 관광자원 개발이 아니라 특색을 지니면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심상화 외, 2000). 관광영역은 안보적 속성인 비밀성, 통제성에 의해 조성된 관광매력도가 높은 유형, 무형의 자원을 안보영역으로부터 제공받아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박형탁, 1997).

DMZ 접경지역의 자원은 살아있는 전쟁박물관, 냉전 사회학 교실,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의 증언대, 세계유일의 냉전 자연생태공원으로 칭해질 만큼 진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함광복, 2010).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으로 관광지가 개발된다면, 남북관계의 완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평화적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im과 Crompton(1989)은 한국과 같은 분단국에서 보다 관광의 평화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였다(이봉희, 2006).

또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 적응하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을 형성하여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냉전자연생태공원'을 탄생시켰는데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함광복, 2010). 이처럼 DMZ에 대한 세계적인 평화적, 생태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DMZ의 평화·생태공원화의 실질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2009년 9월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 DMZ 국제포럼에서는 세계적인 평화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세계 각지의 한국전참전용사들이나 그 관련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한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임문식, 천지일보, 2009.9.2.)

미국시사주간지 '타임(Time)'에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진정한 아시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DMZ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미 잊혀진 베를린 장벽과 후르시초프 등이 등장하는 냉전시대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군인들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탈냉전 후 마지막 분단 상징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분단된 남북 민족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임을 강조하였다.¹⁶⁾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주요부처¹⁷⁾에서는 DMZ 관광자원화 정책 방안으로 평화, 생태, 관광이 연계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 이미지를 통해 DMZ를 평화적인 메카로 부각시키고, DMZ가 지닌 생태학적 장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김난영, 2010).

안보관광은 매력적인 요소가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밖에도 교통, 안전, 보안상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국내의 연구가 주로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해외의 연구 및 제안은 평화적 관점에서 이용방안을 제시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자원으로써 부정적인 역사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지만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평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보관광은 주로 냉전과 관련된 요소로서 DMZ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쟁박물관,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의 증언대 등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관광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관광 상품은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DMZ 비무장지대'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지식과 함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DMZ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비교하여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관람위주의 정적 관광에서 벗어나 동적인 체험관광상품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김난영, 2010). 안보관광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Michael Schuman, "25 Authentic Experiences-Step into Living Cold War History," Time(3009.11.30),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검색일:2013. 5).

17)환경부(2001)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보전지역계획, 환경부(2008) DMZ 생태·평화 비전선언, 문화체육관광부(2008) 평화·생명시대 정책-DMZ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에 초점, 행정안전부(2009)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통일부(2010) DMZ 평화생태 포럼 창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0)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판문점은 195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비준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본부구역의 구축에 관한 합의’에 공동경비구역 내에 회담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출입통제와 경비 및 운영은 휴전회담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이 관장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국정부의 신청을 받아 공동경비구역 안에 내·외국인 출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1970년 외국인대상으로 판문점 관광을 실시하였으며, 내국인들에게는 1980년에야 이루어졌다. 한국인이 단체로 판문점을 관광하려면 정부 관계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뒤 유엔사에 신청, 시간배정을 받아야 방문할 수 있다. 공무원, 법인의 직원, 교원 및 학생, 사회단체와 임의단체 구성원 등 신청 대상에 따라서 신청하는 기관은 다르다.

안보관광은 해외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행태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관광행태로서 독특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해외의 관광행태로는 전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이 있다.

전쟁경험세대들은 전쟁지역에 대해 참혹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전후 세대들은 전쟁지역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후 세대들은 전쟁 관련 지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호기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 심리상태가 전쟁지역을 방문하고자하는 관광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분쟁 관련 지역이나 유물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전쟁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쟁이나 분쟁 관련 지역과 유물을 관광차원에서 조망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심성우 외, 2009).

4. 소결

유사관광 사례를 검토 한 결과 순례관광은 역사관광의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두운 이미지장소로의 여행이라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처럼 희생(순교)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순례는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순례의 정신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목적지, 참여 방법 등이 바뀌어 왔음을 의미한다. 순례는 문화적 의미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기에 이르고 있다. 예전의 순례행위가 종교전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 졌다면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보다 자율적이고 개인화된 의미를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순례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순례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순교성지는 피를 흘리고 죽은 순교지와 순교자의 유해가 묻혀 있거나 보존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례가 매우 성스럽고 종교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반쯤은 종교적이고 반쯤은 세속적인 여행이기도 하다. 오늘날 순례는 일반 대중관광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유적지 답사의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순례와 관광의 영역이 교차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순례관광은 역사현장, 성인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등 순교관련 기념탑 등을 찾아 관광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순례관광의 매력 속성 종교유적관람, 성인의 유품관람, 새로운 관광지를 보는 즐거움, 자연과 성지의 조화로움, 은혜와 감동의 체험, 성전을 직접 보는 감동, 기도와 예배, 종교축제 참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순례관광은 종교관광, 명상관광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인 사건발생 장소를 방문하거나 순교 등 집단회생장소 방문행위 등 다크 투어리즘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례관광이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면 다크 투어리즘이 추구하는 어두운 장소와 역사적인 장소 방문을 통하여 교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속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방문대상의 측면에서는 순교지를 방문하는 행위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와 종교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의 방문대상인 어두운 이미지장소 방문과 순례의 방문대상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산관광은 인문경관을 포함하는 이외에도 역사를 재창조하고 재현하는 것과 자연경관, 전승예술 등 무형적 유산을 포함한다.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건축물, 궁, 요새, 유명 인물과 관련된

생가, 역사적 장소, 종교적 장소, 갤러리, 기념비 등이 주요 대상이 되는 자원과 함께 그 주변지역, 이벤트, 음식 등을 포함한다.

국내 유산관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처럼 일제 강점기 형무소를 역사관으로 재현한 곳, 애국지사가 투옥되어 고문을 받던 감옥 내부를 당시 상황을 모형으로 재현하여 개관한 곳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경우처럼 전쟁과 관련된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유산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의 연관성은 역사적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나 관련된 기념물, 또는 재해석된 콘텐츠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 대상 가운데 식민지 유산과 관련된 요소는 유산관광의 영역에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과 유산관광도 일부의 영역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관광자원은 이용자 접근성 측면에서 통제와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외에도 교통, 안전, 보안상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안보관광이란 해외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행위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지역방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안보관광은 전쟁경험 전후세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방문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 전쟁경험세대들은 전쟁지역에 대해 참혹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전후 세대들은 전쟁지역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후 세대들은 전쟁관련지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호기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 심리상태가 전쟁지역을 방문하고자하는 관광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보관광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판문점관광, 통일안보전시관방문, 다부동 유족기념관, DMZ박물관처럼 6·25전쟁과 연관된 장소와 기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크 투어리즘유형에서 전쟁지역방문의 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 다크 투어리즘과 유사한 관광 행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산관광은 역사적 장소, 종교적 장소, 역사문화적인 요소(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를

찾아 관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순례관광은 역사현장, 성인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및 순교관련 기념탑 등을 찾아 관광하는 형태이다.

안보관광은 주로 냉전과 관련된 요소로서 DMZ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쟁박물관,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의 증언대 등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관광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유사개념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I-5〉 유사관광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개별요소	공통요소	개별요소	구분
순례	신성시된 자연경관	역사적 장소, 역사 현장, 종교적 장소,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순교지,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무형적 자산(전승예술), 재해석된 콘텐츠	유산
유산	종교적 장소, 무형적 자산(전승예술), 공예품, 재해석된 콘텐츠	역사적 장소,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전쟁박물관,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평화·안보 장소	전쟁	안보
안보	전쟁, 평화·안보 장소, 전쟁박물관	역사 현장,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순례
순례·유산·안보의 공통요소		역사적 장소, 역사 현장, 종교적 장소,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순교지,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재해석된 콘텐츠,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전쟁박물관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순례관광과 유산관광의 경우는 많은 요소들이 겹치고 있지만 순례관광과 안보관광은 공통요소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 유산관광과 안보관광 요소를 비교하면 안보관광의 요소들은 대부분 공통요소로 묶이고 있으나 유산관광과 관련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파악되는 다크 투어리즘의 구성요소는 죽음, 비극, 고통, 재앙, 위협의

소비, 역사중심적, 교육지향적, 진정성 있는 해석, 신뢰성 있는 장소로 정리할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구성요소와 유사관광의 구성요소를 비교 검토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검토 결과, 유산관광은 역사적 장소, 역사문화적인 요소, 재해석된 콘텐츠가 다크 투어리즘과 공통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표 II-6〉 다크 투어리즘과 유사관광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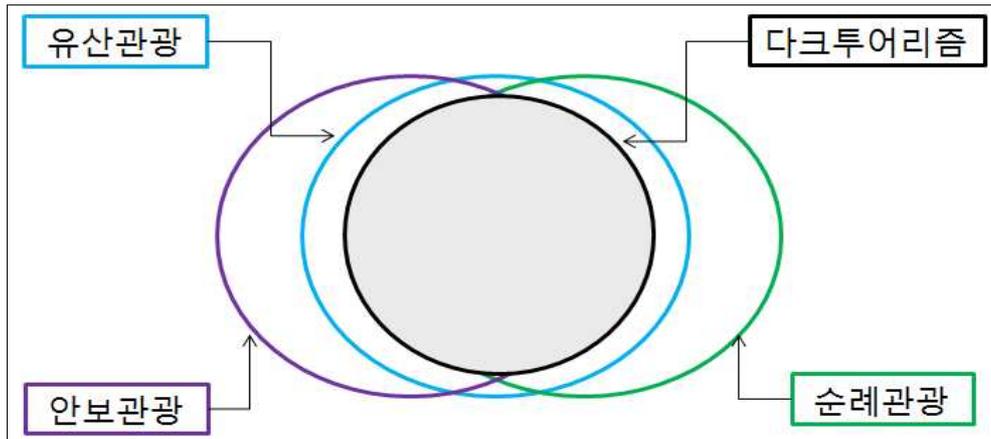
	유산관광	공통점	다크 투어리즘
유산 관광	역사적 장소, 종교적 장소, 무형적 자산(전승예술),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재해석된 콘텐츠	역사적 장소, 역사문화적인 요소, 재해석된 콘텐츠	죽음, 비극, 고통, 재앙, 위협의 소비, 역사중심적, 교육지향적, 진정성 있는 해석, 신뢰성 있는 장소
순례 관광	역사 현장,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 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역사 현장, 묘지, 순교지	
안보 관광	전쟁,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평화·안보 장소, 전쟁박물관	전쟁,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전쟁박물관	
순례/유산/안보 관광의 공통요인	역사적 장소, 역사 현장, 종교적 장소,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순교지,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장소, 전쟁박물관	역사적 장소, 역사 현장, 종교적 장소, 성인 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순교지, 건축물, 기념물, 유적지, 공예품,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 전쟁박물관	

순례관광은 역사현장, 묘지, 순교지가 다크 투어리즘과 공통요소이며, 안보관광은 전쟁, 한국사의 현장, 근대사 증언 장소가 다크 투어리즘의 죽음, 비극, 고통이란 요소가 중첩되고 있다.

차이점은 유산관광에서는 종교적 장소, 순례관광에서는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안보관광에서는 평화교육과 안보장소가 제외되고 있다. 개념적 측면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되지만 실제 관광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에서는 차이점을 분리할 수 없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은 유산관광, 순례관광, 안보관광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네 개의 유사개념은 개별적인 연관성도 보여주

고 있다. 이들 각각의 유사관광의 구성요소들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II-7] 다크 투어리즘의 분포 범위

제3절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체계 확립

1. 개념화 요인

개념화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 즉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크 투어리즘의 경우에도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고 기원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있는 만큼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관련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개념화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개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원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Rojek(1993)의 경우에는 기원을 중세의 순례여행에서 찾고 있다. Seaton(1996)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은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나토피스(thanatopsis)에서 찾았다.

시기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Lennon and Foley(2000)의 경우에는 다크 투어리즘의 기원을 20세기로 보고 있다. Reader(2003)는 20세기 이후에 발생하는 연대기적인 현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용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Seaton(1996)의 경우 시공간을 초월하여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 죽음을 재현하거나 상징하는 것, 그리고 관이나 묘비처럼 죽음과 관련된 물리적인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Dann & Seaton(2001) 휴머니티에 반하는 폭력, 범죄와 관련된 매력물이나 장소를 무대화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sworth(2002)는 시대적 제한을 비판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이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곳의 매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Tunbridge와 Ashworth(1996)의 불협화음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Rojek(1993)은 죽음을 초래하는 명소들과 어두운 지점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유명한 사람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나 그들의 무덤에 대한 상업적인 개발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Lennon and Foley(1996a; 1996b)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혹은 불시에 이루어졌든 아니었든 죽어가는 광경과 슬픔을 전시하거나 혹은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Blom(2000)은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단시간에 유인하는 갑작스런 죽음에 중점을 둔 관광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병리적 현상과 연관된 명소로 정의하였다. 한숙영(2010)은 위험사회에서 매스미디어 기술의 발달이 다크 투어리즘에 미친 영향으로 죽음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변하였다. 죽음이나 재난과 같은 위험이 소비상품화하였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전시로서 사람들의 성찰을 높인다.

공급자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Stone(2006a)의 경우 다크 투어리즘 상품들은 다면적이고, 디자인 및 목적 측면에서 복잡하고, 실제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크(dark)라는 용어는 다크 투어리즘 공급의 다층면들을 선뜻 드러내지 않는다. Sharpley(2005)는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우연히 관광 매력물이 된 경우인 우발적인 공급부터 수익 창출을 위해 개발된 의도된 공급까지 해당된다. Phillip R. stone(2006)은 다크 투어리즘은 내부 공급자 측면에서 매우 어두운 것과 매우 밝은 것이 대비되는 구조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소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Miles(2002)의 경우 죽음이나 관광매력물들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Dark Tourism과 Darker Tourism으로 구분하고 있다. Dann(1998)은 공포의 도시들, 위험한 행선지들, 죽음의 지하 감옥, 흉악스런 호텔들,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들, 홀로코스트의 지옥, 유명인들의 묘지, 상해와 살인, 현재 악명 높은 자들, 병리적 박물관, 윤리 기념비들로 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Lennon and Foley(2000)는 의미 있는 전쟁지역을 여행하는 것,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식민지 역사를 그대로 장소자산으로 활용하는 것, 나치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량학살 현장을 방문하는 것, 화산·지진·폭우·태풍 등과 같이 천재(天災) 또는 인재(人災)로 인한 지역을 돌아보는 형태, 유럽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귀신관광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Stone(2006a)은 상업적 목적의 장소,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전시, 지하 감옥, 묘지나 무덤, 성지, 분쟁지역, 대량학살로 구분하고 있다. The Institute for Dark Tourism Research(2012)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장소,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전시, 감옥이나 법정과 같이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 묘지나 무덤지역 활용,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소, 전쟁지역 상품화, 대량학살로 제시하고 있다.

방문동기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Seaton(1996)의 경우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한 곳을 방문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동기의 연속선 위에 존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Lennon and Foley(2000)는 우연히 생겨나는 단순히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적인 방문에 기인한 현상이다. Beech(2000)는 방문자들의 경험들은 전시되고 있는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Reader(2003)는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동기에 대한 관심 부족과 다크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결과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화를 위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기원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순례와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시기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20세기를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높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영향, 교육지향적이며, 역사중심의 진정성 있는 해석,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 죽음을 재현하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 죽음과 관련된 물리적

인 것, 휴머니티에 반하는 폭력, 생생한 기억, 불협화음의 유산, 죽음을 초래하는 명소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장소, 죽어가는 광경과 슬픔을 전시하거나 혹은 재구성하는 행위, 많은 수의 사람들을 시간에 유인하는 갑작스런 죽음, 다면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함, 위험의 소비상품화, 리스크에 대한 전시 및 성찰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다크 투어리즘 공급의 다층면들을 선뜻 드러내지 않는다. 우발적인 공급부터 의도된 공급까지, 매우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장소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Dark Tourism과 Darker Tourism, 공포의 도시, 지하감옥, 흉악스런 호텔, 전정터, 유명인들의 묘지, 상해와 살인, 병리적 박물관, 윤리기념비, 전쟁지역, 식민지역사, 대량학살, 천재(天災) 또는 인재(人災)로 인한 지역, 유럽의 고성, 지하감옥, 성지, 분쟁지역, 대량학살, 상업적 목적의 장소,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전시 장소, 감옥이나 법정과 같이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소, 범죄와 관련된 매력물이나 장소 등이 있다.

방문동기의 측면에서 개념화 요인은 방문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동기의 연속선 위에 존재, 우연히 생겨나는 단순히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적인 방문에 기인,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크 투어리즘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결과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2. 개념화

대중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현재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 시점에서 재생한다는 것은 무형의 기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형의 가시적인 형상으로 재현시킨다는 의미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화나 설화의 형태로 전승하거나,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에 대해서 저항, 또는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제거하고 반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다크 투어리즘은 특정 죽음들에 종교적이거나 또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 될 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건이 발생되었던 장소나 희생자가 묻힌 장소,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추모의 공간이 그 대상이 된다. 죽음에 대한 의미화가 발생하면서 장소의 의미화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면서 다크 투어리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다크 투어리즘 장소는 의미 있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영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 방문객의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다크 투어리즘 개념화를 위해 개념화 요인 연구와 속성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의 순례와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교육지향적이며 역사중심의 진정성 있는 해석을 기본적인 개념화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면적이고 복잡하면서 휴머니티에 반하는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된 물리적인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 죽음을 재현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을 전시하거나 혹은 재구성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위협의 소비상품화와 성찰을 이끌어 낸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우발적인 공급부터 의도된 공급까지 존재하며 매우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 자체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다층면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장소의 측면에서는 Dark Tourism 장소와 Darker Tourism 장소로 구분되며 개인의 죽음부터 집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장소가 대상이다. 내용과 연관시켜보면 천재(天災) 또는 인재(人災)로 인한 장소, 죽음이나 고통과 관련된 장소,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소, 상업적 목적의 장소,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 상해와 살인 등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전쟁 등 대량학살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방문동기의 측면에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동기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으나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연히 생겨나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적인 방문이 많기 때문에 다크 경험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결과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관광이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벤트가 제공되는 반면에 다크 투어리즘은 짧은 시간에 이벤트가 제공되고 있다.

이상으로 개념화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과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으로는 첫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우발적인 공급부터 의도된 공급까지 존재하며 매우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Dark Tourism 장소와 Darker Tourism 장소로 구분되며 개인의 죽음부터 집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장소가 대상이다.

셋째, 방문자는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연히 생겨나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적인 방문이 많다.

넷째,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관광이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벤트가 제공되는 반면에 다크 투어리즘은 짧은 시간에 이벤트가 제공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과 국내 유사관광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 유산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 장소, 역사문화적인 요소, 재해석된 콘텐츠가 공통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순례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현장, 묘지, 순교지가 다크 투어리즘과 공통요소이다. 안보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은 전쟁, 죽음, 비극, 고통이란 요소가 중첩되고 있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은 특성을 포함하고 국내 유사관광사례의 시사점을 접목 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 정의는, 중세의 순례와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되었으며 높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교육지향적이며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석을 지향한다. 인간애에 반하는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의 소비상품화를 통해서 성찰을 이끌어 낸다.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되는 특징이 있으며 매우 어두운 장소나 어두운 장소를 찾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짧은 시간에 전쟁터 등 역사현장이나 재해석된 콘텐츠·죽음·비극·고통이 깃든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이다.

제3장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제1절 유형화를 위한 준거의 설정

1. 준거 설정 방법

유형은 여러 탐구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reality)에 대한 인위적 표현으로, 개념이나 도식, 그래프 또는 수리적 등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형은 문제 상황의 여러 요소들을 서술, 설명, 예측하는데 참조틀(frame of reference)로 쓰일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과정, 활동들을 단순화하거나 유비(類比)를 통하여 설명하는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다. 또 모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구조와 관계를 명료하게 단순화 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종균, 1997).

유형(類型, Type)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개별형식을 포섭하는 형식'이라는 의미와 '그 자신은 하나의 개체이고 따라서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을 모범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정인승 외, 1986). 유형(Type)이란 용어는 그리스어의 타이프스(Typus)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생물학적, 형태학적 범주로 해석하였으나, 점차로 사물의 형태적 분류개념으로 변화되었다(Webster's third International Dictionary, Grand C Merriam Co, 1966; 재인용).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형의 개념을 형태적, 물리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것들의 형태적인 유사성에 의해서 요소들을 분류하여 목록화 하는 작업은 이러한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김정호, 2001). 따라서 유형학이란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를 분명히 해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의 방법, 또는 그 성과를 말한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는 관찰자의 목적에 따라 그룹핑되며 일정한 질서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그룹들을 유형이라 불리며 또한 여기서 생성된 질서는 데이터

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 이러한 유형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유형학의 개념정의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김경숙, 2004).

분류 대상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중시하는 유형론(typology)과 위계적인 배열을 중시하는 분류학(taxonomy)의 개념들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서로 구분되지만(Burns, 1967: 재인용)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분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형론의 토대가 되는 분류학은 분류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준거, 원리와 절차 그리고 규칙들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Litterer(1973)는 유형화의 준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각 모델의 구별을 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해 주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변수나 속성에 따라 유형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유형화의 준거가 되는 변수나 속성은 반드시 모델의 중요한 변수군들 가운데 하나이어야 한다. 셋째, 선택된 변수나 속성은 그 유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학문영역이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즉 하나의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분류가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인 준거에 의한 분류학이나 유형론은 분류대상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지나친 단순화 때문에 명료성보다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김종균,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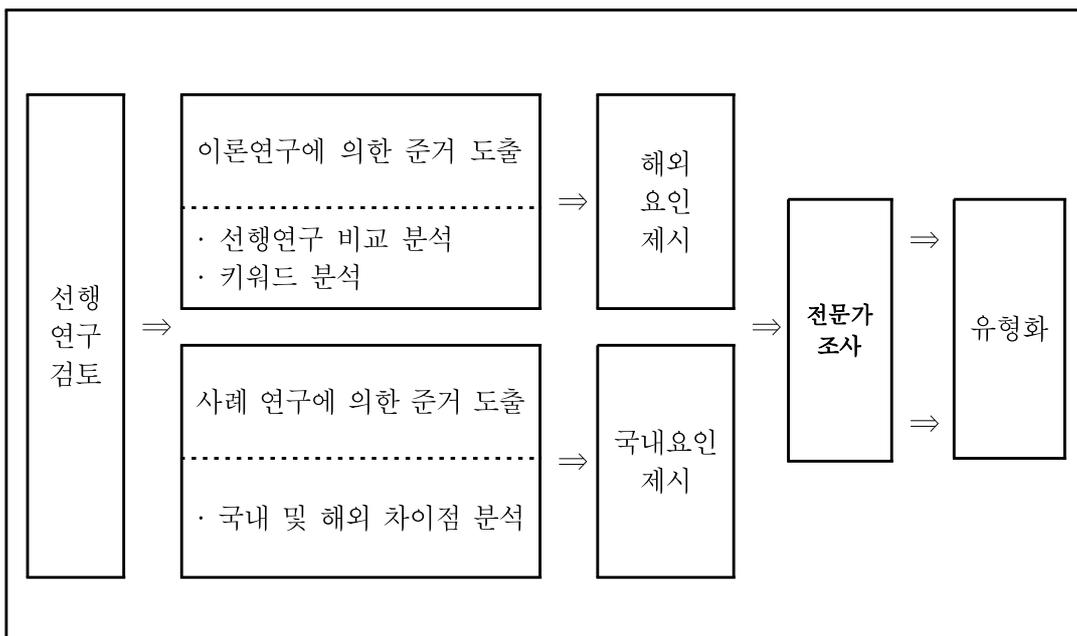
Perrow는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형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유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단순 유형론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점, 즉 ① 분류를 위해 사용한 요소들의 중요성, ② 분류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의 유무, ③ 분류요소들의 체계성 미비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유형화를 위한 노력을 진정한 이론적 탐구활동이라기보다는 단지 특정한 절차나 체계에 따른 정리작업으로 속단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Gustafson, 1991:재인용).

유형화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서 유형화의 준거를 도출하고, 준거의 가능성 검증을 통한 유형화 모형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기본 개념을 가정하여 개발된 설문조사나 사례를 통한 통계적 기

법(군집분석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이다(윤희영, 2013).

결국 유형화의 성패는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의 차이를 밝혀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준거)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준거의 선택에 따라 연구대상의 정확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달라진다. 이점은 대상의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변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탐구의 대상이 복잡한 실체이거나 역동적인 체제일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성과 역동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김경숙, 2004).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적 기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형화를 위해서는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외의 다크 투어리즘 요인 분류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특징과 성격이 일관되게 관통하는 공통분모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해외연구자의 요인들 가운데 공통분모를 지닌 요인들은 병합하고, 국내사례에서 검출된 요인이 해외 요인에 없을 경우 추가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준거로 삼았다.



[그림 III-1] 유형화를 위한 연구 모형

2. 이론연구에 의한 증거

선행연구에서 분류의 방법은 성격, 관광동기의 측면, 소비의 측면, 장소의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해외의 연구에서도 유형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국내의 경우에도 다크 투어리즘 개념화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분야별 연구에 앞서 일반적인 개념정립과 유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장에서는 해외의 이론연구를 토대로 국내의 관련 시설 및 장소에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해외 연구 가운데 방문 장소를 연구한 사례와 사건의 내용과 연관된 연구 가운데서 유형화를 위한 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앞서 각각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Lennon and Foley, Seaton, Dann의 연구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들 연구를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공통요인은 통합하고자 한다.

각각의 연구결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nnon and Foley는 홀로코스트의 경우처럼 상위의 학술용어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속성이 개별 사건 중심으로 구분된 경향이 있다.¹⁸⁾ 관련 학계에서 통용되는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Seaton은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요소를 내세워 분류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대표성을 지닌 요소들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도 포함되면서 고유성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사의 장소 요인에서 참사는 전쟁이나 재난, 학살 등 다양한 요인과 중복될 수 있다. Dann의 연구에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18) 제노사이드(Genocide)란 용어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고안한 용어이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민족 또는 부족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파생어 제노(geno)와 살인을 의미하는 로마어 caedere에서 파생한 사이드(cide)를 결합한 복합어이다(김상기, 2007). 1948년 12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제노사이드 결의안을 바탕으로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92개국의 찬성으로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는 제노사이드를 ‘국민·인종·민족·종교·집단 전체 또는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적시했다. 1)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집단 구성원에 대해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3)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4)집단 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피를 부가하는 것 5)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이다(최호근, 2005).

Lennon and Foley, Seaton, Dann의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을 키워드로 함축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 III-1> 와 같다.

<표 III-1> 연구자별 다크 투어리즘 요인 규명

Lennon and Foley		Dann		Seaton	
요인	키워드	요인	키워드	요인	키워드
전투지역관광	전투, 전쟁	위험한 장소	공포, 위협	전쟁지역 방문	전투, 전쟁
묘지방문관광	묘지	공포의집들	묘사	묘지나 무덤지역 방문	묘지, 무덤
홀로코스트관광	대량학살	사망의 장소	전쟁, 홀로코스트, 유명인 사망	대량학살 장소 방문	대량학살
재난지역관광	재난, 재해	고통관광	상해, 살인	상업적 목적의 장소 방문	상업화
고스트관광	귀신, 상품화	죽음의 분위기	박물관, 기념비	죽음과 고통 관련 전시 방문	죽음전시
식민지역사	식민지	-	-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 존경	추모, 존경
-	-	-	-	감옥, 법정 같이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 방문	교육

자료 : Lennon and Foley과 Dann, Seaton의 연구 참조 연구자 재구성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Lennon and Foley는 관광행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예로서 가시적인 형태의 자원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Seaton은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훈의 대상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행위를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했다. Dann은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별로 제시한 요인에서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배열하면 아래의 <표 III-2>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nnon and Foley의 연구에서는 6개의 키워드, Seaton의 연구에서는 5개의 키워드, Dann의 연구에서는 7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표 III-2〉 연구자 기준에 따라 분류된 다크 투어리즘 핵심 단어

키워드			
번호	Lennon and Foley	Dann	Seaton
1	전투, 전쟁	공포, 위험	전투, 전쟁
2	묘지	묘지, 감옥	묘지, 무덤
3	대량학살	전쟁, 홀로코스트, 유명인 사망	대량학살
4	재난, 재해	상해, 살인	상업화, 이벤트
5	귀신, 상품화	박물관, 기념비	죽음전시, 기념시설
6	식민지	-	유명인 추모
7	-	-	재현, 형무소

자료 : Lennon and Foley과 Dann, Seaton의 연구 참조 연구자 재구성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용(의미)의 측면에서 서로 중첩되는 키워드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별로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공통요소와 차별적인 요소로 재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은 아래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다크 투어리즘 통합 키워드 추출

번호	연구자				종합	통합 키워드
	Lennon and Foley	Dann	Seaton			
1	전투, 전쟁	전쟁,	전투, 전쟁	⇒	전투, 전쟁	⇒ 전투, 전쟁
2	묘지	묘지	묘지, 무덤	⇒	묘지, 무덤	⇒ 묘지, 무덤
3	대량학살	대량학살	대량학살	⇒	대량학살	⇒ 대량학살
4	재난, 재해	-	-	⇒	재난, 재해	⇒ 재난, 재해
5	상품화	-	상업화, 이벤트	⇒	상품화, 이벤트	⇒ 상품화
6	식민지	-	-	⇒	식민지	⇒ 식민지
7	-	박물관, 기념비	죽음전시, 기념시설	⇒	박물관, 기념비, 죽음전시, 기념시설	⇒ 기념시설
8	-	유명인 사망	유명인 추모	⇒	유명인 사망, 유명인 추모	⇒ 유명인 추모
9	-	감옥	재현, 형무소	⇒	감옥, 재현, 형무소	⇒ 재현
10	-	공포, 위험	-	⇒	공포, 위험	⇒ 공포, 위험
11	-	상해, 살인	-	⇒	상해, 살인	⇒ 참사

통합 키워드를 살펴보면 장소와 콘텐츠, 시설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자마다 분류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통된 요인을 찾기 위하여 각 요인들의 내용상 공통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요인을 찾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ennon and Foley의 기념시설과 Seaton의 전시는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상 변별력이 없다. 또 기념관 및 기념비는 보다 상위 개념인 기념시설로 묶을 수 있다. 상해와 살인의 요소는 2개의 단어를 관통하는 단어인 참사로 명명할 수 있다. 유명한 사망과 유명한 추모는 사망과정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명한 추모로 정리하였다. 감옥과 재현은 감옥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감옥에서 재현되는 행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재현으로 정리하였다. 상품화와 이벤트는 상품화의 범위에 이벤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품화로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사건과 연관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제시된 해외 연구자의 키워드를 통합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요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요인(전투·전쟁)은 전쟁지역 방문, 제2요인(묘지·무덤)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한 묘지나 무덤지역을 방문, 제3요인(대량학살)은 대량학살지역을 방문, 제4요인(재난·재해)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 제5요인(상업화)은 상업적 목적의 장소를 방문, 제6요인(식민지)은 식민지 관련 유산이 있는 곳을 방문, 제7요인(기념시설)은 죽음과 고통 관련 전시 방문, 제8요인(유명한 추모)은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존경하는 요인, 제9요인(재현)은 감옥·법정과 같이 오락과 교육이 조합된 장소나 죽음과 관련된 재현 장소 방문, 제10요인(공포·위협)은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 제11요인(참사)은 상해나 살인 등 비극적인 사건 발생장소 방문이다.

3. 사례연구에 의한 증거

1) 해외사례

이론연구에 의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증거가 도출되었지만 관광현상으로서 발생되고 있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요인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연

구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요인들은 이론연구에서 발견된 요인과 통합하여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준거로 삼고자 한다.

가) 재현 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주로 독립전쟁과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연계시켜 관광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The Freedom Trail)을 조성하였다(www.thefreedomtrail.org).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는 미국 초창기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로 특히 미국의 독립과 건국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기념하는 사적지와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도보로 미국의 식민지 시절 프랭클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Franklin's Footsteps Colonial Walking Tour)을 갖추고 있다. 인디펜던스홀에서는 방문한 사람들이 독립 당시의 역사적 현장감을 위해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처럼 꾸민 배우들이 인디펜던스 홀 곳곳을 걸어 다니며 방문객들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인디펜던스 방문객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벤자민 프랭클린과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하는 아침식사(Breakfast with B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phlvisitorcenter.com/>).

미국에는 전쟁재현 이벤트를 지역의 축제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Gettysburg)시에서는 당시 전투상황을 재현하는 게티즈버그 축제가 열린다. 전쟁이 발발한 기간인 7월 1일부터 6일을 전후해 시 외곽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축제로 알려져 있다.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이 축제는 축제구성원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참가자들은 인터넷과 소식지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재현행사의 참가자가 되기 위해 관련 신문 및 유인물을 비롯하여 재현행사 소식을 교류하는 각종 남북전쟁 웹사이트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며, 재현축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축제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과 캠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쟁 재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US군, CS군대와 민간인 캠프지역으로 구분하지만 가족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머물면서 참여하기를 장려하며 군인역할의 남편을 둔 아내일 경우 군대 캠프내 민간인 캠프에도 머물 수 있게 하는 등 가족참여형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http://live.joins.com/News/article>, www.historictours.com).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뿐 아니라 군악대 역할을 하는 드럼소년 등 전쟁 당시의 군부대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당시 마을의 모습 또한 역사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청소부, 여인, 정치가, 재봉사 여인, 의사 등과 같은 일반인에 대한 역사적 재현과 해설도 제공한다.

전쟁재현 기간과 주말캠프 참가자는 그 시대의 전통복장을 착용해야 하므로 축제기간 동안 게티즈버그 시가지가 전쟁시기로 되돌아간 것 같은 흥미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민말순 2006; 이훈 2010, 444-448 재인용).

조직운영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민간단체 주도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축제공간은 과거 전쟁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품과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총과 대포 등의 전쟁용품을 활용해서 축제장소 연출이 이루어진다. 장소마케팅의 도입을 통해 게티즈버그는 과거 전쟁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전쟁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축제장소가 되었다. 이것은 잊혀져 가는 과거의 기억을 가족 체험형 놀이로 복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곳은 체험성과 오락성이 강한 재현형 다크 투어리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나) 반성과 참회 사례 : 프랑스

프랑스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깊다. 레지스탕스는 프랑스어로 '저항'이라는 의미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의하여 점령된 유럽 제국에서 비합법적으로 전개된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을 가리킨다.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공로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럽인들 특히 독일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중부 Oradour-sur-Glane에 있는 village martyr은 철저히 파괴되어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들이 있는 한 마을일 뿐이지만 정부에서 이를 보존하고 있다. 이 지역은 레지스탕스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던 곳으로 그

지역 레지스탕스들이 독일군 2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던 시기인 1944년 6월 10일 독일군 병사 수십 명이 평화스런 이 마을을 완전히 파괴 하였다(2013. 제주테크노파크).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폐허가 된 이 마을을 보존하여 독일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기념관을 짓고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들과 다큐멘터리 상영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전쟁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 특히 독일인들의 반성과 참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쟁기념관이 있다. 나폴레옹의 무덤으로 유명한 앵빌리드 내에 설립된 군사박물관은 기존의 포대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이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군사박물관은 ‘군사적 임무를 상기시키고 국방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특별한 유물들을 보존하고, 소개하며, 풍성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매우 광범위한 시기에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으로 유명한 군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부르봉가문의 왕조시대, 나폴레옹시대뿐만 아니라 양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의 역사와 무기들을 보존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05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는, 군사박물관이 확립되는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활동이 둔화되고 정지되는 수면의 시기였다. 진열품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전시실이 정비되었음에도 국방부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후 효과적인 재정적 경영과 내부의 정비, 특화된 활동을 전개하는 정상화 시기가 도래하였다(이재원, 2011).

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 사례 : 폴란드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든 고난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으며 끊임없는 통곡 속에 기억된다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성지이다(전진성, 2006).

나치스 독일은 폴란드 점령 후 유대인 대량 학살을 위해 아우슈비츠(Auschwitz) 지역에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강제수용소(Aushchwitz Konzentrationslager)를 지었다. 1940년 4월 27일 유대인 절멸을 위해 첫 번째 수용소를 세웠으며, 그해 6월 이 아우슈비츠 1호에 최초로 폴란드 정치범들이 수용되었다. 그 뒤 히틀러의 명령으로

1941년 대량상해시설로 확대되어 아우슈비츠 2호와 3호가 세워졌고, 1945년 1월까지 나치는 이곳에서 250만 ~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을 살해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47년 폴란드 의회에서는 아우슈비츠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유네스코는 나치의 잔악행위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희생자를 위로하는 거대한 국제위령비를 비르케나우에 세웠으며, 수용소 터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은 오시비엔침수용소(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여기서 3 km 정도 떨어진 비르케나우 수용소(아우슈비츠 제2수용소)이다. 박물관은 수천 명이 총살당했다는 ‘죽음의 벽’, 지하의 아사(餓死) 감방과 생체실험을 하던 수용소 병원, 가스실과 화장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실 내부에는 학살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학살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낡은 신발과 옷가지,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이 담긴 거대한 유리관 등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20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폴란드는 이 곳을 나치 독일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폴란드학교 교육의 필수과목같이 학생들을 견학시키고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대화도 하고 자료를 연구하며 특정 문제에 관해 워크숍을 갖기도 한다. 가스 처형장의 잡초를 뽑고 청소하는 육체적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조건영, 1994).

아우슈비츠는 제2차 세계대전 관계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관광객 가운데 이스라엘과 독일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ZAKHOR)’라는 피해자 나라와 끝없이 과거사를 참회하는 가해자 나라가 모두 정책적으로 이 도시로의 수학여행을 권장하기 때문이다(심원섭, 2010).

아우슈비츠 박물관은 당시의 수많은 문화유물과 예술품들을 보유·전시하고 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들은 수많은 유물뿐만 아니라 2,000여 점의 예술작품들도 남겼으며 비밀리에 시낭독회이나 각종 종교행사도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 기록을 통해 남아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포로들의 소지품들이나 예술품들을 토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물과 예술품들, 그리고 수용소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존 작업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제주테크노파크, 2013).

라) 대량학살 사례 : 캄보디아

사건 발생 당시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는 기존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들을 뿌리째 개조하고자 하였다. 폴 포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민 소개 계획을 집행하여 프놈펜의 모든 거주자를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후 폴 포트 통치 4년간 전 국민의 1/3가량 되는 200만 명이 처형, 고문, 기아, 질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대표적인 시설이 투어슬랭 박물관이다. 이 곳은 'S-21(Security Office 21)'이라는 정보기관이 사용하면서 잔혹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던 곳이다. 실제 고문이 자행했던 장소에 당시의 고문 기구를 그대로 보관 전시함으로써 현장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킬링필드에 관한 진상규명이나 이를 후세에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별로 없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도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다(20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마) 식민지 사례 : 필리핀

필리핀의 독립기념일은 6월 12일로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필리핀의 독립기념일에는 2주 전부터 거리 곳곳에 대형 국기가 내걸리며 당일에는 독립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행사는 주로 호세 리잘 추모공원(Lizal Park)에서 진행된다. 리잘 파크에서는 매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공원을 둘러보면서 필리핀 독립정신과 필리핀인의 다문화성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제주테크노파크, 2013).

리잘 파크는 마닐라의 산티아고 요새(Fort Santiago)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군 점령기 동안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이곳에 수감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적지이다. 그러나 필리핀인들이 사랑하는 독립영웅 호세 리잘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호세 리잘은 스페인의 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로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산티아고 요새는 리잘이 처형된 곳이라는 장소성 때문에 후세인들이 리잘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하여 리잘 파크로 조성하였다(<http://ko.wikipedia.org/wiki>).

바) 참사 사례 : 호주

포트 아서(Port Arthur)는 호주 타즈메니아 주도인 호바트에서 남서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호주에서 가장 큰 유배 식민지 유적이 있는 곳이다. 30개의 채소자 관련 역사적 건물들, 유적들과 정원들로 이루어진 포트 아서 역사 마을(Port Arthur Historical Settlement)은 1833년부터 1853년까지 호주 식민지에서 온 채소자들을 수감했던 형무소이다. 1853년부터 형무소가 폐쇄된 1877년까지는 채소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1996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타즈메니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인근 카페에 총을 소지한 남자가 35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총격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28일 일요일이었다. 아무런 범죄 동기도 없이 임의적이고 무계획적인 방법으로 만행을 저질렀던 이 사건은 온 나라를 공포로 흔들어 놓았다. 포트 아서 기념 정원(the Port Arthur Memorial Garden)은 이 때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http://www.portarthur.org.au>).

포트 아서 추모 정원에 있는 브로드 애로우 카페(the Broad Arrow Café) 건물 뼈대만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사건 당시 35명 중 20명이 사망한 장소이기도 하다. 사건 8개월 후에 대부분 철거되어 뼈대만 남은 이 건물은 그 당시에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다. 이 건물을 기념물처럼 유지하느냐, 치유과정을 돕기 위해 의식적으로 제거하느냐 혹은 자연적으로 붕괴되게 할 것인가 등이었다. 철거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카페 자체가 많은 이의 죽음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하는 생존자들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살인자나 그 사건에 영원성을 부여한다는 공포감, 그리고 모방범죄에 참고 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Lennon, 2002).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공동체가 이 장소를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로 인해 고통스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보낸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페의 뼈대만 남긴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트 아서 추모 위원회(1996년 설립됨)는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추모공원의 특징은 반성의 연못(Reflective Pool)이다.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10m, 0.5m 깊이의 이 연못 가장자리에는 35개의 황금 빛 잎새들이 동그란 접시에 흩뿌려져있는데 이 잎새들은 총격사건 당

시 사망한 희생자들을 상징한다(www.fliker.com).

사) 전쟁 사례 : 오키나와

오키나와평화기념관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측에서는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만 미군 측에는 본토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일본군 12만과 미군 18만이 섬 안에서 공방을 벌였었다. 전쟁초기인 5월 이전에 오키나와 주둔 일본군 70%가 사망하지만 이후에는 오키나와 주민 80%가 사망한다(아니야 마사아키, 2011).

오키나와전은 국제보호·본토 결전 준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사석(捨石) 작전이었다. 오키나와 전에서 천황의 군대는 주민을 남김없이 전장에 동원하고 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비국민으로 처벌하고 스파이로 처형했다. 오키나와의 전쟁체험 기록운동은 전투중심·천황표창의 관점을 부정하고 최대의 피해자가 된 주민의 눈으로 본 오키나와 전, 이것을 세심하게 수집하여 오키나와전의 전체상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1975년 6월에 개관한 오키나와 현립 평화자료관은 기본구상도 전시계획도 없이 해양박물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해양박물관 종료 후에 오키나와 현에서는 자료관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전시 개선을 위한 기본 개념을 책정했다. 큰 특징은 첫째, 오키나와 전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태평양전쟁 종결단계에서 오키나와전의 역사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전시의 기법이 독창적이다(아니야 마사아키, 2011).

현재의 기념관 자리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을 피해 쫓겨 다니던 주민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희생된 장소이다. 2000년에 지금의 신관을 건축하고 이전했다. 이 곳은 시설보다는 콘텐츠를 중시하여 역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오키나와 전쟁에 이르는 길에서부터 출발한다. 류큐왕국의 역사와 해체 과정을 담고 있다. 전시실Ⅱ에서는 일본군과 미군의 격돌에 의해 민간인을 포함한 2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면서 핏빛으로 물들인 오키나와의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실Ⅲ은 일본군의 지구전과 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주민 대량학살과 대규모 강요된 자살유도로 아비규환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전시실Ⅳ은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전시실 V에서는 태평양의 요충지인 오키나와에서는 냉전체제에 의해 토지는 미군의 군사기지로 편입되면서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념사업은 문예공모와 증언을 청취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문예공모는 작곡, 시,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증언을 청취사업은 손자들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듣고 기록하는 사업이다. 자연스럽게 세대계승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전쟁·대량학살 : 남경

중국 남경시는 ‘피로 얼룩진 역사를 영원히 남경의 대지위에 새겨두자’는 취지하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항일전쟁 승리 40주년인 1985년 8월 15일에 남경학살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희생자가 매장된 바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에는 1937년 12월 26일 약 1만 명의 포로와 시민이 기관총으로 살해된 곳이다. 중국 측에서는 매장자 수를 기초로 집단학살 19만 명, 개별적인 학살 15만 명, 합하여 3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기념관은 1차에는 생존자 사진전시, 뒤영킨 유골을 그대로 땅속에 전시한 유골전시관 등이 조성됐으며, 2차에는 통곡의 벽, 금릉집난(당시의 수난 상황을 부조로 만든 벽)으로 나누어 시설하였다. 전시실은 만주사변에서 남경 공략에 이르는 일본군의 침략 경과를 슬라이드로 설명하듯이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동경재판과 중국 군사재판에서의 전범 재판 경위를 보여준다.

신관은 구관의 3배로 총면적은 2만 2,000평이다. 7,500평의 복층 다각형으로 관람객이 한 눈에 전시물을 다 볼 수 없게 하는 전시관 설계로, 구관에 비해 다양한 전시물을 세련된 기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전쟁, 살육, 평화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계되어 ‘절단의 칼날’ - ‘죽음의 정원’ - ‘평화의 목소리’라는 세 개의 경계로 구분된다. 구관의 시설을 중간에 두고 양측에 ‘신 전시관’과 ‘평화광장’을 배치한 기다란 배 모양으로 만들었다. 입구의 기념광장을 거쳐 신전시관을 관람하고 구관을 지나 생존해 있는 수난자와 극동국제군사법정에 관여했던 중국인 등 222명의 족적을 탁본해 만든 동판로를 지나 명상의 방에 도착하면 평화광장이다(김정현, 2011).

2) 국내사례

가) 민주화 사례 : 광주5.18

5.18과 관련하여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은 국립5.18국립묘지와 5.18기념공원이 대표적이다. 5.18의 유형적 자원은 집단묘지 1개소, 공원 2개소, 사적지(광주 26개소, 전남 8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활용사례는 26개 사적지와 광주 곳곳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을 연계하여 5개의 테마, 18개 코스를 개발하여 5.18Road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5.18국립묘지 내에는 5.18추모관이 조성되어 있다. 기념보다는 추모의 성격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된 방문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되었다. 5.18관련자들이 수감되었던 상무대 영창과 법정시설을 복원시켜 체험과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5.18자유공원이 있다.

오월길은 5.18민중항쟁 26개 사적지와 광주 곳곳에 있는 역사, 문화자원들을 연계하여 체험하고 교감 할 수 있도록 모두 5개 테마, 18개 코스로 조성되었다. 18개 길은 각 길마다 의미를 두고 그에 알맞은 장소를 연계시킨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스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도보는 짧게 2시간에서 길게는 15시간 소요된다.

나) 민주화 사례 : 민주올레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사회 각계 인사가 민주올레길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 민주올레 제안문'은 '민주주의 역사현장을 어깨 곁고 함께 걸자'로 시작되고 있다. 제안문은 국권상실 100주년, 4·19혁명 5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기념해야 할 많은 날이 있고, 이 날에 제주, 마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함께 그날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문은 '민주주의 청사에 기록된 그날, 그 장소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성찰과 다짐을 확인하는 함께 걷기운동이다. 다양한 세력과 세대가 모여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소통하며 연대하는 열린문화운동이다. 분열되어 약해졌던 개별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함께 모여 반성과 결의를 다지는 연합운동이며, 다양한 개별 운동에 전체가 함께하는 연대운동이자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함께하는 집단지성운동이다.

민주올레는 시민운동으로서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건강과 순례의 의미를 떠나서 민주주의 정착과 계승, 나아가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다(민주올레, 2010).

코스 구성은 지역별 사건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국 42개 지점을 주제별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코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10년에 개장 행사 개념의 '3.1절 민주올레', '4.3민주올레', '4.19민주올레'를, '5.18민주올레'를 해당 시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민주올레길은 사건별 올레와 지역별 올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발생한 사건의 지점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념행사와 연계시켜 진행되는 경우, 일상적인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운영주체 또한 민주올레 전체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 전쟁 사례 : 6.25

경남 거제 포로수용소는 6.25전쟁 중 유엔군과 한국군이 사로잡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던 곳이다. 당시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포로 관리에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급수가 용이하다는 점, 포로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로 수용 규모는 처음에는 6만 명이었으나 나중에 2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유엔군 사령부가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분리 및 분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52년 8월까지 북한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거제도를 비롯하여 용초도·봉암도 등지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소규모로 분산시켜 제주·광주·논산·마산·영천·부산 등지로 이송되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뒤 33일간에 걸쳐 거제도에 수용된 친공포로들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됨에 따라 포로수용소도 폐쇄되었다. 잔존 건물의 일부만 남아 있던 포로수용소 유적은 6.25전쟁의 참상을 말해주는 민족역사교육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12월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고, 1995년부터 유적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http://www.pow.or.kr/>).

마) 안보 사례 : DMZ

DMZ(Demilitarized Zone)은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닌 국가의 특정지역을 말한다(김창현, 2003).

DMZ내에 있는 땅굴은 초기에는 지하터널이라고 불렸다. 쉽게 부르기 위해 우리말인 땅굴로 바뀌게 된다. DMZ 인근의 땅굴은 4개가 발견되었다. 1974년 고랑포에서 동북방 8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첫 번째 땅굴은 폭 90cm, 높이 1.2m,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휴전선 남방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최전선에 위치하는 관계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제2땅굴은 1975년 3월에 발견되었다. 철원 북방 13km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이 땅굴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광장까지 갖추어져 있다. 출구는 세 갈래로 분산시켜 놓았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안보관광코스의 일부이다. 고석정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백마고지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으며 옛 철원 노동당사와 월정리역을 경유하는 코스가 있다.

제3땅굴은 1978년 10월에 발견되었으며 판문점 남방 4km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땅굴은 아치형으로 1시간에 3만 여명의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안보관광코스의 일부이다.

제4땅굴은 78년 이후로 더 이상의 땅굴이 발견되지 않다가, 1990년 3월 3일에 발견되었다. 양구 동북방 26km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 145m 깊이에 전체 길이가 2,052m나 뻗어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502m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DMZ을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평화공원', '평화시', 안보관광', '역사문화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현재는 안보관광코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연생태관광이 개발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진정한 평화의 지대로서 안타까웠던 이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리고 참된 평화의 의미와 통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인 통일의 터전으로 보존하고, 통일 이후에도 이 같은 가치를 부여하여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둔 관광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정진일, 2002).

바) 재난·재해 사례 : 안전체험관

서울안전체험관은 광나루체험관과 보라매체험관과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서울의 도심 생태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처능력을 배우며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하철사고 체험관, 우리나라 소방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방역사박물관, 리히터 규모 7.0의 실내 지진체험 및 붕괴되는 건물내에서의 대피, 규모 5.0 여진 등 지진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지진체험관이 있다. 태풍체험관은 최고 30m/s의 강풍과 비를 동반한 태풍의 위력을 체험하는 곳이다. 화재체험관은 대표적인 소방시설을 조작 및 실습할 수 있는 곳이다. 체험코스는 2시간 코스와 1시간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http://safe119.seoul.go.kr/boramea>). 4D 영상관의 경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각색하여 '막을 수 있었던 그날의 사고'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날 있었던 사고의 상황을 단순히 보여주고만 있을 뿐이다. 재해의 인과관계와 이러한 붕괴징후 발생시의 대처법 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각색으로 연계시켰다면 더욱 가치 있는 재난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윤영란, 2013).

4. 소결

국내외의 이론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원의 성격, 관광동기의 측면, 소비의 측면, 장소의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의 특징을 고찰하고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였다. 요인 추출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유형화와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고 핵심키워드로 함축하였다. 함축된 키워드를 비교분석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면 통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1차 이론연구에 의한 준거도출과정에서 18개의 구성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개의 구성요인을 키워드로 함축하고 공통요소를 통합하여 정리한 결과 다크 투어리즘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은 11개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해외사례는 사건의 측면에서 독립운동, 식민지 유산, 대규모 학살, 재난, 재해 등의 장소를 방문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방문행태의 측면에서는 공원의 형태, 기념물(시설), 묘지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의 기념시설과 한국의 기념시설을 비교해보면 전시 콘텐츠의 적합성을 떠나서 공

간의 위치와 구조물의 형식이 확연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양쪽 모두 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기념시설을 편하게 찾도록 할 것인가? 엄숙하게 방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죽음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역사해석과 전승을 위한 인식의 차이도 기념관과 콘텐츠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와 국내사례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해외 사례에서는 발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이다. 해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대인 학살과 연관된 홀로코스트 지역(기념시설) 방문의 형태가 그 예이다. 사건 자체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관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반대로 해외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국내 사례에서는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분단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거의 기억이란 측면에서는 해외의 전쟁유형과 유사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건지역 방문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DMZ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관련 유적이지만 분단이라는 특수한 국내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쟁지역 방문의 형태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분단 상황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제공되면서 안보 또는 평화관련 목적의 방문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내는 주로 기념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에서 유적지 순례(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한국전쟁 등 대규모 희생과 연관된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단순 재현과 함께 현대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조사되고 있다. 실물 유적을 볼 수 있는 잔존 유적지에 새로운 첨단 전시아이템을 보강한 교육·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재난 재해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체험형 시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대적인 매체를 적극 도입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교훈적인 내용과 상업적인 내용이 복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독립운동, 식민지 유산, 대규모 학살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방문객들이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Franklin's Footsteps Colonail Walking Tour) 제공, 역사 속 인물들을 기념공간에 배치하여 곳곳을 걸어다니며 방문객들과 소통하거나, 전쟁재현 이벤트를 지역의 축제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

역사유적의 보존 방식도 프랑스 중부 Oradour-sur-Glane에 있는 village martyr의 경우처럼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파괴되어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방문객들이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고 있다. 산티아고 요새와 같이 장소성의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또 다른 기념시설(묘지)을 이장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는 포트 아서 기념 정원(the Port Arthur Memorial Garden)의 경우처럼 추모 위원회를 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존치여부를 결정 짓기도 한다. 기념시설 내에서는 희생자들의 소지품들이나 예술품들을 토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서 아카이브 관리, 도서관, 교육을 위한 학교, 국제연구소 운영하고 있다.

공간 및 기념시설의 종류는 다양한 사건을 소재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기 보다는 추모와 기억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는 배경이 되는 역사소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실적 재현, 현재적 재해석, 연극적 요소도입, IT활용 등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역사유적의 보존과 활용의 결정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건의 현장에 대한 처리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형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 고찰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다크 투어리즘은 높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키나와 사례와 난징 기념관의 사례가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는 구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때문에 사건의 전개과정 또한 동일한 국민이 아니라 차별화된 국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전시내용도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전쟁의 참혹함과 아울러 오키나와 주민의 피해원인은 일본의 오키나와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난징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관계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대량학살의 책임 문제가 주요한 내용이다. 일본이 사건의 책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적 사

료를 바탕으로 원인 제공자를 입증하기 위한 전시와 실상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경우에 재현행사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기 때문에 재현행사가 축하의 의미로 개최되고 있었다. 즉 단일한 사건이지만 승자와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기념물 조성의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의 사례에서 사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개발 과정에서 장소성의 훼손을 우려하거나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장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는 기억의 보존과 죽음에 대한 추모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국민적 단합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장소가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크 투어리즘 장소는 교육공간, 상징공간, 문화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육공간은 다양한 유물전시와 유적지 보존을 통해 비극의 사실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 문화공간은 축제장소로 활용하거나 장소에 심미적인 건축양식이나 조형물이 도입돼 장소의 독창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교육공간과 상징공간에는 역사성과 사실성, 추모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문화공간, 상업공간에서는 심미성과 오락성, 쾌적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문화를 매개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과거의 비극적 경험을 축제로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체험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다크 투어리즘의 무거운 주제를 오락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방식인 가이드의 투어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 장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소별로 다크 투어리즘의 표적시장을 다르게 설정하여 장소의 성격을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공간은 희생자의 추모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획득의 목적이 강한 학생단체

및 외국의 인권운동가를 목표 대상으로 삼아 비극에 대한 본질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체계 확립

1. 유형화를 위한 속성 연구

관광지는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지는 관광객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관광서비스의 속성으로서 매력속성은 관광서비스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관광지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하는 관광객의 유인 요소로 자연적, 인공적, 역사적, 문화적인 볼거리를 말한다. 개인의 목적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은 목적지의 물리적 특성이 개인의 만족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매력성(attractiveness)을 고려하고 있다(김덕기·엄서호, 2000).

다크 투어리즘 또한 방문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과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련된 해외의 연구와 국내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개념 및 정의, 유형 등을 바탕으로 핵심키워드를 추출한 후 각각의 연구를 비교하여 공통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검출된 요인은 분류·통합의 과정을 거쳐 대표적인 속성으로 선정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으로 삼고자 한다.

Blom(2000)은 모비드 투어리즘을 재빨리 많은 수의 사람들을 유인하는 갑작스런 죽음에 중점을 두는 여행이라고 했다. 핵심키워드는 갑작스런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Rojek(1993)은 다크 투어리즘의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초래하는 명소들 또는 어두운 지점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런 개념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나 그 들의 무덤에 대한 상업적인

개발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Lennon and Foley(1996a; 1996b, 2000)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혹은 불시에 이루어졌든 아니었든 죽어가는 광경과 슬픔의 전시 혹은 재구성, 죽음의 해석에 중점을 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품화된 죽음과 재해 장소의 전시 및 방문자에 의한 소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핵심키워드는 갑작스런 죽음, 상업적인 개발, 상품화된 죽음과 재해의 소비라고 볼 수 있다.

Sharpley(2009)는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어떻게든 죽음, 재해 그리고 고통과 연관성 있는 장소들이나 이벤트들에 매혹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Beech(2000)는 그 장소들과 연관된 죽음관련 사건들의 최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방문자들의 경험들은 전시되고 있는 죽음·재해 이벤트들에 대한 지각된 적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른다. 핵심키워드는 이벤트, 지각된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Rojek(1997)은 국립 또는 시립묘지와 같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들로 구분했다. 핵심키워드는 향수를 불러오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Stone & Sharpley(2008), Stone(2009)는 가까운 또는 오래된 과거에 발발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잘 만들어진 장소나 이벤트가 미리 계획된 곳으로 방문, 동시대의 죽음과 재해가 있었던 장소로 향하는 센세이션 관광의 신속성과 자발성, 죽음과 의외의 장소들과 연관 있는 이벤트나 활동들을 해석하고 재창조, 죽음에 대한 관심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현대의 죽음에 대한 사유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는 신속성과 자발성, 해석과 재창조, 죽음에 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

Lennon and Foley(2000)는 다크 투어리즘은 뜻밖의 재미, 관광회사의 일정이나 그 근처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단순히 호기심에 찬 사람들로 인한 비목적의 방문에 기인한 현상인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다크 투어리즘의 반근대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은 죽음이나 재앙과 관련된 미디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죽음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핵심키워드는 비목적의 방문에 기인한 현상, 반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다.

Seaton(1996)은 다크 투어리즘이 중세시대를 거쳐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의 낭만주의 시대에 강화된 타나토픽전통(죽음에 관한 고찰)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특히 죽음, 그렇지만 온전히 불의의 죽음만은 아닌 것과 실제로 혹은 상징적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바람이 동기가 된 장소로의 여행이라고 정의하였다. 핵심키워드는 죽음에 관한 고찰, 상징적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8)은 순화해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매주 또는 격주로 하나씩 선정하여 제안어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다크 투어리즘을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을 역사교훈여행이라고 선정했다. 핵심키워드는 역사성, 교훈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근식(2006)은 기억의 보존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고 밝혔다. 핵심키워드는 기억의 보존이라고 볼 수 있다.

송재호·김향자(2009)는 민중의 표현, 사건에 대한 기념과 함께 인간으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역사기념공간이며, 삶의 의미와 인권, 그리고 역사적 현실을 토대로 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미래적 안목을 제공해주는 계몽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키워드는 계몽성이라고 볼 수 있다.

최영환·이혁진(2010)은 선택속성 측면에서 시설, 주변 환경, 서비스, 문화성 가운데 문화성이 가장 높고 문화성의 구성요인으로 프로그램, 다양한 축제·이벤트, 역사성, 인지도를 속성으로 제시했다. 노정연·조우제(2011)는 다크 투어리즘 관련 크게 시설, 주변 환경, 서비스, 문화성으로 대분류 하고 분석결과 대분류 가운데서는 문화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핵심키워드는 문화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숙영·조광익(2010)은 위험과 관련된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크 투어리즘 유형분류의 기준은 죽음이나 재난과 같은 리스크에 얼마만큼 관련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에 있어 위험이 상품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험의 장소가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핵심키워드는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장혜원 외(2011)는 다크 투어리즘 시설 방문동기를 역사성, 교육성, 일탈성, 유대성, 매력성 등 5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동기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물전시 관람이다.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교훈 등과 같은 교육적 측면을 중요하게 간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핵심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이해, 유물전시 관람, 역사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사현(2009)은 순례관광의 한 대상으로서 과거의 어두운 흔적들을 관광한다는 의미

에서 “암흔관광”(暗痕觀光)이라고 부르고 있다. 핵심키워드는 어두운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키워드를 추출하고 통합 분류의 과정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

〈표 III-4〉 다크 투어리즘 속성 추출

연구자	핵심키워드	속성
Rojek(1993)	갑작스런 죽음, 상업적인 개발, 상품화된 죽음과 재해의 소비	불시성, 상품성
Seaton(1996)	죽음에 관한 고찰, 상징적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바람	상징성
로젝(1997)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	장소성
샤플리(2009),Beech(2000)	이벤트, 지각된 적합성	지각성
Lennon and Foley(2000)	비목적적 방문, 반근대성	비목적성, 반근대성
Blom(2000)	갑작스런 죽음	불시성
정근식(2006)	기억의 보존	기억성
국립국어원(2008)	역사성, 교훈성	역사성, 교훈성
Stone & Sharpley(2008; Stone, 2009)	신속성과 자발성, 해석과 재창조, 죽음에 대한 사유	자발성, 창의성
송재호·김향자(2009)	계몽성	계몽성
김사현(2009)	어두운 흔적	장소성
최영환·이혁진(2010), 노정연·조우제(2011)	선택속성 측면에서 문화성이 가장 우선순위	문화성
한숙영·조광익(2010)	위험의 상품화	위험성
장혜원외(2011)	지역에 대한 이해, 유물전시 관람, 역사적 교훈	정체성

연구결과에 의해 추출된 속성은 상품성, 상징성, 지각성, 비목적성, 반근대성, 불시성, 기억성, 역사성, 교훈성, 자발성, 창의성, 계몽성, 장소성, 문화성, 위험성, 정체성이다. 모두 17개의 속성은 찾을 수가 있었다.

제시된 속성은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속성을 내용적인 유사성에 따라서 통합하여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12개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성, 창조성, 자발성, 비목적성, 반근대성, 불시성, 역사성, 교훈성, 장소성, 문화성, 위험성, 정체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된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을 〈표 II-5〉와 같이 12개로 제시하고자 한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5〉 다크 투어리즘 속성과 내포의미

1차 속성		통합속성	내포의미
상품성	➔	상품성	상업적인 개발과 상품화된 죽음, 재해의 소비로 유산자원이 관광상품으로 전환된다.
상징성, 창의성	➔	창조성	유산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지각성, 자발성	➔	자발성	관광자는 역사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찾아 나선다.
비목적성	➔	비목적성	우연한 기회의 방문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반근대성	➔	반근대성	죽음, 살상과 관련된 무기는 근대적인 문명의 발달에 기인한다.
불시성	➔	불시성	유명인의 죽음과 같이 갑작스런 죽음은 불시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기억성, 역사성	➔	역사성	역사 기억은 전승·보존된다.
교훈성, 계몽성	➔	교훈성	반인간적인 역사적 사건·사실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소성	➔	장소성	역사적 사건 발생 장소와 기념시설 장소는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과 장소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문화성	➔	문화성	역사는 당시대의 삶을 포함하며, 삶이 포함된 문화는 역사를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위험성	➔	위험성	현대 관광객은 모험을 찾아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이 발생한다.
정체성	➔	정체성	역사적 사건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2. 유형화 요인 검토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론연구에 의해 11개의 해외요인이 검출되었다. 국내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해외의 홀로코스트 사건 관련 장소 방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국내 사례에서 발견된 DMZ은 새로운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이론연구에서 검출된 상품화요인은 해외에서는 고스트체험이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업화 요인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명인 추모의 경우에도 국내 이론연구와 사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참사 유형은 내용상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는 재난·재해 유형과 통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

Ⅲ-6)와 같이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을 9개로 정리하였다.

〈표 Ⅲ-6〉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구성요인

구분		핵심요소	방문형태
제1요인	➔	전투·전쟁	전투나 전쟁 지역 방문
제2요인	➔	묘지·무덤	역사적인 사건 관련 묘지, 유명인 무덤 방문
제3요인	➔	대량학살	대량학살과 참사지역 방문
제4요인	➔	재난·재해	테러, 재앙, 자연재해지역 방문
제5요인	➔	식민지	식민지 역사관련 장소 방문
제6요인	➔	기념시설	역사적 사건 기념관, 인물 기념시설 방문
제7요인	➔	재현	형무소처럼 어두운 장소에서 연극 등을 통해 재현장소 방문
제8요인	➔	위협	위험한 장소 방문
제9요인	➔	안보(DMZ)	비무장지대 방문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제1요인(전투·전쟁) : 전투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역을 방문하는 요인으로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주로 한국전쟁과 연관성이 짙다.

나)제2요인(묘지·무덤) : 역사적인 사건 관련 묘지, 유명인 무덤 방문하는 요인으로서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된 요소는 식민지나, 한국전쟁, 민주화 관련 등 한국현대사의 흐름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유명인 무덤 방문 요인도 정치사적 측면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쉽게 볼 수 있는 연예인 관련 유형은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다)제3요인(대량학살) : 대량학살지역 방문 요인은 한국 근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제4요인(재난·재해) : 테러, 재앙, 자연재해지역 방문 요인으로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위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송례문 화재 사례,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마)제5요인(식민지) : 식민지 역사관련 장소 방문으로서 일제식민지의 유산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바)제6요인(기념시설)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관련 기념시설을 방문하는 행위이다. 전쟁, 대량학살, 재난, 식민지 등 추모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시설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사)제7요인(재현) : 죽음과 공포와 관련된 실제로 발생하거나 그것들이 묘사된 감옥이나 장소 등을 방문하는 요인이다.

아)제8요인(위협) :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위험한 행선지나 장소를 방문하는 요인이다.

자)제9요인(안보) : 비무장지대는 한국이라는 분단 상황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사례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휴전 상태에 놓여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에도 관련 요들이 발생하고 있다.

2. 전문가 조사

1) 델파이 기법 개요

(1) 델파이(Delphi)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본 절에서는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된 유형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의 해석을 통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형 제시 후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에 국내자원을 적용시켜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델파이 기법(Delphi-Technique)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는

기법이다(김경숙, 2001). 델파이 기법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계의 기술발전을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미래예측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설정 및 정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적용영역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정부나 기업, 학술연구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계획적인 예측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송영남, 2012). 델파이 기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으로 판단,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이종성, 2001).

델파이 기법에서의 전문가조사는 통상적으로 대면방식의 그룹 활동과 구별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명성을 보장한다. 둘째, 설문을 반복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 하게 하여 자신의 응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셋째, 전체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을 제시해 준다(김경숙, 2001).

델파이 기법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3~4회의 질문을 보내어 응답을 확보하며, 각 질문지는 개별 응답자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최윤미, 2002: 재인용).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조정함으로써 질문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되는 것이다(김병성, 1996: 재인용).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feedback), 응답자의 익명,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특징으로 갖는다(송영남, 2012).

델파이 기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통해 미래 예측,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 등을 이끌어내는 방법(오문향, 2013)으로 활용된다.

(2) 델파이 분석절차

델파이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설문내용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 구성과 조사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통한 사전 의견도출이 다른 질적 연구와 차이점은 집단토의를 이용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자료가 보다 유용

한 것일 때 더욱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Ffern, 1983 : 재인용).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 연구는 우선 연구목적에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목적에 대한 명료화는 계획세우기, 필요한 그룹의 수, 질문, 얻어진 정보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 등 전반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이혜원, 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비 구조화된 응답양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1차 단계는 탐색 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 도출을 위하여 선행 연구의 요인을 제시하고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시한번 개방형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차 설문을 조사 대상 전체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재평가 하도록 요청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차 설문조사의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고 합의 항목에 대한 리커트식 5점 척도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설문까지의 정성적 개방형 설문을 통해 구성된 사고의 정리를 위하여 정량적인 측정을 유도하였다.

사례 및 이론 검토	→	- 다크 투어리즘 유형 요인과 속성 도출
포커스 그룹 인터뷰	→	- 전문가 조사 취지 설명, 선행연구 결과 제시
전문가 선정	→	- 분야별 전문가 구성
제1차 조사	→	- 개방형 설문에 의한 의견 수용 / 요인 제시
결과 분석	→	- 설문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2차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제2차 조사	→	- 폐쇄형 설문지를 참여 전문가에게 제공
결과 분석	→	- 설문결과 해석을 바탕으로 제3차 설문지 작성
제3차 조사	→	- 2차 설문결과 피드백(전문가 의견을 수정 기회제공) - 제 3차 설문 조사 시행
유형 제시	→	-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제시 - 유형별 해석

〈그림 III-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2) 전문가 그룹 선정

(1) 포커스 그룹 선정 및 역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정형화 되지 않은 연구주제에 대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당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은 관광 관련 전문가 및 인문학 연구자 가운데 총 5명을 선정하였다.

5명의 포커스 그룹 선정 기준은 관광 관련 분야 2명, 인문사회학 분야 2명, 기념시설 관계자는 1명으로 정하였다. 각 분야별 선정 기준은 관광 및 인문사회분야는 박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기념시설 관계자는 기념시설에서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설명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는 개방형 설문지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앞서 요인추출과 관련된 연구과정을 설명하였다. 각 요인을 제시한 후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해외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Lennon and Foley, Dann, Seaton의 연구를 통합한 전투·전쟁요인, 묘지·무덤요인, 대량학살요인, 재난·재해요인, 상업화요인, 식민지관련 요인, 기념시설요인, 유명인 추모요인, 재현요인, 공포·위험요인, 참사요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또 국내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안보(DMZ)관련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차는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제시된 9개의 요인이 타당한가 여부를 물었다. 포커스 그룹의 토의결과 제1요인(전투·전쟁), 제2요인(묘지와 무덤), 제3요인(대량학살), 제4요인(재난·재해), 제5요인(식민지), 제6요인(기념시설), 제7요인(재현), 제8요인(공포·위험), 제9요인(안보, DMZ)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차 포커스그룹의 논의를 위하여 개방형설문지 구성안을 작성하였다. 9개의 요인이 적합한지와 각 요인별 속성을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설문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토의 결과는 최초 개방형 질문은 큰 카테고리만 정하고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속성을 요구하는 질문은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연구자의 의도가 과도하게 투영되어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전문가 그룹 선정

텔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이다(김형수, 1996 :재인용). 텔파이 기법이 전문가적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때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송영남, 2012). 본 연구에 있어서도 국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 전문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 전문가는 연구대상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이 다양하고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한 연구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크 투어리즘 현상의 특성상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시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전문가를 섭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사건과 장소 그리고 기념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학문분야, 관련 근무경력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사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그룹을 분야별로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참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역사 및 기념시설에 관한 연구자 중 유사연구 및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이 그룹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다크 투어리즘 관련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접학문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관광분야 연구자 중 유사연구 및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관광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구명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관광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건과 연관된 기관 및 단체, 해당 기념시설의 학예사나 연구사 등 관련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그룹은 관련 사건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유사사례를 습득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념

시설의 콘텐츠 개발과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자 가운데서 관광과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는 석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념시설 및 연구기관 종사자는 학예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석사 이상으로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 분야별 참여자를 구분하면 아래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전문가 그룹 분류

분류집단	분야	대상자수	비고
A	역사·사회학 등 인문학 연구자	12	유사 및 관련연구 경험자(5년 이상)
B	관광학 분야 연구자	9	유사 및 관련연구 경험자(5년 이상)
C	기념시설 및 연구기관 관계자	11	관련기관 5년 이상 근무자
합 계		32	

(3) 전문가 델파이 응답비율

32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1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응답을 보내왔으며, 2차 설문결과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응답을 보내왔다. 마지막 3차 설문결과는 총 24명의 전문가들이 응답을 보내왔다. 1, 2차 설문에 비하여 3차 응답자의 수가 증가한 것은 설문 대상자를 전 라운드의 응답자에게 한정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전문가를 기준으로 응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델파이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지난 라운드의 응답자에게 한하여 다음 라운드 질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좁혀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엄완용(2013), 오문향(2013)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연구나, 전문가가 희소한 경우 최초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문을 요청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의 내용인 다크 투어리즘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국내에 전문가가 희소하다는 점 때문에 최초 전문가 그룹을 대상을 기준으로 라운드별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III-8〉 전문가 응답 비율

분류집단	분야	대상자수	응답자수(비율)		
			1차	2차	3차
A	역사·사회학 등 인문학 연구자	12	8(66.7)	4(33.3)	11(91.7)
B	관광학 분야 연구자	9	6(54.5)	10(90.9)	5(45.5)
C	단체 및 기념시설, 연구기관 관계자	11	8(88.9)	8(88.9)	8(88.9)
합계		32	22(68.8)	22(68.8)	24(75.0)

1차 설문지의 경우 응답률은 68.%, 2차 설문지의 경우 응답률은 68.8%, 3차 설문지의 경우 응답률은 75.0%로 나타나 평균 70.9%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3) 델파이 분석결과

(1) 1차 설문 분석결과

제1차 개방형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려는 문제를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론연구 결과와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합의 도출된 요인을 제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도출된 요인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묻는 내용과 해당 요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요인을 신설하도록 제시했다.

〈표 III-9〉 개방형 설문지 요인 구성

요인	대상
제1요인	전투나 전쟁 지역 방문
제2요인	역사적인 사건 관련 묘지, 유명인 무덤 방문
제3요인	대량학살과 참사지역 방문
제4요인	테러, 재앙, 자연재해지역 방문
제5요인	식민지 역사관련 장소 방문
제6요인	역사적 사건 기념관, 인물 기념시설 방문
제7요인	형무소처럼 어두운 장소에서 연극 등을 통해 재현
제8요인	위험한 장소 방문
제9요인	비무장지대 방문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제8요인(위험한 장소)과 관련하여 위험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위험의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요인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차 폐쇄형 설문조사 문항에서 위험 요인을 제외하였다.

둘째, '제9요인(안보·비무장지대)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므로 제1요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요인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전투·전쟁요인은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안보는 분단 상황 이후 진행형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셋째, '추모행사 및 추념의례 참가 등은 별도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추모행사 및 추념의례에 참석하는 것은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어 별도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사건의 성격과 표현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때문에 요인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건과 방문행태로 분류하였다.

(2) 2차 설문 분석결과

제2차 설문지는 1차 개방형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요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과 방문행태가 섞여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분류 방식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구분하였다.

요인분류와 관련해서 1차 개방형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1개 요인(위험)을 제외하였으며, 사건과 방문행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원인과 배경을 포함함으로써 내용과 성격에 해당한다. 방문행태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가시적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니고 있으나 방문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들이다.

설문 구성 방식은 매트릭스형태로 구성하였다. 행렬이 교차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들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매트릭스 구성은 다크 투어리즘 사건을 기준으로 전투·전쟁 / 대량학살 / 재난·재해 / 식민지 / 안보의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방문행태를 기준으로 묘지·무덤 / 기념시설 / 재현장소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크 투어리즘 사건에 대한 요인은 5개가 있다. 각 요인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0〉 2차 설문지 다크 투어리즘 사건 구성 요인

요인	의미
전투·전쟁	승전과 패전의 의미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쟁지역 방문, 전문여행사에 의한 상품이 증가
대량학살	대량학살, 잔혹행위 등 죽음이 발생한 실제적 장소를 방문 높은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놓임
재난·재해	태풍, 참사 등 천재 또는 인재로 인한 지역을 돌아보는 것
식민지관련	식민지 역사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흡인하는 것
안보관련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6.25와 DMZ과 연관성이 높음. 시간적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나타남

다크 투어리즘 방문행태에 대한 요인은 3개가 있으며, 각 요인들이 지닌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1〉 2차 설문지 다크 투어리즘 방문행태 구성 요인

요인	의미
묘지·무덤	전쟁의 희생자와 유명인의 죽음 등을 기리는 묘지 방문
기념시설	죽음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여 기념적, 교육적, 반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
재현	역사적인 장소에서 투어와 예술을 통해 재현

2차 설문에는 총32명의 참여자 가운데 2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가장 높게 조사된 항목은 대량학살묘지무덤 요인이다. 전체응답자 가운데 100%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항목은 재난·재해재현장소 요인으로 4명만이 응답하고 있다. 전체 응답률 대비 50% 이상 선택되지 못한 요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전체 15개의 요인 가운데 제외된 요인은 재난·재해묘지, 재난·재해재현, 식민지묘지, 식민지재현, 안보관련 묘지 5개의 요인이다. 채택된 요인은 전투·전쟁묘지, 전투·전쟁기념시설, 전투·전쟁재현, 대량학살묘지, 대량학살기념시설, 대량학살재현, 재난·재해기념시설, 식민지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재현의 10개 요인이다. 이 가운데 묘지·무덤 요인은 상위의 개념인 묘지¹⁹⁾로 통일시켰다.

〈표 III-12〉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 추출 결과

방문행태 다크투어리즘 사건	묘지	기념시설	재현
전투·전쟁	전투·전쟁묘지	전투·전쟁기념시설	전투·전쟁재현
대량학살	대량학살묘지	대량학살기념시설	대량학살 재현
재난·재해		재난·재해기념시설	
식민지관련		식민지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		안보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재현
민주화관련	민주화관련묘지	민주화관련기념시설	

기타 의견 가운데 방문 장소에서 감옥(형무소)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국내 감옥(형무소)은 서대문형무소나 거제도포로수용소의 경우처럼 감옥 원형에 콘텐츠가 첨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념시설 요인으로 구분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전문가 의견 가운데 민주화 관련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에 의해서 제

19) 무덤 ; 송장이나 유골을 묻은 곳, 묘지 : 송장이나 유골을 묻고 봉분이나 비석을 세운 곳

시되었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회복을 위한 저항과정에서의 희생을 대량학살이라는 요인으로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연구이므로 국내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요인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 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기념의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19혁명, 3.15의거, 부마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사례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기념시설 방문자 수가 60만을 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관련 요인을 추가하였다.

〈표Ⅲ-1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 구성

번호	구분	방문행태
1	전투·전쟁묘지	전투와 전쟁으로 인해 조성된 묘지, 묘역, 묘비 조성 공간 방문
2	전투·전쟁기념시설	전투와 전쟁과 관련된 전시, 추모 등의 콘텐츠가 갖춰진 기념시설 공간 방문
3	전투·전쟁재현	전투와 전쟁과 관련된 재현장소 방문
4	대량학살묘지	대량학살로 인한 집단 묘지 조성공간 방문
5	대량학살기념시설	대량학살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 및 콘텐츠가 구축된 장소 방문
6	대량학살재현	대량학살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 및 예술적 재현장소 방문
7	재난·재해기념시설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전시, 추모 등의 콘텐츠가 갖춰진 기념시설 방문
8	식민지관련기념시설	일제강점기 관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전시, 추모 등의 콘텐츠가 갖춰진 기념시설 공간 방문
9	안보관련기념시설	분단 이후 발생한 안보관련 사건이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조성된 전시, 추모 등의 콘텐츠가 갖춰진 기념시설 공간 방문
10	안보관련재현	분단으로 인한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장소 방문
11	민주화관련묘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의한 희생자 묘지 방문
12	민주화관련기념시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장소, 기념관 등을 방문

(3) 3차 설문 분석결과

3차 설문지는 2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12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2차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다크 투어리즘 속성을 제시하여 적합한 속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속성들이 요인별 분포형태에 따라서 요인들의 성격이 분명해 질것으로 여겨진다. 설문지는 각 요인별로 12개의 속성을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중요한 속성을 선택하도록 작성하였다.

〈표 III-14〉 3차 설문지 속성과 의미

속성	의 미
상품성	상업적인 개발과 상품화된 죽음, 재해의 소비로 유산자원이 관광상품으로 전환된다.
창조성	유산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자발성	관광자는 역사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찾아 나선다.
비목적성	우연한 기회의 방문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반근대성	죽음, 살상과 관련된 무기는 근대적인 문명의 발달에 기인한다.
불시성	유명인의 죽음과 같이 갑작스런 죽음은 불시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역사성	역사 기억은 전승·보존된다.
교훈성	반인간적인 역사적 사건·사실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소성	역사적 사건 발생 장소와 기념시설 장소는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과 장소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문화성	역사는 당시대의 삶을 포함하며, 삶이 포함된 문화는 역사를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위험성	현대 관광객은 모험을 찾아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이 발생한다.
정체성	역사적 사건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3차 설문에는 총32명의 참여자 가운데 2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는 이론 연구와 사례연구에서 추출된 다크 투어리즘 속성들이 각각의 요인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차 설문조사결과에 의해 요인이 결정되었고, 3차 설문조사에 의해서는 요인들의 특

성을 결정짓는 속성이 각 요인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즉, 다크 투어리즘의 특징이나 성질에 해당하는 속성이 각각의 요인에 다르게 포함됨으로써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각 요인들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다크 투어리즘 요인을 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²⁰⁾

3차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5〉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과 속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구분		상품성	창조성	자발성	비목적성	반근대성	불시성	역사성	교훈성	장소성	문화성	위험성	정체성
전투전쟁 유형	전투전쟁 묘지	2.79	2.92	3.13	3.00	3.83	2.96	4.29	4.58	4.42	2.83	2.75	4.29
		0.88	1.06	1.12	1.18	0.92	1.16	0.62	0.58	0.83	1.01	1.07	0.75
	전투전쟁 기념시설	3.58	3.50	3.42	2.96	4.13	2.96	4.29	4.54	4.25	3.17	2.58	4.38
		1.06	0.93	0.83	1.20	0.68	1.16	0.69	0.93	0.94	0.92	1.06	0.71
전투전쟁 재현장소	2.54	3.54	3.75	2.96	3.96	2.63	4.58	4.58	4.25	3.13	2.54	4.21	
	0.83	0.88	0.85	1.20	0.81	0.71	0.50	0.83	0.90	0.99	1.02	0.83	
대량학살 유형	대량학살 묘지	2.63	2.96	3.54	3.46	3.67	3.33	4.42	4.63	4.63	2.79	2.58	4.08
		0.88	0.91	0.88	0.88	1.05	1.13	0.88	0.71	0.71	1.02	1.02	0.97
	대량학살 기념시설	3.29	3.83	2.96	3.25	3.13	2.75	4.33	4.42	4.08	2.96	2.67	3.96
		0.86	0.96	1.12	0.90	1.08	1.29	1.05	1.06	0.97	1.04	1.09	0.95
대량학살 재현장소	2.67	2.96	3.00	3.88	3.08	3.46	4.38	4.63	4.63	4.08	2.63	4.25	
	1.09	1.20	1.18	0.95	1.06	1.06	0.97	0.65	0.65	0.78	1.01	1.11	
재난재해 유형	재난재해 기념시설	4.13	3.67	3.63	2.54	3.25	2.96	2.96	4.54	4.13	3.96	4.42	3.13
		0.95	1.20	1.21	1.18	1.22	1.16	1.20	0.66	0.99	0.86	0.78	1.36
식민지관련 유형	식민지관련기 념시설	4.33	4.21	3.83	3.67	3.96	2.83	4.67	4.75	3.96	4.13	2.75	4.54
		0.87	1.10	1.17	1.31	1.00	1.09	0.76	0.44	1.00	0.95	0.85	0.78
안보관련 유형	안보관련 기념시설	3.96	3.88	3.58	2.83	3.08	2.79	4.00	4.54	4.08	3.67	2.67	4.29
		1.16	1.12	1.28	0.96	1.02	0.88	0.98	0.72	0.93	1.24	0.76	0.69
	안보관련 재현장소	2.79	3.96	2.88	3.96	3.83	3.54	4.29	4.42	4.33	4.04	2.79	4.17
1.02		1.04	1.12	1.04	1.09	0.98	0.95	0.78	0.76	0.86	0.78	0.76	
민주화관련 유형	민주화관련 묘지	2.79	2.96	3.58	3.17	3.63	3.75	4.00	4.58	4.29	2.83	2.63	4.17
		0.93	1.52	1.02	1.20	1.01	0.94	1.10	0.65	0.81	1.34	0.88	0.87
	민주화관련 기념시설	3.67	3.88	3.58	3.38	3.17	2.88	4.25	4.50	4.04	3.96	2.75	4.33
1.24		1.12	0.93	1.10	1.05	0.90	0.79	0.66	0.86	1.12	0.90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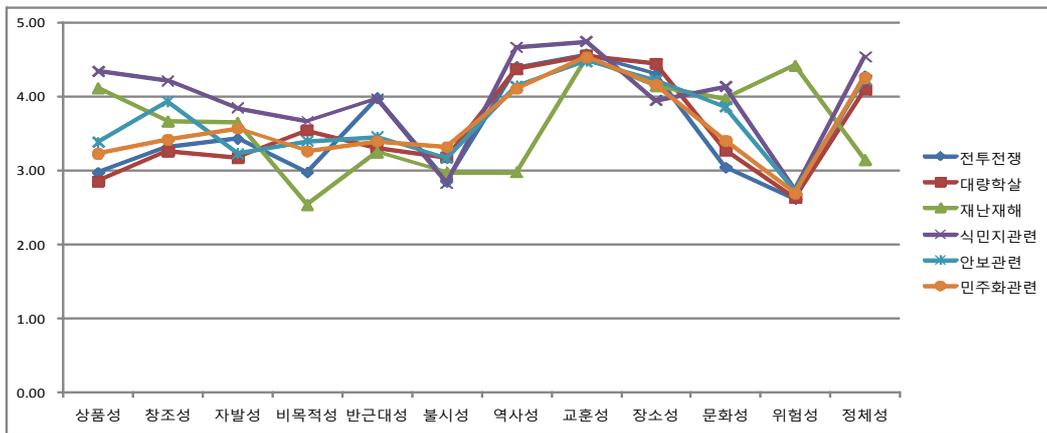
도출된 전체 평균값을 바탕으로 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20)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인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이나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반면에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일컫는다.

〈표 III-16〉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

구분	상품성	창조성	자발성	비목적성	반근대성	불시성	역사성	교훈성	장소성	문화성	위험성	정체성
전투전쟁유형	2.97	3.32	3.43	2.97	3.97	2.85	4.39	4.57	4.31	3.04	2.63	4.29
	1.02	0.99	0.96	1.17	0.80	1.03	0.62	0.78	0.88	0.97	1.04	0.76
대량학살유형	2.86	3.25	3.17	3.53	3.29	3.18	4.38	4.56	4.44	3.28	2.63	4.10
	0.98	1.10	1.09	0.93	1.08	1.19	0.96	0.82	0.82	1.10	1.03	1.01
재난재해유형	4.13	3.67	3.63	2.54	3.25	2.96	2.96	4.54	4.13	3.96	4.42	3.13
	0.95	1.20	1.21	1.18	1.22	1.16	1.20	0.66	0.99	0.86	0.78	1.36
식민지관련유형	4.33	4.21	3.83	3.67	3.96	2.83	4.67	4.75	3.96	4.13	2.75	4.54
	0.87	1.10	1.17	1.31	1.00	1.09	0.76	0.44	1.00	0.95	0.85	0.78
안보관련유형	3.38	3.92	3.23	3.40	3.46	3.17	4.15	4.48	4.21	3.85	2.73	4.23
	1.23	1.07	1.24	1.14	1.11	1.00	0.97	0.74	0.85	1.07	0.76	0.72
민주화관련유형	3.23	3.42	3.58	3.27	3.40	3.31	4.13	4.54	4.17	3.40	2.69	4.25
	1.17	1.40	0.96	1.14	1.05	1.01	0.96	0.65	0.83	1.35	0.88	0.86

유형별 평균값의 분포형태를 속성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상품성은 식민지관련유형이 가장 높고, 창조성은 대량학살유형이 가장 낮다. 자발성은 식민지관련유형이 높으며, 비목적성에서는 재난재해유형이 낮다. 반근대성은 전투전쟁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시성은 식민지관련유형이 낮게 조사되고 있다. 역사성은 대부분 높게 조사되고 있으나 재난재해유형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성, 교훈성, 장소성은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성은 전투전쟁유형이 낮고, 위험성은 재난재해 유형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체성은 대부분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재난재해유형에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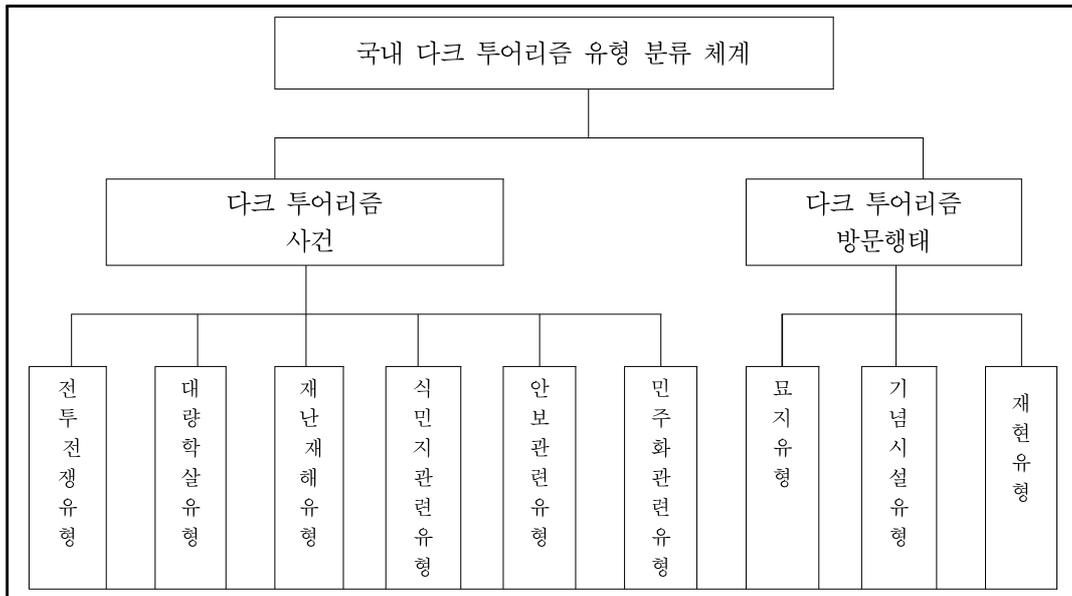
〔그림 III-3〕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속성 분포도

3. 유형화 체계 확립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은 앞서도 살펴봤듯이 해외에서는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사례와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유형에서 독창적인 요소는 안보관련 유형과 민주화관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은 9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다크 투어리즘 유형은 사건과 방문행태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사건 범주에는 5개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전투전쟁 유형, 대량학살 유형, 재난재해 유형, 식민지관련 유형, 안보관련 유형, 민주화관련 유형이 있다. 방문행태의 범주에는 3개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묘지 유형, 기념시설 유형, 재현 유형이다.

다크 투어리즘 유형이 분포하는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4]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분류 체계도

이들 각 유형에는 다크 투어리즘 속성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속성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세부적인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 사건의 측면에서 전투전쟁 유형에는 전투전쟁묘지 유형과 전투전쟁기념시설 유형, 전투전쟁재현 유형이라는 하위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대량학살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대량학살묘지 유형과 대량학살기념시설 유형, 대량학살재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재해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재난재해기념시설 유형이 있다.

식민지관련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식민지 관련 기념시설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관련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안보관련 기념시설 유형과 안보관련 재현 유형이 있다.

민주화관련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민주화관련 묘지무덤 유형, 민주화관련 기념시설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다크 투어리즘 방문행태의 측면에서 묘지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전투전쟁묘지 유형과 대량학살묘지 유형, 민주화관련묘지 유형이 포함된다.

기념시설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전투전쟁기념시설 유형, 대량학살 기념시설 유형, 재난재해기념시설 유형, 식민지관련 기념시설 유형, 안보관련 기념시설 유형, 민주화관련 기념시설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재현장소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전투전쟁재현 유형, 대량학살재현 유형, 안보관련재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 유형과 그 속에 포함되는 하위의 유형들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7〉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매트릭스

방문행태 다크투어리즘 사건	묘지	기념시설	재현
전투전쟁	전투전쟁묘지	전투전쟁기념시설	전투전쟁재현
대량학살	대량학살묘지	대량학살기념시설	대량학살재현
재난재해		재난재해기념시설	
식민지관련		식민지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		안보관련기념시설	안보관련재현
민주화관련	민주화관련묘지	민주화관련기념시설	

제4장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자원 적용과 해석

제1절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현황

1. 범위 및 용어의 정의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적용시켜 앞서 제시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화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개발된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분포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된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시된 유형에 적용하여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장소의 재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기념비와 기념관 또는 박물관이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지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는 장소성²¹⁾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유용하다.

기념관 또는 박물관은 조성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서 장소성이 분명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기념관이나 박물관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추상적이며 모호한 기억을 전형화 된 형식으로 재현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기념관이나 박물관 자체가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흔적, 기억을 조합하여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은유적이거나 다양한 상징, 이미지의 종합 등이 중첩되면서 감성의 자극을 통한 역사적 실체를 받아들이게 한다.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내 다크 투어리즘 관련 시설은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항일 및 독립과 관련, 6.25전쟁 관련, 민주화 관련, 종교 관련, 안보 관련으로 나

21) 최막중·김미옥(2001)은 장소성을 장소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눌 수 있다. 시설물이 설치된 형식에 따라서는 기념물, 비석, 분묘, 기념관, 공원, 예술 조형물 유형이 있다. 장소성의 측면에서는 역사적 사건 발생 장소와 재해석된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지닌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시설물을 유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과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관련 시설물들은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형태 또한 건축물, 비석, 무덤, 조형물, 공원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선행연구²²⁾와 법률에서는 기념시설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의 일종인 기념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2종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종 박물관에는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문화관 및 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60점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갖추고 1인 이상 학예사(curator)를 설립 기본조건으로 한다.

박물관은 ‘궁극적으로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인류에 의해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수집·보존·조사·연구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현충시설²³⁾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용어에 대한 개념, 지정과 해제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정리하여 보면 현충시설이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국가 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한태근, 201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념물은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

22) 사단법인 한민족연구소 2012학술회의 자료집 ‘전적기념물로 본 국가수호정신 고찰’ 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발간, 정호기(2007),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및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물)의 조사사업결과보고서” 2008년, 2009년.

23) 현충시설이라는 용어의 정립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기념물의 설치요구가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 공적비 설치를 지원하고, 2001년에는 참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어 영역이 독립운동 분야에서 국가수호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2012년 5월 현재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의하면 현충시설은 총 1,733개소로 이 가운데 독립운동 751개소 국가수호 982개소로 분류되어 있다.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며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시설정보서비스”, <http://narasarang.mpva.go.kr/hyunchung/intro/index.html>(검색일: 2012.5.112) 참조.

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적지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불리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전적기념물을 전시 또는 평시에 국난극복을 위한 행적 또는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행위를 보존하여 후세에 교훈으로 삼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거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유물 및 유적과 건조물, 조각품, 기념지역이다. 종류에는 기념관, 전적비, 위령비, 추모비, 현충비, 참전비, 충훈비, 공덕비, 전공비, 순직비, 동상 등이 있다(<http://www.epeople.go.kr/>).

탑은 3층 이상의 여러 층으로 또는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 사리 또는 유골을 안치하거나 특별한 영지(靈地)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로 만들어졌으며 본래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묻고 그 위에 돌이나 흙을 높이 쌓은 무덤이나 묘(墓)였다. 비(碑)는 한자말로 돌기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전적으로는 사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이나 쇠붙이, 나무 따위에 글을 새기어 세워 놓은 것을 말한다. 묘비와 공덕비 등이 대표적이다(이선웅, 2012).

기념비(탑)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탑), 추모비 :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기 위하여 세운 비를 말한다. 집단묘지라 함은 희생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안장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제주도, 2003).

이처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추모(기념)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국내의 역사기념 장소들은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다. 일반적인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과의 차이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고문장소, 근현대의 학살 및 참사현장 등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설이 기념관 형태로 건립되고 현장과는 거리가 먼 곳에 세워졌다는 특징이 있다(정호기, 2007).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에 따라서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유형별로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하고 시설물 건립 목적과 소비자의 욕구에 알맞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 자원 현황

자원 조사는 앞서 제시된 조사기준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서 제시된 사례 수집, 관광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내용 검색, 지자체의 관광홍보 안내 시설, 관련 법률에 의해 조성된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로써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사보고서에는 총 279개의 기념관련 시설이 확인되었다. 수도권에 103개, 충청권에 25개, 강원권 3개, 전라권 75개, 경상권 65개, 제주 4개로 조사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200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http://narasarang.mpva.go.kr>)에서는 전적관련 시설이 총 1,733개로 나타나고 있다. 사당, 장소, 조형물, 기념관, 동상, 탑과 비석, 기타의 것들이 있지만 총 982개의 현충시설 대부분은 탑과 비석 유형이며 기념관 유형은 59개가 있다.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천주교성지와 사적지가 264개소가 조사되고 있다(<http://www.paxkorea.kr>). 제주4·3과 관련된 유적은 597곳으로 조사되고 있다(제주도, 2005). 이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유적 및 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유형별 목록이 총 1,222건에 이르고 있다. 주로 사건별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연관된 지역을 별도로 추출하기 위해서 유해발굴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유해 매장 추정지 16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발굴대상지 39개소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7개 지역 사건에 대한 발굴이 완료되었다(60여년만의 안식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 보도자료, 2009년 3월 31일).

국내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자원의 분포 범위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진행된 개별적인 연구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원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에 국내자원을 적용시켜 유형연구에서

밝혀진 유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속성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개괄적인 현황만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의 목적이 유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자원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1>와 같다.

<표 IV-1>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현황

구분	출처				합계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진실과화해위원회	호국보훈시설	홈페이지	
자원수	111	11	79	96	297

자료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정호기(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8,2009),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물)의 조사사업결과보고서』, 보훈처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참조
연구자 재구성

제2절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의 유형 적용과 해석

1. 자원의 적용

본 절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로 제시된 다크 투어리즘 유형에 관련 국내 자원을 적용 시키고자 한다. 국내 자원의 성격에 알맞게 유형이 정립되었는지 여부를 적용결과의 해석을 통해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을 위한 자료조사 결과는 첨부와 같다. 첨부된 자원현황을 토대로 국내자원이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원사례를 정리하였다. 조사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부록 참조)이 유형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유형별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의 유형

에서는 해당하는 자원이 검출되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형별 자원분포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2〉 유형별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분포 현황

번호	유형		국내 다크 투어리즘 관련 자원
1	전투전쟁 유형	전투·전쟁묘지	국립묘지(서울, 대전)
2		전투·전쟁기념 시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철의삼각전적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다부동 전적기념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전쟁기념관
3		전투·전쟁재현	
4	대량학살 유형	대량학살묘지	광주5.18묘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망월묘지, 노근리평화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제주4·3평화공원
5		대량학살기념 시설	노근리평화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
6		대량학살재현	
7	재난재해 유형	재난·재해기념 시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서울안전체험관, 승례문
8	식민지 관련 유형	식민지 관련기념 시설	민족시비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만해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유관순열사 기념관, 제주항일 기념관,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이육사문학관
9	안보관련 유형	안보관련기념 시설	제4땅굴안보관, 통일전망대전시관, 강원DMZ박물관, 철원평화전망대, 이승복기념관, 제2땅굴기념관, 연화동안보공원
10		안보관련재현	
11	민주화 관련 유형	민주화 관련묘지	국립4.19묘지, 영락공원묘지, 망월묘지, 진주나동공원묘원, 마석 모란공원,
12		민주화 관련기념 시설	4.19혁명기념도서관, 3.15아트센터, 민주공원, 이한열 기념관, 박종철 기념관, 5.18기념관오월문학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10.16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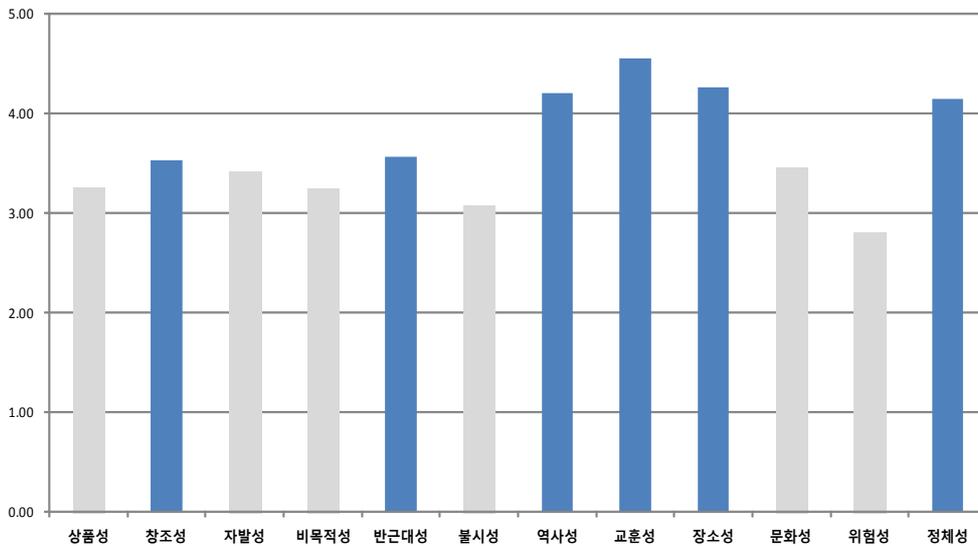
2. 적용결과의 해석

유형별 국내자원을 적용한 결과 일부 유형에서는 위의 〈표 IV-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로 재현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전투·전쟁재

현, 대량학살재현, 안보관련재현 유형이 해당된다. 이들 재현 요인이 사례로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추모의례 행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죽음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기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콘텐츠로 가공되어야 한다. 콘텐츠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공된 역사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현현상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재현관련 유형은 국내에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 적용 결과의 해석은 속성을 중심으로 다크 투어리즘 유형들이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상위 6개 속성과 하위 6개 속성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유형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해석된 특성은 관련 자원을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의 속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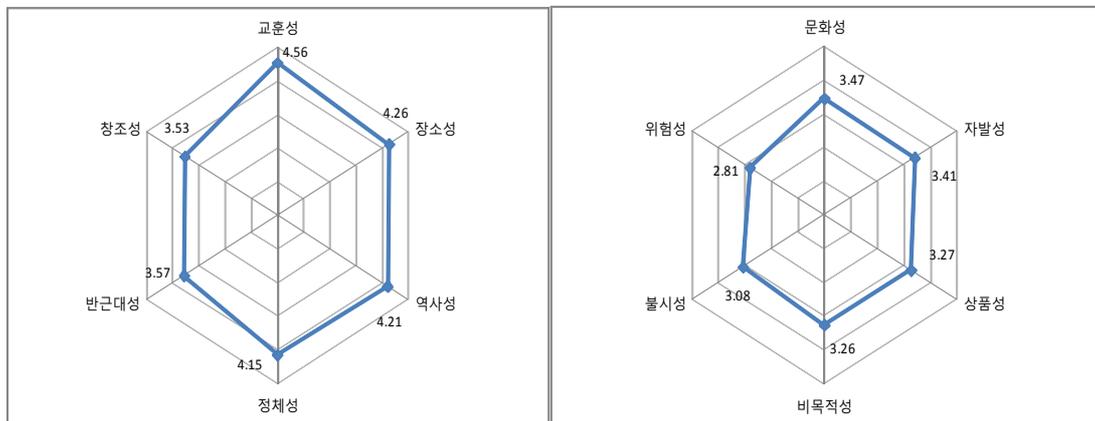


[그림 IV-1] 다크 투어리즘 속성별 평균 분포도(전체)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역사성, 교훈성, 장소성, 정체성이 전체적으로 상위그룹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교훈성은 12개 유형 모두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교훈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에 위험성은 재난재해기념시설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 요인 분류과정에서 해외 사례에서는 공포·위험장소로의 여행이 다크 투어리즘 요인으로 추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전문가 조사과정에서 제외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위험한 장소로의 여행이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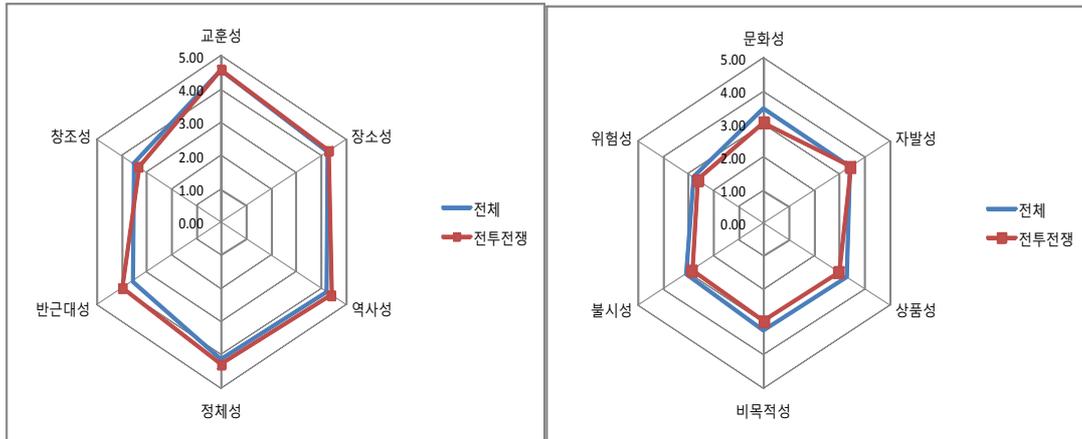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교훈성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속성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성은 재난재해 유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유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림 IV-2]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별 평균(상위/하위)

다크 투어리즘의 속성별 평균에서 상위그룹 속성 가운데서는 교훈성, 장소성, 역사성, 정체성이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 유형은 이들 4개의 속성에 의해서 일반적인 관광행위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4개의 속성은 다크 투어리즘을 대표하는 기본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그룹에 속하는 속성들에 의해서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들 간의 차별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 유형별로 속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유형에는 하위에 속하는 유형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림 IV-3] 전투전쟁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전투전쟁 유형에는 하위의 유형으로 전투전쟁모지 유형과 전투전쟁기념시설 유형, 전투전쟁재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투전쟁재현 유형은 국내에서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전투전쟁 유형의 특성은 상위그룹에 포함된 속성 가운데서 4개의 기본 속성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반근대성이 높게 조사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투전쟁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의 원인이 근대적인 무기체계의 발달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창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는 원인은 반근대적인 죽음에 대한 존엄과 성찰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역사의 사실적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역사의 사실적인 전달이 교훈성이나 장소성,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담겨져 있다.

하위그룹의 속성들 가운데서는 문화성이 제일 낮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상위그룹의 창조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재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와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만 엄숙한 추모 분위기에서는 문화적 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투전쟁 유형에서 기념시설에 해당하는 자원은 월정리역이 있다. 6.25 당시 평화의 기적을 울리다 폭파된 서울발 원산행 열차의 잔해가 남아 있는 곳으로 철원의 안보관광지 가운데 하나이다. 백마고지 전적기념관은 6.25전쟁 때 전개된 철의삼각지대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치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

해 건립된 기념관이다. 전투전쟁기념시설 유형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6.25전쟁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건립 동기나 목적도 다양하다. 전쟁기념관처럼 대한민국의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나 물품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서 옛 육군본부 자리에 건립한 경우가 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고 전세 역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전투전쟁 유형에서 묘지에 해당되는 자원으로는 국립묘지가 대표적이다.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병역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다. 전투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은 병역법이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사자가 안장되고 있다.

전투전쟁 유형 가운데 국내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있다. 이곳은 6.25전쟁 중 유엔군과 한국군이 사로잡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던 곳으로 1950년 11월에 설치된 전쟁유적지이다. 당시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포로 관리에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급수가 용이하다는 점, 포로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로 수용 규모는 처음에는 6만 명이었으나 나중에 2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유엔군 사령부가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분리 및 분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52년 8월까지 북한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거제도를 비롯하여 용초도·봉암도 등지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제주·광주·논산·마산·영천·부산 등지로 소규모로 분산 수용되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뒤 33일간에 걸쳐 거제도에 수용된 친공포로들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됨에 따라 포로수용소도 폐쇄되었다.

잔존 건물의 일부만 남아 있던 포로수용소 유적은 6.25전쟁의 참상을 말해주는 민족 역사교육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12월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

었고, 1995년부터 유적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총 6만 4224㎡의 부지에 조성된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부는 분수광장과 철모광장, 홍남철수작전기념비, 탱크전시관, 무기전시장, 당시 포로수용소의 배치 상황과 생활상 및 폭동현장 등을 재현한 디오라마관, 6.25역사관, 포로생활관, 극기훈련장, 포로생포관, 여자포로관, MP다리 등이 있다.

또 포로들 간의 사상 대립을 매직비전으로 보여주는 포로사상대립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간의 격돌 장면을 첨단 복합 연출기법으로 재현한 포로폭동체험관, 송환심사 과정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포로설득관, 포로수용소유적관, 포로수용소의 막사와 감시초소 등을 실물로 재현한 야외막사, 경비대장 집무실과 경비대 막사 그리고 무도회장 등 실물 유적을 볼 수 있는 잔존 유적지, 기념촬영코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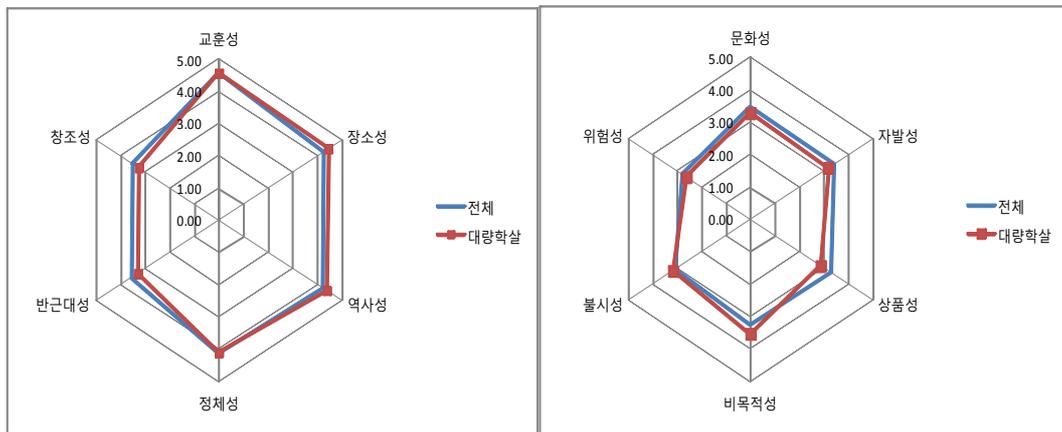
2013년 1월에는 유적공원 인접 옛 고현중학교에 새로운 첨단 전시 아이템을 보강한 교육·체험형 테마파크인 '포로수용소 평화파크'를 조성하였다. 포로수용소 평화파크는 부지 3만1570㎡에 평화탐험체험관, 4D 영상관, 평화전시관, 평화수호대, 어린이평화정원, 빛의 터널, 평화광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남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경우 4D상영관 및 다크라이드관 등 전쟁의 비극을 다양한 첨단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학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듀테인먼트형 체험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사격체험·착시미술·거울미로 등 다양한 체험요소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경남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6.25전쟁과 전쟁 포로를 테마로 한 세계에서 유일한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http://www.pow.or.kr/>).

전문가 조사결과는 상위속성 가운데서 반근대성이 높게 나타난 원인에 해당하는 자원은 국립묘지, 전쟁기념관처럼 추모의 공간 혹은 역사적 사실 재현공간들이 해당된다.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성도 낮게 분포하게 된다. 반면에 반근대적이고 반문명적인 사실을 일깨우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교훈성이나 장소성, 정체성은 강화시키게 된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낮게 분포했던 문화성이 오히려 높게 유지되는 현상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다른 전쟁관련 기념시설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

지만 ‘포로수용소 평화파크’가 개관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서면서 방문객들에게는 테마파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성이 높아 질 수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중점에 중점을 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화성이 낮아졌지만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는 콘텐츠가 들어서면서 문화성이 높았진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역사재현의 방식과 제공되는 콘텐츠에 따라서는 속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4] 대량학살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대량학살 유형의 세부 유형에는 대량학살모지 유형과 대량학살기념시설 유형, 대량학살재현 유형이 있다. 대량학살재현 유형은 국내에서는 관련된 자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량학살 유형은 상위속성에서 창조성과 반근대성이 낮고 장소성과 역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속성에서는 상품성은 낮지만 비목적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량학살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종이나 종교,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피학살자가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학살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근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창조성보다는 사건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소성이 높게 나타난다.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량학살 유형에 속하는 자원 가운데는 전남 구례 봉성산이 있다. 이 곳은 1948년 여순사건 연루자로 지목되어 구례경찰서에 유치돼 있던 민간인 약 70여 명이 경찰에 의해 총살당한 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은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확인된 곳으로, 약 3,000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산청 원리 및 외공리 산청 원리는 1949년과 1950년 국군이 빨치산 출몰과 관련해 작전수행 중 민간인을 학살한 곳이다. 외공리는 1951년 군인들이 10대 이상의 버스에 태우고 온 민간인을 집단학살해 매장한 곳으로 268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http://shchumo.sancheong.go.kr>).

대량학살 유형과 연관된 자원은 한국 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로 6·25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했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통 평화공원,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을 안치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북대 내에 개관한 추모관이다.

거창사건추모공원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일부 국군의 공비도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거창군에서 민간인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 조성되었다. 동일한 작전에 의해 거창사건 이틀전인 2월7일에는 산청·함양군 일대에서 주민 705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산청군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http://case.geochang.go.kr>).

대량학살 유형에서 묘지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은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대량학살과 관련된 묘지는 대부분 공원의 형식을 띄고 있다. 공원내부에는 추모시설과 함께 전시실이 갖춰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공간 구분은 묘역공간, 참배공간, 추모공간, 체험공간, 휴게 및 편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량학살 유형에서 기념시설과 관계된 자원 가운데는 제주 4·3사건의 대표적 희생터였던 북촌리 현장에 4·3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너븐숭이기념관이 있다. 이 마을은 4·3사건 가운데 단일한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면서 무남존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다. 때문에 기념관 야외에는 소설 '순이삼촌'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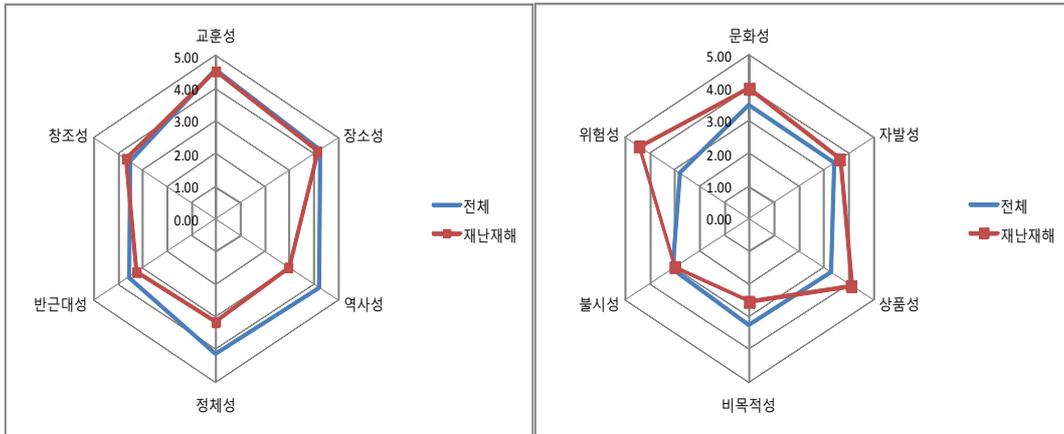
비가 세워져 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7월 충북 노근리에서 참전미군의 기총사격으로 희생당한 피난민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에 충북 영동군 횡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인근마을 주민들이 소개명령에 따라 이동하던 주민들이 미군 비행기 폭격 및 기총소사로 22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1960년대부터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와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2001년에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노근리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발표 내용은 노근리에서 생명을 잃은 한국 민간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전쟁 중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추모비건립 및 추모 장학 기금 설립, 한·미간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유족들은 사과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용거부를 선언했다. 미국 주관의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도 반대하였다 (<http://www.nogunri.net>).

이 공원은 2004년 제정된 노근리사건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희생자를 위형하며 인권 및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되었다(영동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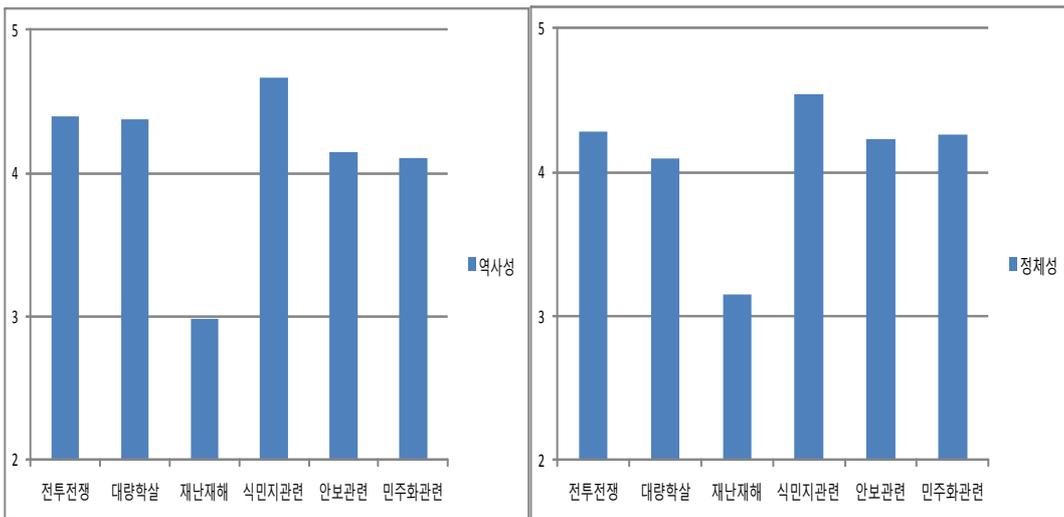
공원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노근리 쌍굴다리 옆에 조성되어 있으며 평화기념관, 위령탑, 조각공원, 야외전시장, 평화기원마당, 전망대, 교육관 등이 들어서 있다.

대량량살 유형은 상위그룹 속성에서 장소성이 높게 나타나는 너븐숭이기념관이나 노근리평화공원처럼 사건 발생인근에 시설물이 조성될 경우에는 역사성이 높아질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위그룹 속성에서 비목적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강은정(2011)의 'Dark Tourism 방문객의 체험연구 : 제주4·3평화기념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일부 방문객들은 이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는 방문동기가 방문객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강제성을 띄고 있기에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비목적성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IV-5] 재난재해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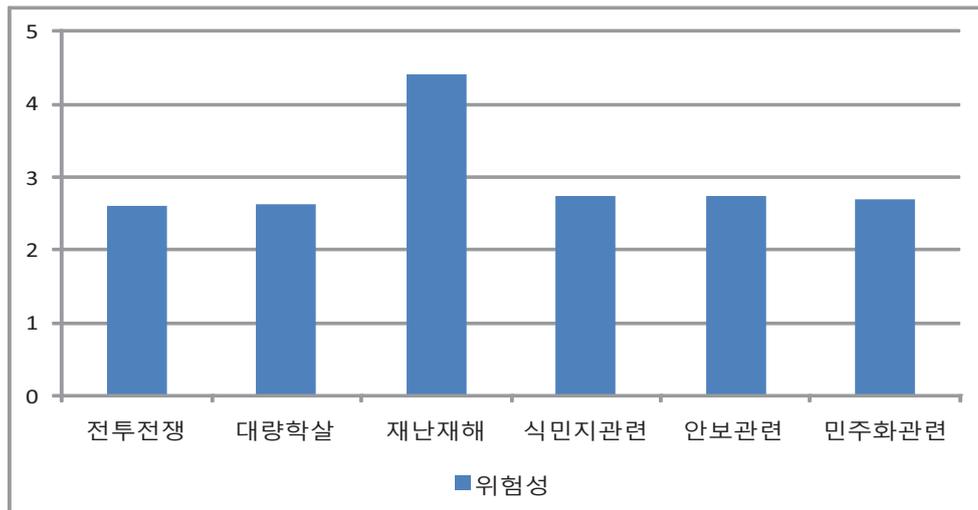
재난재해 유형은 다크 투어리즘의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사성이 매우 낮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 속성에서는 위험성과 상품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와 하위 그룹의 속성 모두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그림 IV-6] 역사성과 정체성의 유형별 분포 형태

역사성과 정체성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높은 분포도를 나타나고 있으나 재난재해 유

형에서만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성은 정체성보다도 더욱 낮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재난재해의 발생 시기가 역사로 기억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 오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 역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사고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V-7] 위험성의 유형별 분포 형태

또 다른 속성인 위험성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다른 어떤 유형보다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재난재해를 대표하는 속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노정연·조우제(2011)는 ‘대구·경북지역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안정성은 다크 투어리즘이 전쟁·학살 등 비극의 현장이긴 하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재난재해지역으로 방문하는 것은 실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요소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안전의 반대인 위험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타당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재해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는 많지가 않다. 국내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광에서의 KAL

기 추락사고, 2002년 태풍로사에 의한 대재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고의 발생은 우리가 얼마나 외상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최웅용외, 2004).

재난재해 유형의 자원 가운데 태안기름유출현장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5마일 해상에서 '허베이스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어장 등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승례문화재현장은 2008년 2월 방화에 의해 서울 승례문이 전소된 사건으로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인 대구 지하철 참사를 살펴보면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지하철 화재사고는 191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부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고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1079열차에 타고 있던 한 중년남자가 전동차 객실에 신나병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신나병으로 인해 1079호 전동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어 때마침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1080호 전동열차에 불이 옮겨 붙어 두 전동열차가 전소된다(백승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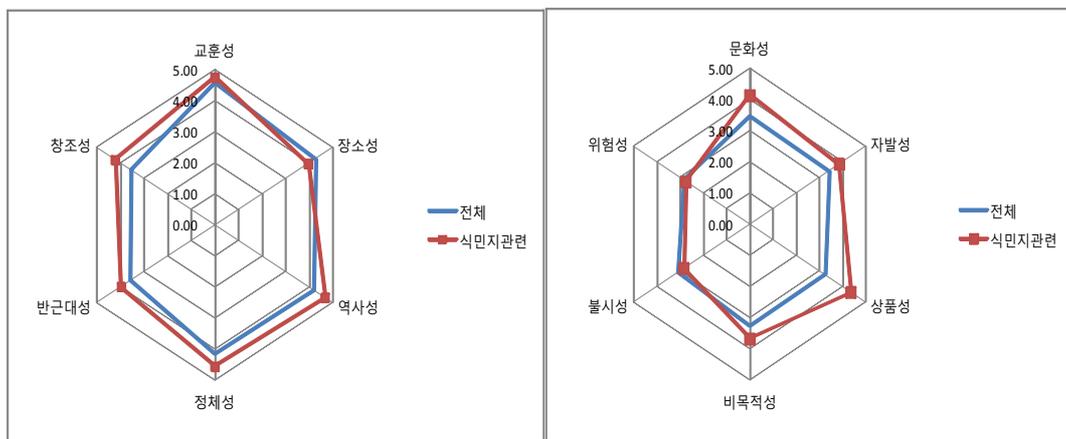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2008년에 조성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다. 2013년에는 2관을 개관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철안전체험장, 생활안전체험장, 미래안전영상관, 방재미래관 등이 있다. 야외에는 소방차량과 교통안전 등 야외전시·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련 상징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만의 특화된 공간으로 2.18지하철 참사에 대한 교훈을 얻고 가상의 지하철 상황에서 연기와 어둠속을 탈출해 보는 전시·체험공간이다. Intro2.18 재난타임머신에서는 4D영상 리프트에 탑승하여 2.18지하철참사 발생 전후를 영상으로 특수효과와 함께 연출하고 있다. 복원된 대구 중앙로 역사 화재현장 복원 모습과 전소된 자동차 1079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 탈출 코너에서는 가상의 지하철화재를 설정, 지하 승강장에서 계단을 통해 지상의 출구까지 탈출을 경험해 보는 체험공간이다. 안전진단 코너에서는 화재대피체험의 전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평가하고 다중시설 등 지하공간 안전을 진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2.18사고의 반성과 교훈을 얻기 위한 중앙로 역사를 향하는 외부조망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생활안전체험으로 산악, 산불, 폭우, 급류체험 등이 있다(<http://safe119.daegu.go.kr>).

재난재해 유형의 자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로 체험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크 투어리즘 속성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인 시설의 안전이 아니라 이성적인 지각 차원에서의 위험성이 높게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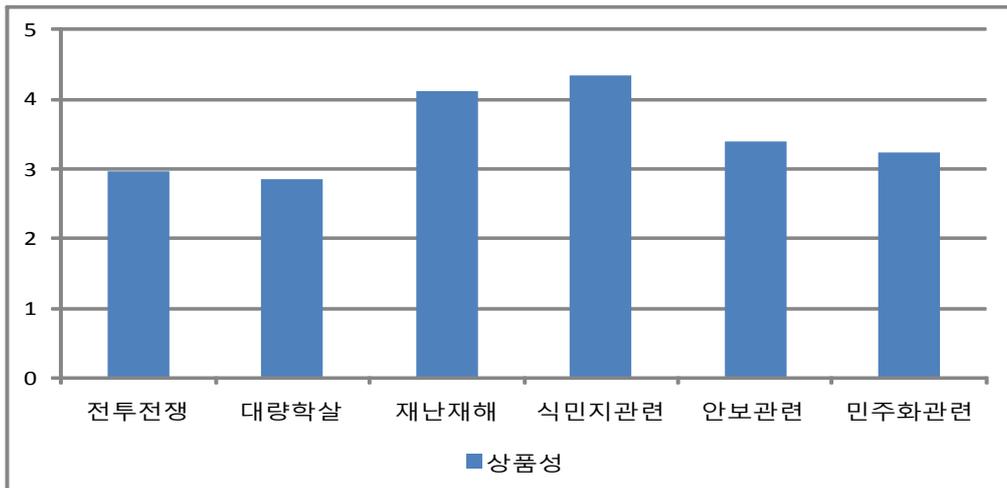
풍부한 잠재력을 보여준 재난관광은 그러나 피해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인해 그 다양한 성찰적 가능성은 축소되고 향후 단순한 '방재체험코스'로만 그 명목이 유지될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조아라, 2013)는 지적이 있다. 다크 투어리즘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재현요소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IV-8] 식민지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식민지관련 유형의 특성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위 속성 가운데 역사성과 정체성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속성과 맞물려 있는 창조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그룹 속성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값 보다 높게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장소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 하위그룹 속성에서는 상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속성인 문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민지관련 유형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와 관련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내재된 가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도 상품성 관련된 유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9] 상품성의 유형별 분포도(하위)

식민지관련 유형의 자원들은 시기적으로 한말 의병운동에서부터 내용상으로는 애국계몽운동, 3.1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장소의 측면에서도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관련된 자원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했던 백산상회를 세운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를 기념하기 위해 부산 중구에 건립한 백산기념관, 조국의 독립과 자주통일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 민족시인이자 항일투사였던 이육사를 기리고 흠어져 있던 자료와 기록을 보존, 정리하기 위해 경북 안동에 있는 그의 생가터에 건립한 이육사문학관, 유관순열사를 기념하고 그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충남 천안에 건립된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있다.

순례관광의 영역에 포함되는 발안 제암교회는 3.1운동의 순교지로서 순례 장소이다. 1919년 3월 1일 발안 장날을 맞이하여 기독교와 천도교인들이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일본군에 의해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마을의 성인남자를 예배당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이웃마을 천도교인들을 총살 했던 역사현장이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개관하면서 널리 알려진 서대문형무소가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서대문형무소란 이름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일제 식민지 시절의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대문형무소는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감옥이다. 한국현대사를 증언해 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일제 강점기 민족저항과 민족 수난의 상징이자 민주화운동의 열망이 깃든 곳이다.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감방의 태부족을 느낀 일제는 1907년에 서대문 밖 인왕산 기슭에 신식 감옥을 짓기 시작하였다. 사백팔십평 규모의 감방 및 부속건물, 팔십평 정도의 청사와 부속건물이 전부였다. 주위벽은 판자 위에 아연판을 두른 허술한 목조건물이었다. 이 신식감옥은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1908년에야 일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고, 다시 1923년에는 서대문형무소, 해방 직후에는 1945년에는 서울형무소,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변경되었다. 서울교도소의 기능이 미결 수감자 위주의 구치소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1967년부터 서울구치소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http://www.sscmc.or.kr/new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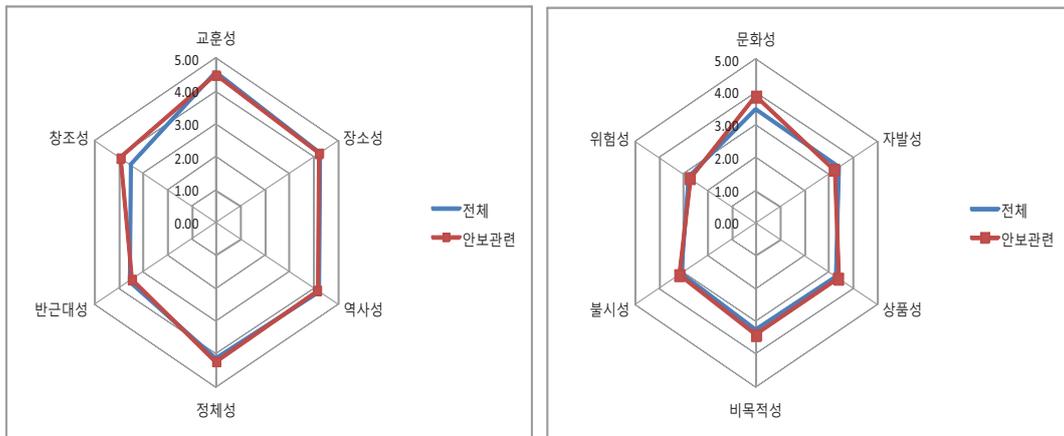
해방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 밤 사형수와 장기수형자들이 주동이 되어 형무소 문을 부수고 탈출하여 서대문형무소는 텅 비게 되었다. 이 때 철수준비에 나선 일본인 형무관들이 비밀서류와 탄압의 증거가 될 만한 수형기록, 사진 등을 소각해 버렸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비롯하여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등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삼일운동 직후에는 유관순열사를 비롯한 1,692명이 서대문감옥에 수감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투사나 열사, 애국지사나 사상가들에 대한 체포, 심문, 수감에 악랄한 고문과 혹독한 수형생활을 강요했다(리영희 외, 1988).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총 15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는 서대문형무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층 상설전시실에는 의병을 일으켜 저항했던 기록을 담은 민족저항실 I, 독립운동가의 수형기록과 추모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민족저항실 II가 조성되어 있다. 민족저항실 III은 3.1만세 이후 갖은 탄압

과 고초를 겪으면서 쟁취한 독립에 대한 염원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외에도 애국지사들에게 자행됐던 비인간적인 고문의 모습을 일부나마 재현하여 일제의 잔혹한 실상과 애국지사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옥사전시와 사형장, 유관순 지하감옥 등 야외전시를 하고 있다.

식민지관련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속성은 상품성이 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65만 명(외국인 67,000명) 이상이 방문했다는 사실은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문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경우 국가사적으로 지정(제324호) 되어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근대적 감옥이라는 요소가 건축학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생활사의 측면에서도 당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0] 안보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안보관련 유형에는 안보관련 재현 유형과 안보관련 기념시설 유형이 포함되고 있다. 안보관련 재현 유형은 관련된 자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안보관련 유형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자원이다.

안보관련 유형의 특성은 상위그룹 속성에서 창조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 그룹 속성에서는 문화성이 높고 오히려 위험성은 낮게 조사되고 있다. 안보와 위험은 동

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낮은 원인은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크 투어리즘의 기본속성에 해당하는 교훈성, 장소성, 역사성, 정체성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한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안보관련 유형도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으로서 독창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안보관련 유형은 안보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휴전상태의 아픔을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DMZ을 중심으로 안보관광 또는 평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안보관련 유형의 자원 가운데 통일전망대전시관은 분단의 아픔을 달래고 통일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에 건립된 전시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를 통해 금강산 전경을 볼 수 있다. 철원평화전망대는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한국 전쟁과 관련된 전시물과 비무장지대 사진,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사례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땅굴관련 자원이 DMZ내에 분포하고 있다.

강원도 통일안보전시관은 지난 1996년 9월 18일 북한 잠수함이 좌초되어 무장군인 26명이 안인대포동 앞바다에 침투했던 사건을 계기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사적으로 조성하였다. 인근의 등명낙가사에서 남쪽 1km 지점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최초로 상륙한 곳이기도 하다. 통일안보전시관은 300여 평의 넓은 전시관에는 국난 극복사, 6·25 매직비전, 침투장비 전시, 통일환경의 변화, 영상실, 정보코너 등의 시설이 있다(<http://www.gangwon.to>).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 유족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가운데 하나이다. 전시관 기념비,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전쟁에 사용되었던 각종 화기와 노획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쟁의 참상을 느끼게 해 주는 각종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노정연·이우재, 2011).

안보관련 유형에서 대표적인 기념시설로는 강원DMZ박물관이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DMZ의 자료들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 건립한 박물관이다. 2001년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방침 결정에 따라 2006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DMZ 박물관의 시설에는 전시관 다목적 센터, 생태 저류지, 야외무대, 전망쉼터, 대북방송시설 등이 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전시물이다. 여기는 각종 지뢰, 무기, 뼈라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재현물이다. 40m가 넘는 철책, 대성리 마을과 승일교, 철원 노동당사 등이 재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물인데, 체험물은 평화의 나무에 소원 카드를 다는 것이 해당된다(한명희, 2011)

이 곳의 전시 주제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육군중장이 유엔군사령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북한의 남일 육군대장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합동대표 단의 단장 자격으로 각각 정전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유엔군 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국 육군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도 정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6.25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하고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은 전문과 5조 63항의 정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던 전쟁은 중단되었다.

전시실 제1구역에는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라는 주제로 한국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등 종전과정을 소개하고, 제2구역에는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휴전 후 냉전지속 상황을 시대별로 표현하고 있다. 제3구역에는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DMZ내 역사와 생태학적 자연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제4구역에는 ‘다시 꿈꾸는 땅 DMZ’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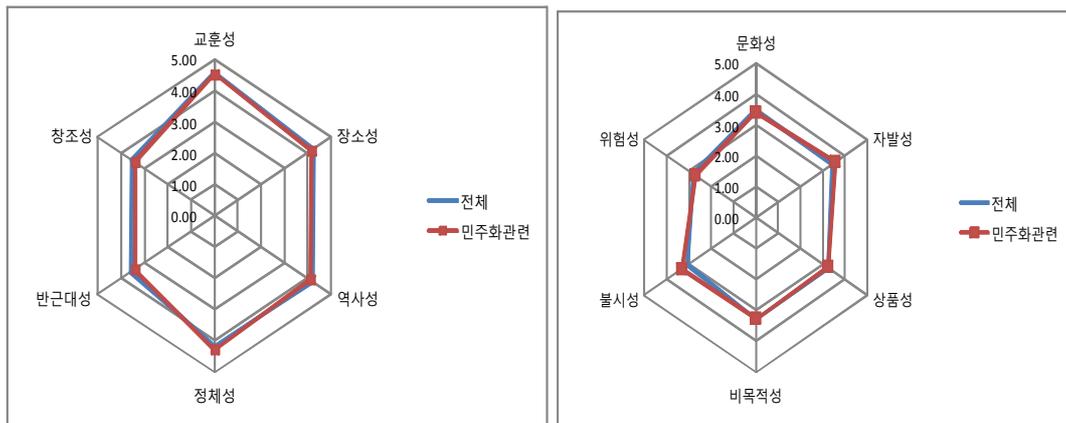
년간 15만 명이 찾는 이곳은 DMZ학생미술공모전, DMZ6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원도DMZ박물관은 설악권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안보관광의 필요성을 알리고 DMZ박물관의 역사적 탄생배경과 냉전유산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안보관광지(통일전망대, 화진포)와의 연계시켰을 때 나타나는 상승효과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관람객 유치증대는 물론 새로운 안보관광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안보관련 자원 적용에서는 상위그룹 속성에서 창조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땅굴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창조성이 높은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쟁은 근대적인 무기가 도입되면서 많은 희생을 낳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과학문명의 발달이 무기의

발달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과학의 기본은 상상과 창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창조성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다.

하위그룹 속성에서 문화성이 높은 이유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되고 공유되어 전달되는 생활양식이나 그 과정에서 생산된 정신적, 물질적인 요소를 총칭한다. 따라서 안보관련 자원은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많은 부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냉전이라는 지속되고 있는 역사현장을 확인 한다는 사실과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낮게 조사되는 원인은 안보관광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안보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관광은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움을 요구한다. 관광객에게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정신 결속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통제되는 상황하의 특수 자원에 대한 탐방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형탁, 1997). 이처럼 통제되는 안보관광의 성격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조건이 안전하다는 사실보다는 통제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안보관련유형에서는 태생적으로 위험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림 IV-11] 민주화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민주화관련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민주화관련 묘지 유형과 민주화관련 기념시설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관련 유형의 특성은 상위그룹 속성들 가운데서 교훈성이 높고

반근대성과 창조성이 낮게 분포하고 있다. 이 점은 상대적이지만 민주화관련 사건이 대량학살이나 전투전쟁 유형에 비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그룹 속성에서는 변별적인 요소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호기(2002)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은 사건이 발생한 공간을 매개로 지역화 되거나 특정한 시기와 공간의 사건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게 유리한 기억을 혹은 무기억을 유도하고 전국화를 차단하려는 전략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활발한 기억투쟁이 일어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현희(2012)는 5.18사적지 장소평가결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미비하고 공간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5.18사적지의 수요조사결과 관광지로서는 볼거리, 체험거리, 박제화 된 공간 디자인 등의 문제가 골고루 지적됐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5.18사적지에 장소마케팅을 도입해 장소의 심미성과 오락성, 체험성 등을 높여 문화관광형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책적(전략적)인 차원에서 전국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이해력이 낮고, 콘텐츠의 부재가 방문동기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다크 투어리즘 유형에서도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관련 유형 자원에서 묘지 자원은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가 있다. 민주화 관련 인사들 가운데 국립묘지 이외에 집단으로 안장되면서 묘역이 조성된 사례로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영락공원묘지와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선여덟 명의 민주인사와 희생자들을 안장한 마석 모란공원 등이 있다.

대표적인 묘지 자원으로는 국립5.18묘지가 있다. 1993년 대통령특별담화 묘역조성 발표가 있고난 후 1994년 묘역공원에 조성에 착수하여 1997년에 완공되었다.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장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 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자(합장)가 대상이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진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은 크게 5.18묘지, 5.18자유공원 및 5.18기념공원, 전남 도청 및 도청 앞 기념광장, 사적지 보존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민주화 운동의 재현공간들과 달리 원초적 사건의 현장이거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들이다.

주요 재현공간들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집단묘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상징조형물 혹은 기념물이다. 엄밀하게 보면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집단묘지는 두 번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한 군사정권이 사건 종료 직후 만들었던 망월묘역이고, 두 번째는 국가에 의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5.18묘지이다. 현재 5.18묘지의 범주에는 망월묘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다. 두 집단묘지의 조성 주체는 모두 국가이지만, 상이한 묘지의 양상은 국가에 의한 역사적 사건의 재평가와 사망자들에 따라 기념 및 대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18묘지의 구조와 조성 원리에 대한 비판은 최근 들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직접적 피해자들은 한번 조성된 공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모공간의 의미에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간과 시민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휴게 공간 및 참배객의 참여 공간 등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공원 개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호기 2002).

주요 시설물로는 묘역과 조형물, 5.18추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방문객은 62만 명(2013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5월 행사기간 방문객의 전체의 50% 정도인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추모를 위한 방문과 함께 체험관 프로그램과 영상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화관련 유형에서 기념시설들은 대부분 사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건은 4.19, 3.15, 5.18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4.19혁명기념도서관은 1960년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자리에 4.19혁명 희생자 유족들이 건립한 도서관으로, 4.19혁명의 이념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3.15아트센터는 3.15부정선거에 대항해 마산 학생들과 시민들이 벌인 3.15의거를 기념하여 마산에 세워진 문화공간으로, 공연장과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한열 기념관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건립된 기념관이다.

민주화관련 유형에서 대표적인 기념시설로는 부산민주공원이 있다. 부산의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림과 아울러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표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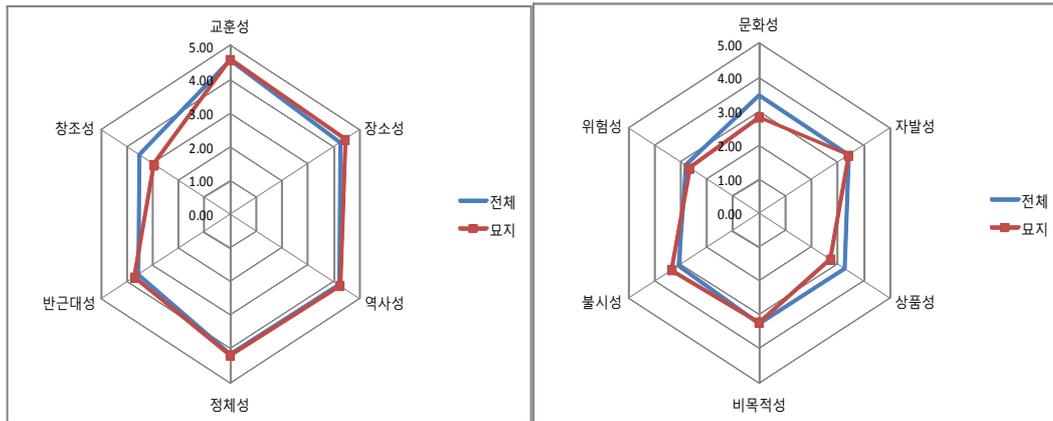
부산민주공원 설립 과정은 국내의 다른 기념시설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하게 된다. 19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개관준비를 위한 공청회와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1999년에야 개관식을 하였다. 개관 이후 민주공원 위탁계약 체결에 의하여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또한 국내의 다른 기념시설들과는 다른 절차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민주공원은 기념관을 향한 축선을 일직선상으로 설정하지도, 좌우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지도 않았다. 상징물과 기념관은 수직적으로 돌출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하였으며, 가능한 산이 등고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거의 모든 재현공간들에서 하나같이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건축양식도 강요되지 않았으며, 어디서나 빠지지 않고 확인되는 부조도 계획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앞선 민주화 운동의 재현공간들을 방문한 후 논의를 통해 생략했다. 활용도가 낮은 건물이 아닌 항상 현재적인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갖추었던 것이다(정호기, 2002).

이 곳 방문객은 연간 3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으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연장과 자료 보존실이 내부에 갖추어져 있다. 기념관 밖에는 장승터, 야외극장, 추모조형물, 민주촛불과 램프, 전망대, 4.19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관람과 더불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연간 40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석인원도 기획전시나 어린이 책 잔치 처럼 1만 명을 넘는 행사에서부터 학술대회 같이 50명 내외가 참석하는 행사 등 다양하다. 행사의 유형은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부산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리·계승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내부자료, 2012년 기준).

이상으로 사건에 따른 6개 유형의 특성을 살펴봤다. 각각의 유형들은 차별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유형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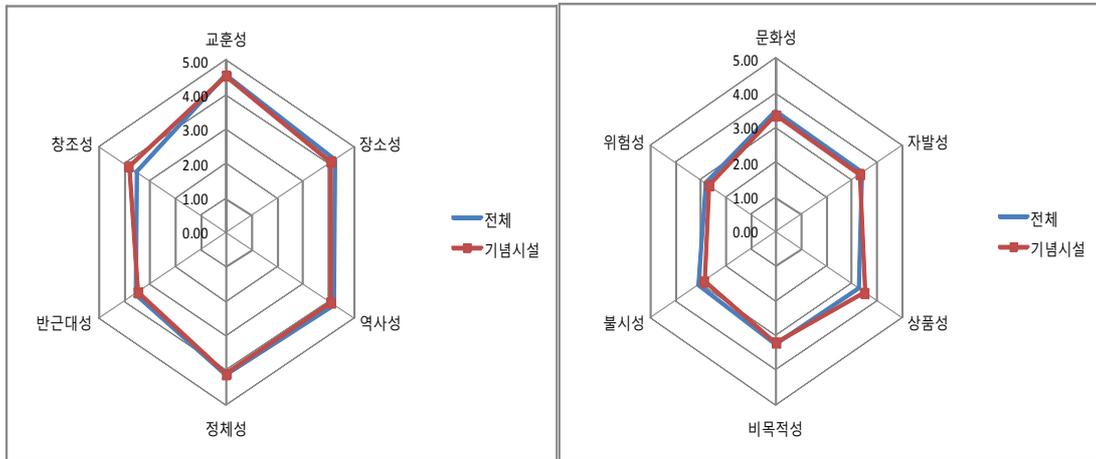
방문행태에 따라서는 어떤 속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문행태에 따른 유형은 묘지관련 유형, 재현장소관련 유형, 기념시설관련 유형이 있다.



[그림 IV-12] 묘지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묘지 유형의 하위유형에는 전투전쟁묘지 유형, 대량학살묘지 유형, 민주화관련묘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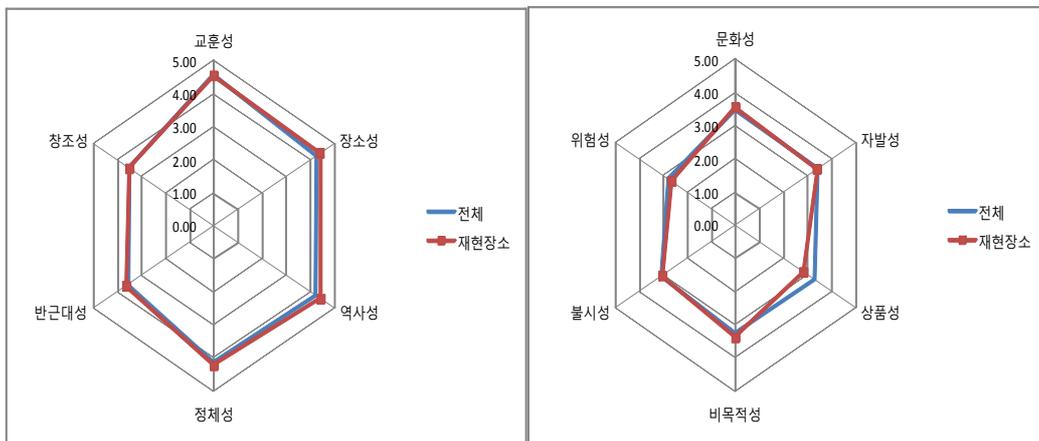
묘지 유형의 특성은 상위그룹 6개 속성의 분포형태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기본속성에 해당하는 4개의 평균값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창조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그룹에 속하는 6개 속성은 문화성과 상품성이 낮고 불시성이 평균값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묘지공간의 경우 추모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창조성, 문화성, 상품성 모두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우연한 기회의 방문과 같은 불시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3] 기념시설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기념시설 유형의 하위유형에는 전투전쟁 기념시설 유형, 대량학살 기념시설 유형, 재난재해기념시설 유형, 식민지관련기념시설 유형, 안보관련 기념시설 유형, 민주화관련 기념시설유형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사건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전시물을 중심으로, 실내 공간이라는 특성이 속성에도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시와 관련된 창조성과 상품성이 높고, 실내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시성이 낮은 이유는 안정적인 실내 공간일지라도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방문보다는 우연한 기회의 방문이라는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IV-14] 재현관련 유형의 속성(상위/하위)

재현관련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전투전쟁재현 유형, 대량학살재현 유형, 안보관련재현 유형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공간의 재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적인 콘텐츠가 진행됨으로써 역사성을 획득하는 사례를 말한다. 특성을 살펴보면 상위그룹에서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재현될 경우 사건이 지니는 본질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그럼으로 인해 상대 속성인 상품성이 낮은 분포도를 형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크 투어리즘의 유형별 주요 속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V-3] 과 같다.

[표 IV-3]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주요 속성

구분	유형	기본속성	유형별 특성	
			상위속성	하위속성
사건	전투전쟁유형	교훈성 장소성 역사성 정체성	반근대성 ↑	문화성 ↓, 창조성 ↓
	대량학살유형		장소성 ↑	비목적성 ↑, 상품성 ↓
	재난재해유형		정체성 ↓, 역사성 ↓	위험성 ↑
	식민지관련 유형		역사성 ↑, 정체성 ↑	상품성 ↑, 문화성 ↑
	안보관련유형		창조성 ↑	문화성 ↑, 위험성 ↓
	민주화관련유형		반근대성 ↓	-
방문행태	묘지유형		창조성 ↓	불시성 ↑, 문화성 ↓, 상품성 ↓
	기념시설유형		창조성 ↑, 상품성 ↑	위험성 ↓, 불시성 ↓
	재현유형		장소성 ↑, 역사성 ↑	상품성 ↓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은 9개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의 측면에서는 6개의 유형이 있으며, 방문행태의 측면에서는 3개의 유형이 있다. 이들 9개의 유형 밑에는 세분화된 12개의 하위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9개의 다크 투어리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전투전쟁 유형은 전투와 전쟁과 관련된 전시, 추모 등의 콘텐츠가 갖춰진 기념시설 공간 및 묘지를 방문하는 행태이다. 상위속성에서는 반근대성이 높고, 하위속성에선 문화성과 창조성이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2) 대량학살 유형은 대량학살을 추모하기 위한 묘지, 전시 및 콘텐츠가 구축된 장소

를 방문하는 행태이다. 상위속성에서는 장소성이 높고 하위속성에서는 비목적성이 높지만 상품성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재난재해 유형은 문명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방문하는 행태이다. 상위속성에서는 정체성과 역사성이 낮으며, 하위속성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식민지관련 유형은 일제강점기 관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방문하는 행태이다. 기념관을 비롯해 문학시비, 공원 등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기념시설유형과의 차이점은 문화 및 콘텐츠의 활용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상위속성에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모두 높게 분포하며, 하위속성에서는 상품성과 문화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 안보관련 유형은 분단 이후 발생한 안보관련 사건이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념시설 및 공간을 방문하는 행태이다. 발생 시기의 측면에서 분단 이후라는 분명한 시간성을 갖고 있다. 상위속성에서는 창조성이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위속성에서는 문화성이 높고 위험성은 낮다.

(6) 민주화관련 유형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장소,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행태로서 기념관은 주로 사건별로 나누어서 건립되어 있다. 반근대성이 낮은 게 특징이다.

(7) 묘지 유형은 민주화운동이나 대량학살, 전투전쟁과 관련된 추모의 공간으로서 묘역을 방문하는 행태이다. 상위속성에서는 창조성이 낮으며, 하위속성에서는 불시성이 높고 문화성과 상품성이 낮다.

(8) 기념시설 유형은 추모와 교훈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각종 기념시설을 방문하는 행태이다. 공원형, 공원혼합형, 예술관형 등이 있다. 국가에 의해서 인정된 공식적인 기념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위속성에서는 창조성과 상품성이 높고, 하위속성에서는 위험성과 불시성이 낮다.

(9) 재현 유형은 다크 투어리즘의 사건과 관련된 재현행사가 발생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행태이다. 상위속성에서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높은 반면에 하위속성에서 상품성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시대적 기원은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기 보다 후기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광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위험도 관광 상품화 되고 있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가 뉴욕의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등장하였다. 영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현금 강탈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이 판매된다. 중국에서는 사천성 지진 현장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위험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한숙영 외 2010).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순례관광은 역사관광의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 어두운 이미지 장소로의 여행이라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객처럼 희생(순교)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순례관광은 역사현장, 성인묘소, 성당, 기념탑, 수행자들 활동지, 신성시된 자연경관, 순교지 등 순교관련 기념탑 등을 찾아 관광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사건발생 장소를 방문하거나 순교와 같은 집단희생장소 방문행위 등 다크 투어리즘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순례관광이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면 다크 투어리즘이 추구하는 어두운 장소와 역사적인 장소 방문을 통해서 교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속성들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방문대상의 측면에서 순교지를 방문하는 행위는 다크 투어리즘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와 순례의 종교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의 방문대상인 어두운 이미지 장소자산 방문과 순례의 방문대상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산관광의 범위에는 인문경관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역사를 재창조하고 재현하는 것과 자연경관, 전승예술 등 무형적 유산을 포함한다. 국내 유산관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처럼 일제강점기 형무소를 역사관으로 재현한 사례,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경우처럼 전쟁과 관련된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산관광과 다크 투어리즘의 연관성은 역사적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나 관련된 기념물, 또는 재해석된 콘텐츠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요소가 중첩되어 있다. 다크 투어리즘 대상 가운데 식민지 유산과 관련된 요소는 유산관광의 영역에도 포함되고 있다.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과 유산관광도 일부의 영역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안보관광자원은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통제와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제한적 요소가 있다. 안보관광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판문점관광, 통일안보전시관방문, 다부동 유족기념관, DMZ박물관처럼 6.25전쟁과 연관된 장소와 기념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 가운데 전쟁지역방문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론연구와 유사관광을 검토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중세의 순례와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되었으며 높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교육지향적이고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석을 지향한다. 인간애에 반하는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의 소비상품화를 통해서 성찰을 이끌어 낸다.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대비되는 특징이 있으며 매우 어두운 장소나 어두운 장소를 찾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짧은 시간에 전쟁터 등 역사현장이나 재해석된 콘텐츠·죽음·비극·고통이 깃든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이다.

유형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을 고찰하고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론연구에 의한 준거도출과정에서 18개의 구성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사한 요인을 통합하여 11개의 구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성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속성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들에

내재하는 속성에 의해서 유형의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속성 도출 방법은 이론연구를 검토하여 각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개념 가운데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속성은 12개로 집약할 수 있었다.

유형화를 위한 구성요인은 11개의 요인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사례가 검출되지 않는 요인을 제외하고 이론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국내요인을 추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한 요인은 9개로 정리하였다. 도출된 9개의 요인은 3차 전문가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각 요인들에 포함되는 속성을 파악하였다.

요인은 사전적 의미로서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이나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를 말하고,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건의 성립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요인에 다크 투어리즘의 특성이나 성질에 해당하는 속성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요인들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3차 설문조사결과에 의해 각각의 다크 투어리즘 요인을 다크 투어리즘 유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다크 투어리즘 속성이 포함된 9개의 유형에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적용한 결과, 유형별로 속성의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 관련된 자원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각 유형들에 대응하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국내 다크 투어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성을 중심으로 장소성, 역사성, 정체성이 기본속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형마다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면서 차별화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났던 위험과 공포 사례, 유명인 묘지방문 등은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사건과 맞물려있는 기념시설, 기념비, 묘지 유형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다크 투어리즘장소 방문행태가 해외만큼 다양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현행사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의 경우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한 형태로 블랙 메탈(Black Metal)까지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유형의 차별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크 투어리즘이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여 국내의 여건에 맞는 다크 투어리즘 유형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개념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관광은 단순히 오락적인 유희의 범위를 벗어나서 본래 지니고 있던 문물을 배우고 삶을 살찌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체득하기 위한 상품개발 노력과 실제 상품으로 개발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는 부정적인역사기억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이미지 장소, 부정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광행위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다크 투어리즘 속성과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외의 이론과 사례는 국내의 연구 성과와 현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해외의 사례에서는 찾을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사건발생 현장 방문 유형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전문가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자는 이전 라운드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음 단계의 설문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조사방식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 집단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라운드마다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관련 연구가 일천하여 개념적인 연구에 머물렀다.

향후 해외연구와 비교하여 미진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국내 상황에 알맞은 다크 투어리즘 이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죽음을 대하는 동서양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에 다크 투어리즘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방문행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형에는 있으나 국내 유형에 포착되지 않는 사례는 이와 같이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또한 정량적인 연구와 아울러 정성적인 연구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사회학이나 역사학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연구 방법과 내용의 심화가 요구된다. 실용적인 관광학의 측면에서 현실 가능한 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속성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기회의 방문과 같이 비목적성 방문이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교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크 투어리즘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 따라서 방문자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용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이 없다. 역사교혼 여행, 어두운관광, 암혼관광 등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크 투어리즘 속성과 국내 사례의 의미가 포함된 적합한 용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하나(2014), 다크 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영(2013), 호국·민주주의 정신과 경남의 다크투어리즘, 경남정책 Brief Vol. 2013 No.7. 1~8.
- 송재호·남윤섭·김석윤(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 코스 형상화에 관한 연구 : 제주 4·3사건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Vol. 26 No.5, 165~185.
- 김석윤·김태일(2012), 제주4·3Dark Tourism 방문객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37집, 87~118.
- 김정현(2011), 중국 항일전쟁 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Ⅱ, 동북아 역사재단. 41~47.
- 김현철·류준호·하규수(2011), 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말 호남 의병사(義兵史)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 59~81.
- 강은정(2011), Dark Tourism 방문객의 체험연구 : 제주4·3평화기념관 사례를 중심으로, 2011사) 제주관광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노정연·이우재(2011), 대구·경북지역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131~148.
- 김난영(2010),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55~75.
- 김중영(2010), 불교의 죽음관에 대한 기독교철학적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예(2010), 사후기억을 통한 홀로코스트의 시각적 표상 : 불탕스키(Christin)와 키퍼(Anselm Kiefer)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현(2009), 『국제관광론』, 백산출판사, 269~270.
- 김재현(2008), 중세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07~244.
- 권중현·정익준(2007),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4호 통권제41호, 363~381.
- 김상기(2007), 폭력메카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복순(2007), 해초의 친축순례 과정과 목적. 한국인물사연구 제8호, 172~195.

- 권중혁외(2007),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4호, 363~381.
- 권중현(2006). 기독교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 김중은(2006), 관광학원론, 현학사, 31.
- 김문기(2006), 한반도접경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지혜(2005), 수원 화성행궁 일대 역사문화환경 가꾸기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0.
- 김경숙(2004),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현(2003), DMZ와 接境地域의 觀光資源 活用方案 研究 :安保와 生態 觀光資源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식(2002), 가톨릭교회의 성지 순례:기원과 중세기의 순례 중심으로, 현대가톨릭사상, 35~60.
- 김정호(2001), 유형학적 분류와 상관관계를 통한 계단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균(1997), 국내기업의 교수설계 모델(ID Model)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섭(1993), 관광학원론, 대왕사, 19~22.
- 노정연·조우제(2011), 대구·경북지역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131~148.
- 류주현(2008),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1권 3호.
- 리영희 외(1988), 서대문형무소, 열화당.
- 문소희(2009),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8/2009),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물)의 조사사업결과보고서.
- 박윤혜(2014), 장 아메리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 담론의 변화 연구 : '죄와 속죄의 저편', '르뢰 혹은 붕괴', '자유죽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노령(2013), 전쟁기념관과 기억의 재현 :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진(2012) 순례와 여행, 동국사학 53집, 167~195.
- 부경아(2011).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론 : 역사와 기억, 그리고 문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2004), 빛과 어둠 : 드리냄과 감추어짐의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태(2003), 대구지하철 사고와 시민단체의 대응; 2.18 지하철 사고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79~95.
- 박종호·최병창(2003), 비무장지대(DMZ)의 남북평화 관광개발에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제3권 제2호, 153~172.
- 배현석(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박형탁(1997), 안보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남(2012), 델파이와(Delphi)와 AHP기법 적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동·김경한(2011), 한국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종교연구 제65집, 한국종교학회, 187~211.
- 심상화 외(2000), 통일을 대비한 영동지역 안보관광자원의 역할, 강원도립대학 논문집, 148 ~153.
- 송재호·김향자(2009),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 국내·외 민중공원 사례를 통한 접근, 관광연구저널 23(1),71~87.
- 심성우·송학준·이충기(2009), 비무장지대 외곽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가치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 18권 제3호(통권 제49호), 191~210.
- 설혜심(1994), 중세 유럽에서의 순례의 대중성 분석연구, 영국연구 1, 101~124.
- 윤영란(2013), 안전체험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학석사 학위논문.
- 엄완용(201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문향(2013), 델파이 기법과 AHP를 활용한 국가 간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희영(2013), 물류학 연구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숙희(2013), 청소년 미술치료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2011), 트라우마 생존자의 정보처리;내러티브 면담의 응집성과 담화처리 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아니야 마사아키(2011), 오키나와 현립 평화자료관 설립,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Ⅱ, 동북아 역사재단, 89~101.
- 이재원(2011), 프랑스인들의 전쟁기념과 군사박물관,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Ⅱ, 동북아 역사

- 재단. 102~ 117.
- 이선웅(2012), 국가수호시설 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고찰, 사단법인 한민족연구소 2012학술회의 자료집.
- 이희승·왕백설(2012), 다크 투어리즘 관광객들의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산업학회, 149~164.
- 임순록(2012), 한·일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 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일본근대사연구 제 39권, 232~254.
- 이재수(2011), 한국정토신앙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정토학연구 제55권, 217~257.
- 안범용(2011), 다크 투어리즘 장소에 대해 부여한 개인적 의미에 따른 방문동기 및 편익 차이에 관한 연구:거제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7권 제3호(통권14호), 1~25.
- 이상준(2011), 인권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광주교도소 이전적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구·안범용(2011),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속성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광컨벤션연구 제3권 제1호, 1~18.
- 安鎮晟(2010),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 상태 평가지표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범(2009).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생물학적 환원주의 죽음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2009), 기억과 전쟁, 서울 : 휴머니스트, 235.
- 이병원(2009),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7권 제2호, 1~20.
- 우혜관(2008), 동시대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종교학연구 vol. 27, 35~66.
- 이후석·오정준(2004), 탈현대적 관광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18권 제1호, 117~128.
- 이혜원(2008), 교육적 통합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규2(006), 유관순열사 기독교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의 개발방안, 유관순연구 제11호, 39~86.
- 이봉희(2006), 강원도 DMZ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11~12.
- 유필화·김용준·한상만(2005), 현대마케팅론, 박영사, 158.
- 예명숙(2005), 도시 관광광지 이미지 포지셔닝 연구;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종원·김재일·홍성태·이유재(2004). 소비자행동론(제2판): 이해와 마케팅의 전략적 활용. 경문사.
- 이명춘(2004), 컨벤션 후 북한지역 관광이 남한의 군사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컨벤션 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 189~205.
- 안양규(2000),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미, 종교문화연구 2. 109 ~125.
- 조아라(2013), 다크투어리즘과 관광경험의 진정성 -동일본대지진의 재난관광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130~146.
- 조현희(2012).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5·18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논문, 132~133.
- 장순옥(2012), 홀로코스트와 현대 이스라엘 선교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원·김태훈·정철(2011), 다크 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동기: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비교, 관광학연구 제35권 제6호. 79~97.
- 장애옥·최병길(2011), 다크 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와 특성 :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1호, 65~84.
- 정영식(2011), 근대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성지순례의 諸相:한국 근현대불교 자료전집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제35집, 79~108.
- 최희선(2011), 여성, 순례, 새로운 기억과 서사: 미래교회(FutureChurch)의 로마 순례, 종교와 문화, 37~44.
- 최지원(2011), 지역기반 기념박물관의 현황과 역할강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환·이혁진(2010), 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교훈 관광지의 이해,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0권 제3호, 101~113.
- 전진성·이재원(2009),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157, 161, 530~531.
- 조명제(2008), 14세기 高麗 지식인의 入元과 순례, 역사와 경계, 7~40.
- 정호기(2007),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근식(2007),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 제언과 발언, 제주민예총.
-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5~39.
- 제주도(2003), 제주4.3유적지.
- 정경진(2002). 안보관광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기(2002),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일(2002), 통일시대에 대비한 안보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DMZ, 설악, 금강산권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관광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문(2000), 관광동가와 유인전략이 환경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용(1997),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6-1, 한국관광개발학회, 117~146.
- 장석모(1996),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군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정신교육원논문집 17호, 170.
- 정인승외(1986), 한국대사전, 한국사편찬위원회.
- 최지원(2011), 지역기반 기념박물관의 현황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호근(2005),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35~36.
- 최용용외(2004),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Vol. 5, No. 3, 505~518.
- 추명희(2003), 지역축제를 이용한 지역상징의 문화적 재구성 과 정체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4호, 576~591.
- 한명희(2011), DNZ 관련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국제어문 제52집, 107~138.
- 함광복(2010),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DMZ, 통일부 통일교육원, 16~18.
- 한숙영(2010), 현대사회에서의 위협과 관광, 관광학연구 제34권 제9호, 11-31.
- 한숙영·조광익(2010), 현대사회에서의 위협과 관광 : 다크 투어리즘의 경우, 관광학연구 제34권 제9호, 11~31.
- 홍진국(2009). 인간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적 고찰 : 철학 및 타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해를 중심으로, 광주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許仲珉(2008), 조선시대 행궁의 입지 및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혜경(2008), 제주4·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사회문화운동으로의 전망, 4·3과역사 통권 제8호,
- 허남진(2007), 한국천주교 성지의 창출과 특성, 종교연구 제49집, 한국종교학회, 255~276.
-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 국내 관광분야 축제 이벤트 연구논문 내용분석: 1995-2004년 연구경향과 분석방법 검토, 관광학연구 25(2), 95-111.
- 홍원표(1995), 포스트모더니티와 기독교 윤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관광 진단-위기에서 도약으로' 정책 토론 자료집.
- 한민족연구소(2012), 학술회의 자료집 '전적기념물로 본 국가수호정신 고찰

〈외국문헌〉

- Ashworth, G. J. (2004). Tourism and the heritage of atrocity: Managing the heritage of South African apartheid entertainment. In T. V. Singh(Ed.) *New horizons in tourism: strange experiences and stranger practices*(pp. 95-108). London: CABI Publishing.
- Blom, T. (2000). Morbid tourism: a postmodern market niche with an example from Althorpe. *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54(1), 29-36.
- Boorstin, Daniel. J. (1964).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Dann, G.M.S. (1998). *The Dark Side of Tourism*. Etudes et Rapports Centre International de Recherches et d'Etudes Touristiques, Aix-en-Provence, serie L, Vol 14: 1-31.
- Dann, G.M.S. (2010). Review: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by R.Sharpley & P.R.Stone (ed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5(2): 219-220.
- Dann, G.M.S. & Seaton, A.V. (eds) (2001). *Slavery, Contested Heritage and Thanatourism*. New York: Haworth Hospitality Press.
- Dark Destinations.
- Eada, John & Simon Coleman(eds)(2004), *Reframing Pilgrimage: Culture in Motion*, London: Routledge.
- tourism, Phillip R. stone(2006), v01 54, pp.145~160.
- Foley, M. & Lennon, J. (1996a). Editorial: Heart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5-197.
- Foley, M. & Lennon, J. (1996b). JFK and of Dark Tourism: A Fascination with Assass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8-211.
- Foley, M. and Lennon.J (1997) *Dark Tourism - An Ethical Dilemma*. In M. Foley, J.Lennon and G.A.Maxwell (eds) *Hospitality, Tourism and Leisure Management: Issues in Strategy and Culture*. Scarborough: Cassell. 153-164.
- Frew, Elspeth(2011), *Interpretation of a sensitive heritage site: the Port Arthur*

- Memorial Garden, Ta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1), 33-48
- Knox, D. (2006) The sacralised landscapes of Glencoe: from massacre to mass tourism, and back agai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3), 185-197
- Kruskal, J. B. & Wish, M.(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11.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Publication
- Lennon, J. and Foley, M.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 London Dungeon. (2009) The London Dungeon Official Website, Merlin Entertainments Ltd, <http://www.thedungeons.com/en/london-dungeon/index.html> (Accessed: 18/12/2013).
- MacCannell, D. (1989).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2nd edn.), New York: Schocken Books.
- Miles, W. (2002). Auschwitz: Museum Interpretation and Darke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28(4). 1175-1178.
- Muzaini, H., Teo, P., and Yeoh, B. (2007). Intimations of postmodernity in dark tourism: the fate of history at Fort Siloso, Singapore.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5(1), 28-45.
- Oren, Gila & Shani, Amir (2012), The Yad Vashem Holocaust Museum: educational dark tourism in a futuristic form, *Journal of Heritage Tourism*, 7(3), 255-270
- Podoshen, Jeffrey. S. (2013), Dark tourism motivations: simulation, emotional contagion and topographic comparison, *Tourism Management*, 35, 263-271
- Preece, T. and Price, G. (2005). Motivations of participants in dark tourism: a case study of port Arthur, Tasmania, Australia. In C. Ryan, S. Page and M. Aicken (eds.) *Taking Tourism to the Limit: Issues, Concepts and Managerial Perspectives*, Oxford: Elsevier: 191-198.
- Rojek, C. (1993). *Ways of Escape: Modern transformations in leisure and travel*. London: MacMillan.
- Rojek, C. (1997). Indexing, dragg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ourist sights. In C.

- Rojek and J. Urry (eds.) *Touring Cultures: transformations of travel and theory*. London: Routledge, pp. 52-74.
- Ryan, C. (2005). Dark Tourism - An Introduction. In C. Ryan, S. Page and M. Aitken (eds.) *Taking Tourism to the Limits: Issues, Concepts and Managerial Perspectives*. Oxford: Elsevier, 187-190.
- Seaton, A. (1996). Guided by the dark: From Thanatopsis to thana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4), 234-244.
- Seaton, A. (1999). War and thanatourism: Waterloo 1815-1914.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1), 130-158.
- Seaton, A. (2000) Thanatourism. Entry in Jafar Jafari (ed) *Encyclopedia of Tour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578.
- Seaton, A. (2009a) Thanatourism and its Discontents: An Appraisal of a Decade's Work with Some Future Issues and Directions. In T.Jamal & M.Robinson (eds) *The Sage Handbook of Tourism Studies*, London: Sage: 521-542.
- Seaton, A. (2009b) Purposeful Otherness: Approaches to the Management of Thanatourism. In R.Sharpley and P.R.Stone (eds)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Aspect of Tourism Series,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75-108.
- Seaton, A. & Lennon, J. (2004). Thanatourism in the Early 21st Century: Moral Panics, Ulterior Motives and Alterior Desires. In T.V.Singh (ed) *New Horizons in Tourism - Strange Experiences and Stranger Practices*. Wallingford, UK: CABI Publishing: 63-82.
- Smith, V. (1998), War and tourism: an American ethnograph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202-227.
- Sharpley, R. (2004). Travels to the edge of darkness: Towards a typology of toueism, in C, Ryan, S, J, Page and M, Aicken(eds),2005, *Taking Tourism to the Limites*, Pergamon-Elsevier, Oxford, 217-228.
- Sharpley, R. & Stone, P.R. (eds) (2009a).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Aspect of Tourism Series,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 Sharpley, R. & Stone, P.R. (2009b). Representing the Macabre: Interpretation, Kitschification and Authenticity. In R.Sharpley and P.R.Stone (eds)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Aspect of Tourism Series,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109-128.
- Sharpley, R. & Stone, P.R. (2009c). Life, Death and Dark Tourism: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R.Sharpley and P.R.Stone (eds)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Aspect of Tourism Series,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247-251.
- Stone, P. (2011), Dark tourism and cadaveric carnival: mediating life and death naratives ar Gunther von Hagen's Body Worlds, *Current Issues in Tourism*, 14(7), 685-701
- Stone, P. and Sharpley, R. (2008). Consuming dark tourism : A thanatological Perspecti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2), 574-595.

<기타>

아름다운순례길 (<http://www.sunryegil.org>)

강원도청 (<http://www.gangwon.to>)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http://safe119.daegu.go.kr>).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http://www.pow.or.kr/>).

거창사건사업소 (<http://case.geochang.go.kr>)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http://shchumo.sancheong.go.kr>)

노근리평화공원 (<http://www.nogunri.net>)

임문식, 'DMZ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천지일보*(2009.9.2)

부록 :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자원 분포 현황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번호	자원명	내용
1	주교 충주지공 학순 다니엘 지묘	신부, 한국 민주화의 지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2	민족시비공원	한용운, 신동엽 등 추천받은 민족시인 20명의 시비공원.
3	풍산공원묘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공원묘원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인근에 위치해 있다.
4	3.8민주의거기념탑	1960년 3월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맨손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3.8민주의거를 기념하여 세운 탑.
6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김경숙, 박종철, 문익환 등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선여덟 명의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을 안장한 공원묘지.
7	영원한 노동자 박종만의 묘	택시 노동자. 사측(민경교통)의 노조사무실 폐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단식철야농성을 벌이던 중 분신하여 사망하였다.
8	통일문화의 큰 일꾼 민족시인 채광석의 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며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 앞장섰다. 1987년 교통사고로 숨진 뒤 팔당공원묘지에 안장됐다.
9	고 강민호 동지 추모비와 추모 조형물	노동운동을 위해 1990년 노동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휘말려 사망한 강민호 열사를 기리기 위해 모교인 한신대에서 조성한 추모비와 조형물.
10	노동해방전사 김윤기 열사의 묘	1989년 덕진양행의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파업농성을 벌이다 항의 분신하여 사망, 파주 금촌공원 묘역에 안장되었다.
11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학생회장 청도감공 세진지묘	김세진은 1986년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학생회장을 지내던 중 전방입소 결사반대 및 반전반핵 양키고함을 외치며 분신하였으며, 판교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12	이한열 기념관	1987년 6월 연세대 재학 중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건립된 기념관.
13	나영주열사추모 홍익민주기념탑	4.19혁명 과정에서 경찰의 사격에 의해 숨진 나영주 열사(당시 홍익대 재학)를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홍익대에서 제작한 기념탑.
14	강경대 추모 동판과 조형물	1991년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등의 시위 도중 사복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을 거둔 강경대 열사를 추모하여 조성되었다.
15	고 노수석 열사 추모공간	1996년 3월 29일 종로5가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가 도중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숨진 노수석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연세대 내에 마련된 공간.
16	이한열 동산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한열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연세대 내에 조성된 동산.
17	포충탑(탑)	6.25전쟁과 4.19혁명 때 순국한 서울고 학우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서울고에서 건립한 추모탑.

18	참교육의 횃불로 살아오리라(조형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당시 서울교대 학생 남태현, 박선영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학생회관 옆에 세워진 추모비.
19	상길을 기리며(조형물)	한양대학교 민주화운동 기념비가 위치한 자리에 있는 당시 한양대 학생 열사 상길의 추모비와 조형물.
20	박종철 기념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를 기리고자 그 남영동 대공분실 4층에 건립된 기념관. 5층 고문실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1	성균관대학교 민주열사상	4.19혁명 이후 민주화를 위해 일하다 숨진 동문 4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균관대 학생과 민주 동문회 등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동상.
22	강경대 기념관	1991년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등의 시위 도중 사복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을 거둔 강경대를 추념하여 서울 송인동에 세워진 기념관.
23	전태일 거리와 동상	1970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분신하여 사망한 전태일을 기리기 위해 분신이 일어난 평화시장 옆에 조성된 거리. 그 자리에 시민들의 힘으로 동상과 동판도 제작되었다.
24	4.19혁명기념도서관	1960년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자리에 4.19혁명 희생자 유족들이 건립한 도서관으로, 4.19혁명의 이념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25	유월민주항쟁진원지 표지석	전국적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성공회대 성당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석.
26	김의기 열사 동판	서강대 재학 중 광주민주항쟁 관련 계엄군의 왜곡된 발표를 폭로한 뒤 투신한 김의기 열사를 기리기 위해 형제교회 내에 제작된 추모동판.
27	고 박종철 추모 조형물과 동상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대 내에 제작된 조형물과 동상.
28	조영래 홀	서울대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고 조영래 변호사를 기리기 위해 서울대 법대 건물 5층에 마련된 기념홀.
29	4.19혁명 조형물	4.19혁명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꺼지지 않는 횃불'을 추상화하여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 세운 조형물.
30	사월학생혁명기념탑	4월학생혁명 1주년 기념일에 건립된 서울대학교 문리대 김치호 기념탑. 서울대 4.19기념공원 내에 있다.
31	4.19혁명희생자 추모조형물	4.19혁명에서 희생된 서울대학생 6명을 기리기 위해 서울대 4.19기념공원 내에 세워진 추모조형물.
32	허세욱 기념관	2007년 4월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열사를 추모하고 뜻을 계승하기 위해 봉천동 한독운수 내에 개관한 기념관.
33	최종길 교수 기념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한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기존 서울대 법대 내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을 '최종길 교수 기념홀'로 이름을 바꿔 헌정하였다.
34	정의의 종	1956년 서울대 법대에 세워진 종. 4월 혁명 이후 정의의 종 타종은 학생들을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게 하는 총궐기의 신호였다. 현재 민주화 운동의 상징물.

35	10.28건대항쟁 기림상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내걸고 건국대에서 전개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대 교정에 세워진 기림상.
36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성공회대 부설기관으로 2000년 설립되었다. 한국 민주화 운동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 및 연구하고 있으며 자료 소장 업무와 함께 전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7	김창섭군 순국기념탑	숭실대 재학 중 1960년 4.19혁명에 참가하여 진두에서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숨진 김창섭 군을 추모하기 위해 숭실대 교수 및 학생일동이 세운 순국기념탑.
38	전대협 영웅 이상열·박현민 열사상	1987년 6월 항쟁 중 구속된 이상열군과 화상을 입고 1992년 사망한 박현민군을 추모하기 위해 숭실대 내에 세워진 두 인물의 조각상.
39	의혈탑	4.19혁명 당시 희생된 중앙대 학생 6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중앙대 교정에 세워진 기념탑.
40	중앙대 추모 조형물	4.19혁명 당시 희생된 중앙대 학생 6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중앙대 교정에 세워진 6개의 기념조형물.
41	양용찬 추모시 조형물	제주도개탈특별법 반대를 위해 산화한 양용찬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신례1리에 있는 그의 생가 앞에 만들어진 조형물.
43	김영균 추모 조형물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안동대에서 분신한 김영균 열사(당시 안동대 재학)를 추모하여 안동대 교정에 세워진 조형물.
44	민주교사 배주영(세실리아)의 묘	봉화여고에 부임하던 중 안동교사협의회 부회장을 지내고 청송교사협의회를 창립, 활동하다가 해임되었으며 이후에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의 묘는 안동시 안기동에 안치되어 있다.
46	현대공원 1묘원	경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의 현대공원묘원 제1묘원.
47	민주교사 정영상의 묘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복수여중에서 해임되고, 이후 안동지회에서 단양지회로 진출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노동열사이자 교사.
48	2.28기념중앙공원	1960년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여 대구에서 일어난 2.28학생민주의거를 기념하여 만든 공원.
49	2.28기념조각 동산	1960년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여 대구에서 일어난 2.28학생민주의거를 기념하여 2.28기념중앙공원 내에 만들어진 기념조각 동산.
50	2.28학생의거기념탑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교생들이 자유당 정권에 대해 항의·시위한 2.28학생의거를 기념하여 대구시내 명덕로타리에 설치된 기념탑.
51	손석용열사(홍상)	1991년 대구대 재학 중 사회 민주화를 위해 분신자살한 손석용 열사를 추모하여 대구대 내에 세워진 홍상.
52	솔밭산 열사 묘역 합동 추모비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각종 투쟁을 벌이다 사망한 노동열사들을 안장한 묘역. 묘역 앞에는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합동 추모비가 세워졌다.
53	노동자 김윤수 동지의 묘	노조활동을 이유로 서면해고당하고 수감된 뒤 민주노조 재건투쟁과 복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그의 묘는 마산공원묘지에 있다.
54	진주나동공원묘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위치한 공원묘원.

55	노동열사 이대건의 묘	마산 (주)우성택시에서 택시노동자로 일하다 1988년 임금인상 등을 요청하며 파업농성을 벌이던 중 분신하였다. 그의 묘는 경남 창원군 대지면에 있다.
56	3.15아트센터	3.15부정선거에 대해 마산 학생들과 시민들이 벌인 3.15의거를 기념하여 마산에 세워진 문화공간으로, 공연장과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57	3.15의거기념탑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개하여 마산 학생들과 시민들이 벌인 3.15의거를 기념하고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세워진 기념탑.
58	3.15의거발원지 안내판	마산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벌인 3·15의거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발원지였던 현 마산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 설치한 안내판.
59	김주열 열사 기념 조형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시신 인양지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부두에 설치된 조형물.
60	김주열 열사 인양지 표지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부두에 설치된 표지판.
61	부마항쟁상징조형물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유신반대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2000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62	3.15기념회관과 유영봉안소 옛터	반독재 운동인 1960년 마산 3.15의거를 기념하여 3.15민주묘역공원 내에 건립한 기념회관. 희생자들의 영령을 모신 유영봉안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63	요산 김정환 생가	식민지 현실의 모순과 참상을 그린 민족문학가 김정환이 살던 생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후 지역문인·인사들의 후원과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 2003년에 복원되었다.
64	요산문학관	민족문학가 요산 김정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 옆에 건립한 기념문학관. 그의 생전 소장품을 다수 전시하고 있으며, 도서 열람실과 창작실도 있다.
65	요산도서관	민족문학가 요산 김정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요산문학관 2층에 있는 도서관.
66	10.16 기념관	1979년 부마항쟁의 발원이 된 부산대 학생들의 10.16 테모를 기념하여 부산대 내에 설치된 기념관. 각종 강연과 설명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67	부마민주항쟁발원지표지석	1979년 부마항쟁의 발원이 된 부산대 학생들의 10.16 테모를 기념하여 부산대 내 10.16기념관 옆에 세워진 표지석.
68	이종률 교수 탄생 100주년 기념 나무(비)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서 맑스주의자면서도 동시에 공산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산수 이종률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부산대에 세워진 기념나무.
69	10.16부마민중항쟁탑	부마항쟁 당시 부산대에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테모한 10월 16일을 기념하여 부산대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된 기념탑.
70	4.19민주혁명추념탑	4.19혁명 당시 부산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추념하기 위해 금정중학교 교정에 세워진 추념탑.
71	4.19혁명 고 강수영 추념탑	4.19혁명 당시 반독재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쏜 탄환에 맞아 19살의 나이로 숨진 고 강수영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다니던 경남공고에 세워진 추념탑.

72	4월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과 영령봉안소	4.19혁명 당시 부산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민주공원에 세워진 위령탑. 그 옆에 희생자 및 부상자 33인 영정사진을 봉안한 영령봉안소가 있다.
73	민주공원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
74	영락공원묘지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공원묘지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봉안되어 있다.
75	김주열 기념관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했다가 마산시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 건립된 기념관.
76	김주열열사 흉상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흉상으로, 남원 김주열로와 모교였던 용마산고(당시 마산상고) 두 곳에 있다.
77	이석규 묘	1987년 8월, 대우조선 노동자로 옥포 가두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이석규 열사의 묘로, 그의 고향 전북 남원에 안장되어 있다.
78	4.19학생의거기념탑	광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광주 4.19학생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공원에 제작된 기념탑.
79	민중해방 열사 최덕수 추모조형물	1988년 5월 18일 광주영령 추도식 중 단국대에서 분신하여 숨진 민주해방열사 최덕수를 추모하기 위해 고향 정읍시에 조성된 조형물.
80	노동운동가 박복실(요안나)의 묘	1970~80년대 전북지역 민주노조 운동을 주도하여 전북지역 여성 및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가톨릭신자이자 노동운동가. 소양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81	죽형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 문학도들의 창작 공간 마련을 위해 그의 고향 전남 곡성에 건립되었다.
82	나주지역 수세거부운동 20주년 기념조형물	전남 나주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던 수세거부운동(1987)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
83	고 박태영 열사 추모탑	1987년 목포대 재학 중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분신 산화한 박태영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목포대 내에 세워진 추모탑.
86	민주열사 박관현 상	전남대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중 사망한 박관현 열사를 기리기 위해 고향 전북 불갑에 세워진 그의 동상.
87	고정희 생가와 묘지 추모비	민중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살다간 여성시인. 그의 생가와 묘지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다.
88	김남주 시인 생가와 문학공원	유신 시대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혁명시인.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그의 생가를 복원하고 문학공원을 조성했다.
89	전남5.18민주항쟁사적지표 지석(50개소)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대를 비롯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남지역의 사적지 50곳에 설치된 표지석.
90	망월묘지	광주시 북구 민주로에 있는 시립묘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희생자들이 강제로 묘지 한구석에 매장되었는데, 진상이 밝혀진 이후 제3묘역이라 불리며 성역화되었다.
91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표지석(25개소)	광주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대를 비롯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적지 26곳에 설치된 표지석.

92	고 윤상원 열사 기념조형물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계엄군 진압작전 때 숨진 윤상원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교인 전남대 내에 설치된 조형물.
93	임을 위한 행진(조형물)	5.18민주항쟁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의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조형물.
94	전남대학교 5.18기념관	5.18민주항쟁의 진원지인 전남대 내에 5·18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95	5.18민주항쟁 사적1과 5.18 소공원	5.18민주항쟁 최초 발원지이자 사적1호 전남대학교의 정문에 위치한 표지석과 그 주변에 5.18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소공원.
96	오월문학관	1980년 광주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학인들과 문학작품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문학관.
97	윤상원 열사상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계엄군의 총을 맞고 도청에서 숨진 윤상원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남대 교정에 세워진 조각상.
98	김남주 시비와 반신	유신 당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시인 김남주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 중외공원에 세워진 시비.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그의 생가를 복원하고 문학공원을 조성했다.
99	강경대 기념관	1991년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등의 시위 도중 사복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을 거둔 강경대를 추념하여 광주에 세워진 기념관.
100	민주열사 이한열 상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한열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광주 진흥고에 세워진 열사의 흉상.
101	시대의 들불 윤상원 생각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계엄군의 총을 맞고 도청에서 숨졌다. 그의 생각은 광주 광산구 천동마을에 위치한다.
102	윤상원·박기순 열사 자료전시관	5.18항쟁 당시 광주지역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한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행적과 관련 자료를 전시해놓은 곳으로, 이들의 생각인 광주 광산구 천동마을에 있다.
103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 기념탑	해방 직후 민중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호남민중 7만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발족한 조선대학설립동지회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대 내에 설립한 기념탑.
104	한국교육민주화운동의 산실 광주YMCA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지도부가 자주 옥내집회를 열었던 곳이며, 교육민주화운동의 큰 전환점이 됐던 5·10 교육민주화선언(1986)을 발표한 곳.
105	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	광주 4.19혁명을 기리기 위해 최종 발상지였던 광주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기념탑.
106	5.18민주항쟁알림탑	광주 5.18민주항쟁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 앞에 세워진 알림탑.
107	민주의 종	2005년 광주광역시에서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상징물로 건립한 종으로, 8.15 광복절과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8	들불열사기념조형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했던 광주 들불야학 출신 7인의 조형물. 박기순, 박관현, 윤상원 등 7명의 얼굴이 북두칠성 모형에 조각돼 있다.
109	4.19문화원	광주 4.19혁명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공원에 개원한 문화원.
110	5.18민주항쟁탑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자리한 항쟁 추모탑, 그 뒤로는 800여 분의 유공자가 안치된 묘역이 있다.

진실과화해위원회

번호	자원명	내용
1	전남 구례 봉성산	1948년 여순사건 연루자로 지목되어 구례경찰서에 유치돼 있던 민간인 약 70여 명이 경찰에 의해 총살당한 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
2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확인된 곳으로, 약 3,000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전시 동구 낭월동	1950년 초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국군,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약 18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4	충북 청원 분터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청주경찰서와 청주교도소에 감금돼 있던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원과 좌익사범들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곳. 8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실제 수는 200여 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청주경찰서와 청주교도소에 감금돼 있던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원과 좌익사범들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곳.
6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	전남 진도의 무인도. 1950년 부산으로 후퇴하던 경찰에 의해 좌익인사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어 수장된 사건이 벌어졌던 곳.
7	경남 산청 원리 및 외공리	산청 원리는 1949년과 1950년 국군이 빨치산 출몰과 관련해 작전수행 중 민간인을 학살한 곳이다. 외공리는 1951년 군인들이 10대 이상의 버스에 태우고 온 민간인을 집단학살해 매장한 곳으로, 268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8	전남 함평군 불갑산 용천사 주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국군이 빨치산 토벌작전 중 용천사 주변 피난민들과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연행해 집단총살한 곳.
9	충남 공주시 상왕동	1950년 7월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후 매장된 곳.
10	진주시 명석면·문산읍 일대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월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진주형무소 재소자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1천여 명이 희생된 곳.
1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을 안치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북대 내에 개관한 추모관.

호국보훈시설

번호	자원명	내용
1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고 전세 역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2	준비코올터장군상	6.25전쟁 당시 포항전투에서 미 제8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해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고 전쟁이 끝난 후 초도화된 우리나라의 재건에 힘썼다.
3	맥아더장군동상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함으로써 부산까지 후퇴해 있던 남한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4	유엔군화장장시설	1952년 유엔군 전사자를 화장하기 위해 건립되어 휴전 직후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이며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화장장.
6	대광동문순국기념비및한국전쟁참전대광학생의탑	서울 대광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6.25전쟁에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 및 순국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	반공순국용사위령탑	8.15광복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영등포구 출신 애국청년 134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8	유격백마부대충훈탑	6.25전쟁 당시 정주군 일대에서 김응수를 부대장으로 하여 조직된 비정규군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전과를 거두어 UN연합군의 정규작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를 기려 1992년 양재시민의 숲에 충훈탑을 세웠다.
9	6.25학도병참전기념상	피난 중이던 수원 농생명고등학교 출신 학생 200여명이 수원에 모여 비상학도대를 조직하고 이후 2만여 명이 6.25전쟁에 참전해 전과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교정 내에 건립된 기념상.
10	김승철중위전사지	한국전쟁 당시 이한림의 부관으로 근무하였다. 과천의 갈현동을 지나다가 인민군의 저격을 받아 이한림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한림이 그의 전사 현장에 비를 세웠다.
11	기지리6.25전투진지(방카)	6.25전쟁 직전 한국군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4개진지를 구축한 것 중 현재 유일하게 보존된 영구진지.
12	동두천시현충탑	1978년 현충일에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건립되었다.
13	무공수훈자의탑	6.25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후세에 기리기 위해 의정부에 건립된 탑.
14	62백운의혼	6.25전쟁 당시 국군장병 2명이 백운암을 거쳐 후퇴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것을 알고 자결한 사건을 기려 백운산장 앞에 세운 추모비.
15	연천군자유수호무공수훈탑	연천군 출신으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보국수훈자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16	호국6.25참전유공자상및탑	남양주시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호국용사와 생존 참전유공자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17	반공유격용사위령탑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해 월남한 청년들이 강화에서 유격전을 펼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들의 공적과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8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	6.25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지역 학생 2000여명이 학생신분으로 참전하여 50여명이 전사하였다. 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	개진초육본전방지회소	6.25전쟁 발발 당시 서울의 최근방 방어선이었던 의정부가 함락되자, 육군본부가 의정부 전선 상황 보고 및 제2·7사단의 원활한 협조와 통제를 위해 강문봉 대령을 소장으로 하여 설치한 전방지회소.
20	의정부전투사령부	6.25전쟁 발발 당시 서울의 최근방 방어선이었던 의정부가 함락되자 창동방어선을 방어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유재홍 7사단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노해지서에 설치한 전투사령부.
21	한강인도교폭파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 진격할 것을 우려해 국군 공병대에 의해 예고 없이 폭파시킨 한강 인도교가 있던 곳. 이 폭파로 민간인 5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22	말죽거리전투지	1950년 7월 1일에서 2일까지 한강을 건너 신사동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과 국군 혼성 제2사단 일부 병력이 전투를 벌였던 곳.
23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전쟁 초기 한강방어선 전투를 지휘했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김홍일의 주도 아래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7사단, 혼성 제2사단 등을 편성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연전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24	갭곳전투지	6.25전쟁 발발 당시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 기갑연대 도보대대와 보국대대 병력이 갭곳(현 강화역사관) 정면에서 북한군의 도하 지연을 위한 전투를 벌였던 곳.
25	인천상륙작전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시 미 제1해병연대가 인천항(엘로우비치) 갯벌과 해변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최종목표 고지를 탈환한 곳.
26	소요산전투지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 제1연대가 북에서 내려오는 북한군 제4사단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를 수행한 곳.
27	화악산전투지	1951년 4월 중공군 춘계공세시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제20군의 공격을 받고 방어 작전을 수행한 곳.
28	강재구소령기념관	1965년 10월 월남 파병을 앞두고 참전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중 한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끌어안음으로써 많은 부하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강재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29	철의삼각전적기념관	철의 삼각지대는 강원도 평강군, 철원군, 김화군을 잇는 지리상의 삼각지대로,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다. 이때 벌어진 철의삼각지대 전투들을 기념하고 안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30	백마고지전적기념관	6.25전쟁 때 전개된 철의삼각지대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치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31	학도병기념관	6.25전쟁 발발 때 태백중학교 학생 100여명이 육군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이중 전사한 18명을 추모하고 참전학도병 명예선양을 위해 건립·개관하였다.

32	제2땅굴기념관	강원도 철원의 제2땅굴은 북한이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가 있던 곳으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33	제4땅굴안보관	강원도 양구의 제4땅굴은 북한이 남침용으로 뚫던 땅굴로 1990년 발견되었으며 안보관은 국내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34	통일전망대전시관	분단의 아픔을 달래고 통일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에 건립된 전시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를 통해 금강산 전경을 볼 수 있다.
35	강원DMZ박물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비무장지대(DMZ)의 자료들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 건립한 박물관.
36	통일공원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최초로 남침했던 곳인 강릉에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평화통일의를 고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
37	철원평화전망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제2땅굴 등 한국 전쟁과 관련된 전시물과 비무장지대 사진,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다.
38	이승복기념관	1968년 11월 삼척 울진지방에 침투한 무장공비에게 항거하다 살해당한 당시 9살의 어린이. 그를 기리고 반공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1982년 조성된 기념관.
39	월정리역	6.25 당시 평화의 기적을 울리다 폭파된 서울발 원산행 열차의 잔해가 남아 있는 곳으로 철원의 안보관광지.
40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6.25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하였던 에티오피아 참전군의 전공을 알려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하여 춘천시에서 설립하였다.
41	춘천지구전적기념관	한국전쟁 때 국군 6사단이 치열한 방어전을 펼침으로써 6.25개전 초 유일하게 대승을 거둔 춘천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
42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6.25전쟁 당시 일어났던 파로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무명의 학도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화천군에 건립된 위령탑.
43	마그루드장군송덕탑	6.25전쟁 당시 미군 제9사단장으로 재임해 철원주민들의 정착지 마련과 식량 공급에 힘썼던 마그루드장군을 기리기 위해 철원군 문혜리에 조성된 송덕탑.
44	학도병기념관(충훈탑)	6.25전쟁 발발 당시 참전했던 태백중학교 학생 100여명과 이중 전사한 18명의 학우들을 추모하고 참전 학도병 명예선양을 위해 태백중에서 건립·개관했으며, 이들을 기리는 충훈탑이 교정 내에 있다.
45	6.25참전학도병기념탑	한국전쟁 발발 당시 춘천 소양강 전투에서 국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춘천의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해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내에 세워진 기념탑.
46	6.25참전학도병순국충훈탑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자진 참여했던 강원 출신 학도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배출한 횡성중,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47	태백시학도병기념관	6.25전쟁 발발 당시 참전했던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과 이중 전사한 18명의 학우들을 추모하고 참전 학도병 명예선양을 위해 태백중에서 건립·개관하였다.
48	600고지전승탑	1991년 3월 25일 군경합동토벌대가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획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경찰,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전투가 있던 600고지(충남 금산군 백암산)에 세운 전승탑.

49	정읍국사봉지구빨치산토벌지	1951년 5월 4일부터 9일까지 육군 제8사단이 전북도당 유격대 사령부가 있는 여분산을 중심으로 빨치산을 토벌했던 곳.
50	회문산지구빨치산토벌지	1951년 10월 경찰제203,205부대와 보아라부대, 순창경찰서 등이 군산 주둔 미군 전차대대와 폭격기의 지원을 받아 빨치산 치하로부터 수복, 토벌했던 곳.
51	옛남원역군경부대집결지	6.25전쟁 초기 호남지역 방어 또는 후퇴과정에서 군·경·학도의용군이 집결했던 곳.
52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1950년 12월 16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후방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는 좌익 빨치산의 토벌을 목적으로 창설된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가 있었던 곳.
53	백야전투사령부	6·25전쟁 중인 1951년 11월 25일부터 1952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특별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했던 곳.
54	지리산반야봉지구빨치산토벌지	1951년 12월 초 백야전 전투사령부가 2주 동안 지리산의 빨치산 요새를 분쇄했던 곳.
55	남원달궁지구빨치산토벌지	1951년 10월 15일부터 13일간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경찰 제207부대가 빨치산 남부군단의 근거지를 토벌하고 탈환한 곳.
56	장수장안산빨치산토벌지	1951년 4월 8일 장안산 일대에서 경찰 제205부대와 함양, 장수서원의 지원을 받아 빨치산 전북도당, 보위부대, 벼락부대, 철갑병단 등을 토벌했던 곳.
57	광주산동교전투지	1950년 7월 23일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의 광주점령을 막기 위해 첫 전투를 벌였던 곳.
58	광주중앙포로수용소터	6·25전쟁 중 지리산·백야산·백운산 등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빨치산 출신 포로들이 수용되었던 광주 중앙포로수용소가 있던 곳.
59	상무대터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보병, 포병, 통신병학교가 설치되어 초급 장교를 양성했던 상무대가 있었던 곳.
60	영광삼학리전투지	1950년 7월 24일 전남 영광, 화순, 순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1개 대대 병력이 영광으로부터 진격하던 북한군 제15연대와 접전했던 곳.
61	담양용추봉빨치산토벌지	1951년 8월 25일 전남경찰연합부대, 쌍치지구 전북경찰연합부대 등이 600여 명의 빨치산들을 토벌하여 큰 타격을 입힌 곳.
62	순천학구전투지	1950년 7월 26일, 전남지구전투사령부의 군경 혼성 병력 1개 중대 규모가 북한군 제6사단 15연대의 순천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해 대치했던 곳.
63	여수전투지	1950년 7월 26일 전남편성관구 이용준 소장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남진을 막아 여수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저지시키고자 했던 곳.
64	곡성압록경찰전투지	곡성경찰이 1950년 7월 29일 북한군을 습격해 북한군 52명을 사살하였고, 경기관총, 트럭, 사이카 등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던 곳.
65	보성읍경찰전투지	1950년 7월 26일 전남 경찰부대가 250명이 북한군 선발대와 지방 빨치산을 기습하여 3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던 곳.
66	장흥유치지구빨치산토벌지	1951년 7월 29일 전남 경찰국 기동대를 비롯, 광주, 나주, 장흥 등 경찰서 연합부대 1,500여 명이 유치면 덕룡산 일대 빨치산을 포위하여 전과를 올렸던 곳.

67	수도사단백운산지구빨치산 토벌지	군경의 계속되는 토벌작전으로 화순 백아산에서 이동한 빨치산 전남도당과 인민유격대사령부에 대해, 1952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수도사단이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전과를 올렸던 곳.
68	군산지역학도의용군모집지	1950년 7월 10일경 군산지역에서 학도병을 모집하여 전선으로 보낸 곳.
69	군산고길훈부대주둔지	장항 상륙전 등에 전공을 세운 고길훈 부대가 1950년 7월 16일 군산에 상륙한 후 주둔했고, 장항 상륙작전을 실시한 후 군산으로 철수했을 때에도 부대를 재편성했던 곳.
70	비응도유엔군군산상륙전지	미 극동군사령부 특공중대 125명이 1950년 9월 12일 군산만 섬으로부터 해안에 상륙하려다 3명이 전사하였던 곳.
71	군산미공군기지	1951년 4월 군산기지에 처음으로 F-84로 편성된 미 공군부대 제27전투호위단 등이 설치되어 6.25전쟁 중 공군작전을 수행했던 곳.
72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육군본부가 호남지역에서의 지연전을 위해 1950년 7월 17일 신태영 소장을 지휘관으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창설하여 운용했던 곳.
73	웅포독립대대전투지	1950년 7월 18일 국군 제7사단 기간병력으로 편성된 300여 명의 독립대대가 원용덕 준장의 지휘로 금강 남안을 경계하여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려 했던 곳.
74	익산교동리경찰전투지	1950년 7월 18일 전북경찰 제1대대 및 3대대 병력 700명이 강경으로부터 남진 중인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였던 곳.
75	전주동산동전투지	독립대대와 전북 경찰혼성대대가 1950년 7월 19일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의 남진을 저지하려 공방전을 벌이다 결국 돌파당한 곳.
76	전주지역신병모집지	1950년 7월 전주지역에서 학도병을 비롯해 일반 장정을 모병하기 위해 17세 이상 30세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곳으로, 전주중앙초등학교가 있는 곳.
77	고창용대리경찰전투지	영광 경찰이 1950년 7월 19일 법성포 북쪽 7km 해안에 상륙하여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북한군 유격대 50여 명을 토벌한 곳으로, 전라북도 고창에 있다.
78	정읍말고개전투지	1950년 7월 21~22일 조시형 소령이 지휘한 육군 제26연대 1대대 400여 명이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 곳으로, 전북 정읍시 일대.
79	정읍칠보발전소전투지	1951년 1월 14일 새벽, 회문산지구 빨치산 1,900여 명이 기습하였을 때, 전북 제18전투대대와 지서 병력이 그들을 격퇴했던 곳으로, 전북 정읍시 일대.

홈페이지(지자체, 보훈처, 성지, 기타)

번호	자원명	내용
1	제주4·3평화공원	1948년 4월 3일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4·3사건을 재조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2	너븐송이기념관	제주 4·3사건의 대표적 학살지였던 조천읍 북촌리에 4·3 희생자들을 위로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3	거창사건추모공원	6·25전쟁 중 1951년 2월 거창군에서 국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거창군에 조성된 추모공원.
4	노근리평화공원	한국전쟁 당시 1950년 7월 충북 노근리에서 참전미군의 기총사격으로 무차별 희생당한 피난민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다.
5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일부 국군의 공비토벌작전에 의해 산청군과 함양군 일대에서 무고한 민간인 705명이 희생되었던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영령들을 모시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경남 산청군에 조성되었다.
6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2·18 지하철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7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관	평생을 한글 연구에 몸 바친 민족학자 정인승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전북 장수군에 건립된 기념관.
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929년 광주전남지역의 학생들이 일제의 폭압에 항거한 데서 시작해 점차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이어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기념관.
9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구한말 거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과 뜻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개관하였다.
10	군산3·1운동 기념관	한강 이남에서 이뤄진 최초의 독립운동인 군산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애국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1	김좌진장군 기념관	1920년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 일본군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는 데 활약한 김좌진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가인 충남 홍성군에 건립된 기념관.
12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1929년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의 충돌을 계기로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에 저항하여 조직적, 전국적으로 전개된 11·3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13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힘썼던 낭산 김준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 영안군에 개관된 기념관.
14	대전 3·1의거 기념관	3·1운동 당시 대전출신의 14인 의사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군중이 일으킨 대전3·1의거를 기념하고 당시 사용한 물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5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관	조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앞장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본받고 그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건립된 기념관.

16	독립유공자 주재년 열사 기념관	1943년 큰 돌 4개에 일제를 비방하고 독립을 기원한 글을 새긴 혐의로 복역했던 최연소(14세) 독립열사 주재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수시 돌산을 금성리 작금마을 생가터에 건립한 기념관.
17	만해 기념관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남한산성에 개관한 기념관.
18	메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했던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
19	몽양 여운형생가(기념관)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자주통일국가 실현에 힘쓰다 암살당한 몽양 여운형을 기리고 그 뜻을 선양하고자 경기도 양평군 신원리에 있는 그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열었다.
20	밀양독립운동 기념관	밀양지역에서 일어난 무수한 독립운동사와 각종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기념관.
21	박열의사기념관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였던 박열 의사의 독립정신과 평등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경시 마성면에 2012년 개관한 기념관.
22	백범김구기념관	조국의 독립과 자주통일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에 건립된 박물관.
23	백산기념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했던 백산상회를 세운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를 기념하기 위해 부산 중구에 건립한 기념관.
24	백정기의사기념관	일제 강점기 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던 백정기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건립한 기념관.
2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나 정치범을 수용하기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형무소를 재보수 및 복원해 놓은 역사관.
26	서재필 기념공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여 민중운동을 이끌었던 서재필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가인 전라남도 보성군에 조성된 기념공원.
27	소안 항일운동 기념관	일제 당시 독립군자금 모금과 노동사,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소안학교를 만들며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힘썼던 소안도내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 전남 소안면에 건립된 기념관.
28	소충사	구한말 정재 이석용 장군과 그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28의사를 배향하는 사우(祠宇)로, 충의열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북 임실군에 있다.
29	수당 이남규선생 고택 및 기념관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위정척사운동을 펼친 구국운동가. 그의 고택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있으며 그 옆에 수당기념관이 있다.
30	심산 기념관	유림의 대표자로 파리장서사건을 주도한 김창숙 선생의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경북 성주군청 옆에 건립되었다.
31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1894년 갑오의병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의 독립운동 역사를 기념하고 전시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32	안중근의사 기념관	국권 피탈 이후 하얼빈에서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기리고 그의 호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남대문로에 건립된 기념관.

33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일제침략 때 전국13도 연합의병 창의군을 결성한 항일의병장으로,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향인 구미시에 건립된 기념관.
34	외술기념관	해방 후 한글가로쓰기 체제를 확립하고 문법서 우리말본을 토대로 한글 발전에 힘쓴 한글학자 최현배를 기념하기 위해 중구에 건립된 기념관.
35	우당기념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일본경찰에 붙잡혀 심한 고문 끝에 순국한 우당 이회영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종로구에 건립된 기념관.
36	운강이강년선생기념관	구한말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켜 승리를 거둔 운강 이강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경북 문경시에 건립된 기념관.
37	운문면3.18독립운동기념관	1919년 3월 18일 운문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방지초등학교 문명분교장 내에 건립된 기념관.
38	유관순열사 기념관	3.1운동과 3월 5일 만세 시위에 참여해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고문을 받던 중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고 그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생가지인 충남 천안에 건립된 기념관.
39	의암 기념관	동학(천도교) 3대 교주이며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유허지인 충북 청원군에 건립된 기념관.
40	의암 유인석선생유허지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의병장이자 위정척사론자였던 유인석 선생의 묘역으로 그의 고향인 춘천에 있다.
41	이육사문학관	민족시인이자 항일투사였던 이육사를 기리고 흠여져 있던 자료와 기록을 보존, 정리하기 위해 경북 안동에 있는 그의 생가터에 건립한 문학관.
42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평생을 조국광복과 독립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김철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고향마을인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 세워진 기념관.
43	일광기념관	면암 최익현의 휘하에서 호남지역의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정시해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에 건립된 기념관.
44	제천의병전시관	유인석을 중심으로 지방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봉기를 전개하여 이후 을미의병의 진원지가 되었던 제천에 이들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전시관.
45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3.1운동에 대한 보복응징으로 일제가 수원 화성지역에 방화 습격했던 제암리 사건을 비롯, 3.1운동 정신과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46	제주항일 기념관	제주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써 제주인들의 희생정신과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된 기념관.
47	청송 항일의병기념관	일제 침탈 당시 전국적으로 봉기한 항일의병과 연계한 청송지역의 의병활동 격전지를 성역화하여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된 기념관.
48	최용신 기념관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가이자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최용신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상록수공원에 위치해 있다.
49	충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망명길에 오르기 전까지 농촌계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였던 곳으로,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 위치해 있다.

50	한서남궁억기념관	조국독립과 민중계몽을 위해 힘쓴 한서 남궁억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강원 홍천에 건립된 기념관.
51	한용운선생 기념관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그의 생가지인 충남 홍성에 개관한 기념관.
52	김낙선의사 추모공원	전북의 항일의병장 김낙선 의사를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북 부안에 조성한 추모공원.
53	백범광장	대표적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 백범 김구를 기념하기 위해 남산공원에 조성된 광장.
54	오미 광복운동 기념공원	조국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오미 출신의 독립운동가 24명의 정신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공원.
55	탑골공원	1919년 3.1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곳으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56	강재구공원	1965년 월남파병 훈련 중 한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부하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강재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홍천군에 조성된 공원.
57	대전보훈공원	대전 출신으로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전 중구에 조성한 추모공원.
58	부산경찰추모공간	6.25전쟁 때 전사했거나 공무수행 중 순직한 부산경찰들을 추모하기 위해 부산경찰청 앞 동백광장에 마련된 공간.
59	사천호국공원	국가유공자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 고취를 위해 사천시에 조성된 호국공원으로 사천읍성과 노산공원에 나뉘어 있던 호국영령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다.
60	아산안보공원	6.25전쟁 당시 희생당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아산시가 조성한 기념공원.
61	연화동안보공원	1996년 북한 무장공비와 벌인 연화동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인제군 북면 용대리산에 조성된 기념공원.
62	월남참전용사만남의장	월남파병 당시 훈련장으로 월남파병용사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63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6.25전쟁 중 국군의 첫 대승이며 유엔군 참전 전까지 국군을 버티게 한 춘천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춘천시 근화동에 조성한 공원.
64	춘천옥산포전투지	1950년 6월 25일-26일 양일간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자주포를 동원한 북한군의 공격을 맞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곳.
65	충훈공원(옥천군)	6.25전쟁, 월남전쟁 등에서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옥천군에 조성된 공원.
66	하동군 호국공원	6.25전쟁 발발 당시 3일만에 섬진강을 따라 하동으로 온 북한군에 대항해 이를 저지하려 했던 하동 출신 국군들과 장병 등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호국공원.
67	강재구 기념관	1965년 월남 파병 훈련 중 한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부하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강재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홍천군에 건립된 기념관.

68	김재옥여교사기념관	6.25 당시 국군을 도와 동락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한 동락초 김재옥 여교사를 기리기 위해 동락초등학교 내에 건립한 기념관.
69	낙동강승전 기념관	6.25전쟁 때 낙동강전투와 관련해 전사한 군인과 희생된 시민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 한국전쟁 및 한국 역사에 관련된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다.
70	다부동 전적 기념관	6.25전쟁 때 철의삼각전투와 함께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에 세워진 기념관.
71	백마고지 전적 기념관	6.25전쟁 때 전개된 철의삼각지대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치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72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던 유치곤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에 개관한 기념관.
73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입을 막아내고 전세 역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74	자유수호평화박물관	6.25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희생한 국군 및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2002년 동두천시에 설립됐다.
75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의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나 물품을 보존, 전시하는 곳으로, 옛 육군본부 자리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해 있다.
76	철의삼각전적기념관	철의 삼각지대는 강원도 평강군, 철원군, 김화군을 잇는 지리상의 삼각지대로,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다. 이때 벌어진 철의삼각지대 전투들을 기념하고 안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77	학도병기념관(태백중학교)	6.25전쟁 발발 때 태백중학교 학생 100여명이 전투에 참전, 이중 전사한 18명을 추모하고 참전학도병 명예선양을 위해 태백중학교에 건립·개관되었다.
78	한국천주교회 첫 세례식터	1784년 한국 천주교회 첫 세례식이 거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례식 장소였던 수표교 인근 이벽(천주교 신자)의 집터에 기념표석을 세웠다.
79	강릉 동헌과 객사	병인박해 때 영동 지방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심문도 없이 참수당해 순교하였던 강릉의 관청건물.
80	홍산 도앙골 교우촌	이존창(루도비코) 선생의 전교활동에 의해 순교자를 배출한 교우촌이며, '맘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첫 사목보고서를 썼던 곳.
81	인천 제물진두	병인박해 때 순교자 박순집의 외가 집안과 이승훈의 후손들이 처형당한 순교터.
82	천진암 성지	수원에 위치한,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 이벽, 정약용 등이 모여 학문적 자원의 천학을 발전시켜 종교적 신앙의 차원인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곳.
83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후손 묘역	1839년 기해박해 때 처형당한 최경환 신부의 후손, 즉 최양업 신부(첫째 아들)의 동생들과 후손들의 묘역. 강원도 횡성군에 있다.
84	양주관아	1866년 병인박해 때 홍성원, 김윤호 등 다섯 명의 천주교 신자가 치명 순교한 곳.

85	경주관아와 옥터	을해박해와 경신박해, 무진박해 등 역대 박해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이 사학죄인으로 몰려 문초와 형벌을 받았던 곳.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허인백, 김종륜, 이양등이 잡혀가 갖은 문초를 당했다.
86	연양 간월 공소와 동정녀 감 아가다 묘	경남의 첫 공소인 간월 교우촌과, 1860년 경신박해 때 최양업 신부가 숨어 있던 죽림굴에서 최 신부를 돕다가 죽은 동정녀 감아가타의 묘가 있던 곳.
87	진천동굴	제주의 순교자 정난주 마리아, 최양업 신부의 최초의 사목처로 충북에 소재한다.
88	대산 구한선 타대오 묘	병인박해가 일어난 해 진주 포교에게 잡혀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젊은 순교자. 그의 묘는 고향인 경남 함안군에 있다.
89	상주 갈골 교우촌	1827년 정해박해 때 이윤일 성인을 비롯한 순교자들이 몸을 숨겼던 피신터로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의 갈골에 있다.
90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	1801년 신유박해 때 숨진 이우집 등 7명의 영광 지역 순교자들을 위해 만든 기념성당.
91	고산 넓은 바위 교우촌	여산에서 순교한 김성침 일가 6명을 포함 17명의 고산 출신 순교자들의 교우촌.
92	승례문화재현장	2008년 2월 방화에 의해 서울 승례문이 전소된 사건으로,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93	태안기름유출현장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5마일 해상에서 '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94	노무현대통령묘역	묘역주변에 생가와 추모의 집 전시관이 있으며 대통령의 길 코스 운영
95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18지하철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함양

부록(설문지)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델파이 1차 개방형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석운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지입니다.
 예비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조사는 1 ~ 3차 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차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 3차는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형 설문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4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김석운
 지도교수 : 송재호

MP / 010-2699-7812 / E-mail : ac9220@hanmail.net

□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소속	① 관광	② 인문사회	③ 관련기관
응답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① 5~10년	② 11~15년	③ 16년 이상 ④ 20년 이상
최종학력	① 학사학위	② 석사학위	③ 박사학위

□ 다크 투어리즘 관련 이론연구에 의해 도출된 요인

Lennon and Foley, Seaton, Dann 등 해외 다크 투어리즘 이론연구 및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형	대상지
제1요인	전투나 전쟁 지역 방문
제2요인	역사적인 사건 관련 묘지, 유명인 무덤 방문
제3요인	대량학살과 참사지역 방문
제4요인	테러, 재앙, 자연재해지역 방문
제5요인	식민지 역사관련 장소 방문
제6요인	역사적 사건 기념관, 인물 기념시설 방문
제7요인	형무소처럼 어두운 장소에서 연극 등을 통해 재현
제8요인	위험한 장소 방문
제9요인	비무장지대 방문

□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이론연구에 대한 연구 참여자 의견	
<p>※ 아래의 표에 요인별 속성을 적어주십시오. 속성은 중복 기입하셔도 됩니다. - 예시) 전투·전쟁 : 전투, 전쟁, 죽음 등</p>	
요 인	속 성
전투·전쟁	
묘지·무덤	
대량학살	
재난·재해	
식민지	
기념시설	
재현	
공포·위협	
안보(비무장지대)	
기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델파이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석윤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지입니다. 1차 개방형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조사는 3차 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2차는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형 설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를 위하여 전문가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5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김석윤
 지도교수 : 송재호

MP / 010-2699-7812 / E-mail : ac9220@hanmail.net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소속	① 학계	② 연구원	③ 관련기관
응답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① 5~10년	② 11~15년	③ 16년 이상
최종학력	① 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③ 박사학위

□ 다크 투어리즘 유형구분 질문사항

질문1)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국내에서 다크 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6.25전투가 벌어진 사건관련 기념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구성요소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전투·전쟁장소×기념시설 항목에 √ 표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중복응답 가능→모든 요인에 대해 표시).

사건 \ 방문장소	묘지, 무덤	기념시설	재현장소	기타()
전투·전쟁				
대량학살				
재난·재해				
식민지관련				
안보관련				
기 타()				

질문2) 다크 투어리즘 사건에 대한 구분 항목에서 위에 제시된 5개 요인 외에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나 통합되어야 할 요인이 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사건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 요인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요인명()	

질문3) 다크 투어리즘 방문 장소에 대한 구분 항목에서 위에 제시된 3개 요인 외에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나 통합되어야 할 요인이 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방문장소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 요인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요인명()	

질문4) 다크 투어리즘 유형구분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델파이 3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석운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지입니다. 1차 개방형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3차는 마지막 설문조사로서 2차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형 설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5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연구자 : 김석운
지도교수 : 송재호

MP / 010-2699-7812 / E-mail : ac9220@hanmail.net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소속	① 학계	② 연구원	③ 관련기관
응답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① 5~10년	② 11~15년	③ 16년 이상
최종학력	① 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③ 박사학위

3차 전문가조사 설문지 구성

□ 속성분류

- Rojeck 외 6건의 해외 연구 결과와 김사현 외 6건의 국내 연구에서 추출된 총 18개의 속성 가운데서 중복되는 속성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12개의 속성을 도출하였습니다.

- 아래의 속성은 2차 전문가조사 결과 도출된 각 요인별로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분석결과는 국내 다크 투어리즘 유형 결정과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속성	의 미
상품성	상업적인 개발과 상품화된 죽음, 재해의 소비로 유산자원이 관광상품으로 전환된다
창조성	유산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자발성	관광자는 역사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찾아 나선다
비목적성	우연한 기회의 방문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반근대성	죽음, 살상과 관련된 무기는 근대적인 문명의 발달에 기인한다
불시성	유명인의 죽음과 같이 갑작스런 죽음은 불시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역사성	역사 기억은 전승·보존된다
교훈성	반인간적인 역사적 사건·사실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소성	역사적 사건 발생 장소와 기념시설 장소는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과 장소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문화성	역사는 당시대의 삶을 포함하며, 삶이 포함된 문화는 역사를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위험성	현대 관광객은 모험을 찾아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이 발생한다
정체성	역사적 사건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질문사항

질문1) 본 설문은 전투전쟁묘지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인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전투전쟁묘지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2) 본 설문은 전투전쟁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전투전쟁기념시설	상 품 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3) 본 설문은 전투전쟁재현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전투전쟁재현장소	상 품 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4) 본 설문은 대량학살묘지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대량학살묘지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5) 본 설문은 대량학살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대량학살기념시설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6) 본 설문은 대량학살재현장소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대량학살재현장소	상 품 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7) 본 설문은 재난재해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재난재해기념시설	상 품 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8) 본 설문은 식민지관련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식민지 관련 기념시설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9) 본 설문은 안보관련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안보관련 기념시설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10) 본 설문은 안보관련재현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안보관련 재현장소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11) 본 설문은 민주화관련묘지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민주화관련 묘지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질문12) 본 설문은 민주화관련기념시설요인에 대해서 속성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제시된 12개의 속성마다 적합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	속성	적합성 평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민주화관련 기념시설	상품성	①	②	③	④	⑤
	창조성	①	②	③	④	⑤
	자발성	①	②	③	④	⑤
	비목적성	①	②	③	④	⑤
	반근대성	①	②	③	④	⑤
	불시성	①	②	③	④	⑤
	역사성	①	②	③	④	⑤
	교훈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성	①	②	③	④	⑤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Dark Tourism Typology and Resources Applying

Seok-yun, Kim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s time goes by, current events become the past. The past often effects the present. However, not all of past effects the present. Memories of the past can be seen as changed or newly reconstituted.

Tourism resources based on unique local history, effects to taking advantage of the reinterpreted local history as a resource are being accelerated. Tourism resources that are based on unique local history have their own distinct attraction and competitiveness. A memorial to the darker side of history and commemoration functions as an important touristic resource.

In Korea, studies of Dark Tourism such a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of Dark Tourism facilities, study on use of negative place assets, appearance of Dark Tourism in the risk society and other Dark Tourism related theoretical research and studies on sites.

Studies shown in other included, tourists behavior relating to death, potential of death as a tourism resource, Dark Tourism as an actual space museum, guide way of Dark Tourism and other studies.

Historical memories are not fixed and reflect the current lives it begets various interpretations. Dark Tourism is defined as traveling to actual locations of historically associated tragedies, or disasters, or other related events. Since the mid 1990s, Dark Tourism has been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in academic and social level.

Dark Tourism has been studied through a variety of terms. But, as for concept and scope, there are still some different points of views among the scholars. Before beginning academic study, we need to clarify the typical form. Therefore, the need Dark Tourism research through the study of typology, which is to proceed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is required. There is a limit to apply case of Dark Tourism from overseas to the domestic research level. The nature and distribution of the range is different. Some cases seen overseas, can't be found in domestic cas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phenomena exist in Korea, which is rare in the other countries.

Thus, the need for Dark Tourism research through the study of typology suits Korea, on the basis of domestic cases and studies overseas. Based on the type of domestic Dark Tourism, it's required to study in-depth research, such as studies of the recipient side, provider side, and the difference in types of visiting behavior. Later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to a unified study on related cases.